







# 2012 로컬푸드 컨퍼런스 in 충남

2012 Local Food Conference in Chungnam

- 일 시 : 2012. 9. 7(금) 09:30~18:50
- 장 소 : 온양관광호텔
- 주 최 :  충청남도 CHUNGCHONGNAM-DO  충남발전연구원
- 후 원 : NH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 로컬푸드 국제컨퍼런스 in 충남

## International Local Food Conference in Chungnam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수립 방안

- **일시:** 2012년 9월 7일(금) 09:30~12:30
- **장소:**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
- **주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후원:** 충청남도,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 <순서>

#### ○ **축사 (09:30~10:00)**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임승한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 ○ **주제 발표 (10:00~12:00, 각 30분씩): 각국의 지자체 계획/정책추진 사례**

- 미국 사례 (Mark Winne / 푸드시스템 활동가 겸 저술가)
- 이탈리아 사례 (Gianluca Brunori, Vanessa Malandrin / 피사대학 교수, 강사)
- 일본 사례 (다니구치 요시미츠 / 아키타 현립대학 교수)
- 충남 사례 (허남혁 / 충남발전연구원)

#### ○ **질의 응답 및 종합정리 (좌장: 박진도) (12:00~12:30)**

## “착한 농부와 도시민의 건강한 만남, 충남 로컬푸드”

- | 일정  | 세부 내용  | 장소        |
|---|--|-----------|
| 14:00~<br>15:50                               | <b>[제1세션] 사회적경제와 공공급식</b>                                | B2        |
|   | - 학교급식 사회적기업 진출 조성의 의미와 개선과제                             | 민들레홀      |
|   | - 학교급식 사회적기업 진출 현황과제                                     |           |
|   | 주관: 사회적기업 이드밥상   |           |
|   | <b>[제2세션] 지역생협: 생협의 중심적 가치로서의 로컬푸드 실천방안 모색</b>           | B2        |
|   | - 생협의 가치 실현 방식으로서의 로컬푸드                                  | 능수화홀      |
|   | - 품앗이생협의 로컬푸드 실천방안 모색                                    |           |
|   | 주관: 품앗이생활협동조합  |           |
|   | <b>[제3세션] 지자체 정책과 거버넌스</b>                               | B2        |
|   |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사례  | 진달래홀      |
| - 전북도 로컬푸드 정책사례                               |  |           |
| - 옥천군 로컬푸드 육성조례 제정과정                          | 충남 로컬푸드 식당 인정제 사례  |           |
| 주관: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           |
| <b>[제4세션] 식생활교육: 충남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의미와 개선방향</b> | B2   |           |
| - 충남학교식생활교육체험장 조성의미와 개선과제                     | 무궁화홀   |           |
| -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 설계 및 발전방향                      |  |           |
| 주관: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  |           |
| 16:00~<br>17:50                               | <b>[제5세션] 꾸러미: FTA시대 꾸러미사업의 의미와 협력과제</b>                 | B2        |
|   | - FTA시대 꾸러미사업의 의미와 협력과제                                  | 민들레홀      |
|   | - 꾸러미사업의 협력구조와 소비실태                                      |           |
|   | 주관: 청양 YMCA  |           |
|   | <b>[제6세션] 학교공공급식: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운동의 과제</b> | B2        |
|   | -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위한 과제와 방향                          | 진달래홀      |
|   | -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에 대한 방안                              |           |
|   | -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충남지역 친환경 농업 유통의 과제와 전략                     |           |
|   |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                               |           |
|   | 주관: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충남운동본부                        |           |
| <b>[제7세션]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농민직판 활성화 방안</b>       | B2   |           |
| - 지역식품체계구축을 위한 충남농민장터 활성화방안                   | 능수화홀   |           |
| - 충남지역 농민장터 사례발표(예산, 천안, 홍성)                  |  |           |
| 주관: 공생공소 농민장터연구회                              |  |           |
| <b>[제8세션] 슬로푸드 이야기마당: 생물종다양성과 로컬푸드</b>        | B2   |           |
|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과 함께 맛보는 토크콘서트                   | 무궁화홀   |           |
| - 제주 푸른콩된장                                    |  |           |
| - 진주 토종얇은뱅이밀                                  |  |           |
| - 군산 울외장아찌                                    |  |           |
| 주관: 국제슬로푸드한국위원회                               |  |           |
| 18:00~<br>18:50                               | 종합토론 + 충남 전통주 시식회(약손산방)                                  | 3층 다이아몬드홀 |
|   | - 기조발제자 8인의 세션별 정리발언                                     |           |
|   | - 오전 주제발표자 3인의 코멘트                                       |           |
|   | - 종합 토론 (좌장: 허승욱 단국대 교수)                                 |           |

# || 목 차 ||

I. 로컬푸드 국제심포지엄 in 충남 .....	5
II. 로컬푸드 국내 컨퍼런스 in 충남 .....	143
1. [제1세션] 사회적경제와 공공급식 .....	143
2. [제2세션] 지역생협: 생협의 중심적 가치로서의 로컬푸드 실천방안 모색 .....	205
3. [제3세션] 지자체 정책과 거버넌스 .....	237
4. [제4세션] 식생활교육: 충남학교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의미와 개선방향 .....	291
5. [제5세션] 꾸러미: FTA시대 꾸러미사업의 의미와 협력과제 .....	305
6. [제6세션] 학교·공공급식: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운동의 과제 .....	319
7. [제7세션]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농민직판 활성화 방안 .....	349
8. [제8세션] 슬로푸드 이야기마당: 생물종다양성과 로컬푸드 .....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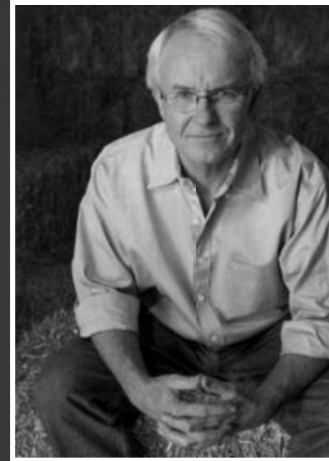
# 로컬푸드 국제심포지엄 in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수립 방안

- 미국 사례 (Mark Winne / 푸드시스템 활동가 겸 저술가)
- 이탈리아 사례 (Gianluca Brunori, Vanessa Malandrin / 피사대학 교수, 강사)
- 일본 사례 (다니구치 요시미츠 / 아키타 현립대학 교수)
- 충남 사례 (허남혁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 하트포드 푸드시스템(HFS) 이사 (1979 - 2003); 미국 지역사회 먹거리보장 연대(CFSC) 공동창립자
- 저서: ‘먹거리 반란, 게릴라 가드너, 똑똑하게 요리하는 엄마들(2010)(*Food Rebels, Guerrilla Gardeners and Smart-Cookin’ Mamas*)’, ‘먹거리 격차 매우기(2009)(*Closing the Food Gap*)’
- 먹거리 정책협의회(FPC) 및 지역식품체계 컨설턴트(Mark Winne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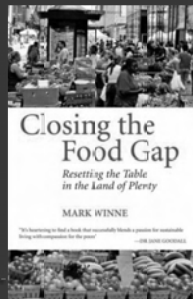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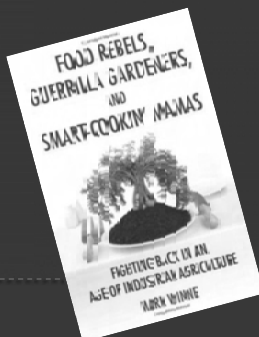
**마크 윈**

[win5m@aol.com](mailto:win5m@aol.com)

505-983-3047

[www.markwinne.com](http://www.markwinne.com)

[www.foodpolicycouncil.net](http://www.foodpolicycouncil.net)



## 먹거리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정기적인 선거, 다당제, 기본적인 자유,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 등 민주주의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아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무척 가난한 나라에서조차 이 말이 적용된다.)”

~아마르티야 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먹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야기의 거의 전부다”

Take it from someone who's been around at least a thousand years, food is pretty much the whole story all the time.”

~커트 보네거트 (미국의 저술가)

## 미국의 먹거리 격차(먹거리 불안정)



굶주림 및 먹거리 불안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4천9백만 명)과 기록적인 수준의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 (4천7백만 명)

Source: USDA



과체중과 비만(65%), 2050년까지 미국인의 3분의 1이 당뇨병 환자가 될 전망.

Source: Center for Disease Control



“먹거리 사막”과 “먹거리 늪(food swamps: [고열량 정크푸드만 구입할 수 있는 지역])” (2억3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

Source: USDA



1970년대-90년대 저소득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슈퍼마켓 철수로 인해 먹거리 접근성 악화



내년 1백만 에이커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

Source: American Farmland Trust

##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굶주림(빈곤)의 원인에 대한 대책보다 식량구호(빈곤에 대한 관리)가 우선시; USDA에 영양 관련 15개 개별 프로그램 존재
- 먹거리 소매[망]과 지역농업경제 재구축은 무시되어 왔음
- 영양과 건강보다 열량(칼로리)이 우선시: 푸드뱅크가 일반의 인식을 지배하게 됨; 1979년 0개소에서 현재 206개소로 증가; 6만개 이상의 긴급 [구호용] 급식소가 운영 중
- 저임금 경제와 빈곤으로 인해 고열량의 값싼 먹거리가 필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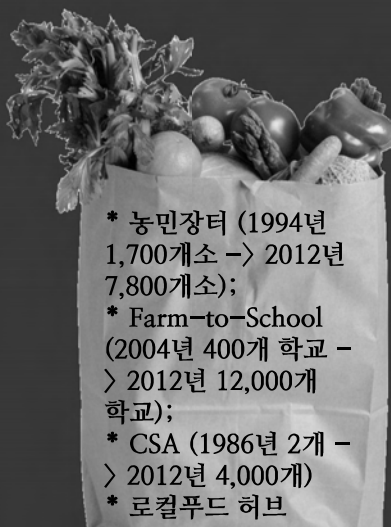


##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COMMUNITY FOOD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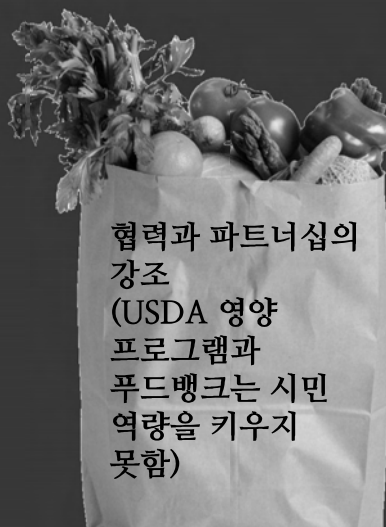
- 지역/광역 농식품체계에 초점 -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field to plate”) 접근법
- 지역공동체가 먹거리 필요 중에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발전시킴
- 농식품체계의 공정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킴
- 연대와 시민참여에 기반
- 로컬푸드와 지역 농업경제의 증진
- 다부문성: 지역/광역 농식품체계의 모든 주체들을 참여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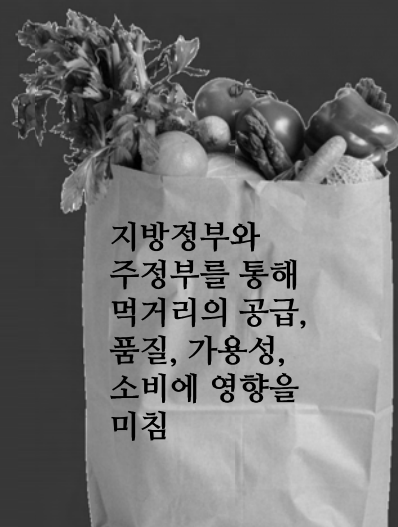
## 지역사회 먹거리보장의 기반 - 프로젝트, 파트너십, 정책(“THE 3-PS”)



프로젝트



파트너십



정책

## 먹거리 정책과 먹거리 시민권: 지역, 주, 연방



Photo credit: Peggy Turbett, The Plain Dealer  
(Cleveland Farm to School initiative, 2010)

- 지역/주 차원의 먹거리 정책협의회(PFC)  
(2010년 111개소, 2012년 193개소)
- 사례: 지역산 먹거리 구매와 지역경제 지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공조달 규정 - 뉴멕시코, 클리블랜드
- 몬타나 주 미솔라(Missoula): 일급 농지와 목장지는 개발하지 않도록 유도, 가정 뒷마당에서 가금류와 벌 사육을 허용하는 조례

## 지역/주의 먹거리 정책 증가



Photo credit: American Farmland Trust & Connecticut  
Conference of Municipalities  
(Development encroaching on farmland in Connecticut)

-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도시텃밭과 도시농장 보호/확대 위해 토지이용 규정을 변경; “건강한 클리블랜드 이니셔티브” 창립 통해 로컬푸드 생산과 먹거리 경제를 건강과 연결
- 뉴멕시코주, 코네티컷주: 농가에서 학교로(Farm-to-School)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인력 확대
- 코네티컷주, 콜로라도주 볼더(Boulder): 지속가능한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보호를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 실행 (코네티컷주는 농업과 농지의 지원을 위해 150개 단체로 이루어진 연대를 결성)



## 일리노이주 먹거리 정책 협의회(FPC)



- 관련 자료: <http://foodsecurity.org/FPC/doc/IllinoisFoodHubGuide.pdf>
- 푸드허브: 중소 규모 생산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출처가 확인된 지역/광역산 먹거리 상품의 집합, 분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사업체 혹은 조직(USDA)
- 푸드허브는 일리노이산 먹거리에 대한 일리노이주 내의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승수효과(1.4-2.6)를 통해 140~260억 달러의 경제적 편익 발생.
- 일리노이주는 현재 140억 달러에 이르는 수요의 단 6%만을 [지역산으로] 충족시키고 있음

Photo credits: "Building Successful Food Hubs" report (2012)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Opportunity  
University of Illinois Business Innovation Services  
Illinoi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amilyFarmed.org



## NC 10% 캠페인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컬푸드 경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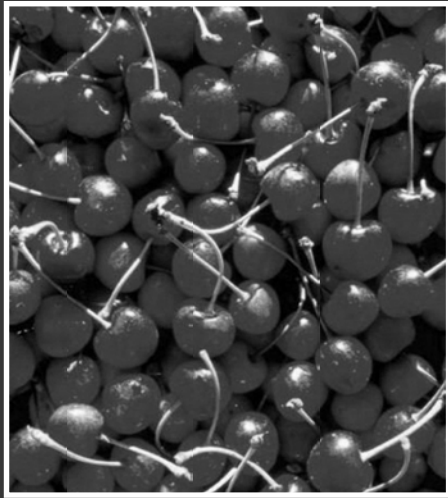


Photo credit:  
<http://www.ncsu.edu/project/nc10percent/partners.php>

- 개인과 사업체들이 먹거리 지출액의 10%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지역산 먹거리에 지출하기로 서약
- 주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 농가협회(NC Farm Bureau) 등 수십 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이 캠페인을 지원
- 2010년 7월 이래, 5,713명의 개인과 679개 사업체가 서약에 참여: 2,100만 달러 상당의 지역산 농식품을 구매
- [www.ncsu.edu/project/nc10percent](http://www.ncsu.edu/project/nc10percent)



## 미시간주 먹거리 정책 협의회(FPC)



- 미시간주 먹거리 헌장(Michigan Food Charter) 제정: 다양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에 의해 지역/주 농식품체계의 가치, 비전, 목표에 대한 진술
- 미시간 먹거리 헌장의 목표:  
2020년까지 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먹거리의 20%를 지역산으로 하고, 미시간 주민의 80%가 적당한 가격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20%는 지역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 내 유치원-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먹거리와 농업을 포함시킴

## 먹거리 정책 협의회가 그밖에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Photo credit: Andrea Sauer (Members & partners of the Grant County Food Policy Council, New Mexico, 2010)

- 광범위한 연대의 구축: NGO, 농민, 정부, 먹거리 공급업체, 건강 및 환경 관련 활동가
- 연구조사 (먹거리 평가/대중교육)
- 지자체에 먹거리 정책 자문: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건강, 튼튼한 지역경제 증진
- 보편적인 사안: 더 건강하고 적당한 가격의 먹거리 제공, 농가에서 학교로(farm-to-school) 프로그램, 농지보전, 농민수 확대

## 지역/광역 먹거리체계를 지원하는 미국 연방정부(농무부 USDA)의 먹거리 정책



<http://www.usda.gov/maps/maps/kyfcompassmap.htm>



Photo credit: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Compass Map

- USDA “내 농부를 알고 내 먹거리를 알자(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로컬푸드 정책 포털사이트: 지역/광역 먹거리체계 강화를 위해 2009년 시작
- 농민장터, CSA, 먹거리정책협의회, 푸드허브 등에 대한 자료 취합
- 목표: 좋은 먹거리 및 농업공동체의 경제적 발전 촉진, 농민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제공, 지역/광역산 먹거리 증진, 적당한 가격의 신선한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성 확대, 농업과 환경 간 연결고리 보장

## 미 농무부 로컬푸드 정책 관련 지원금, 대출금, 지원프로그램 (예)



- 농민장터 진흥 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
- 농가 대출 프로그램(Farm Loan Programs)
- 농민장터- 노인 영양보조 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 지역사회 먹거리 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s) [지원 프로그램]
- 신규농민 지원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 농지 및 목장 보호 프로그램(Farm and Ranchland Protection Program)
- 농촌 사업체 지원금(Rural Business Enterprise Grants)
- 부가가치 창출생산자 지원금(Value Added Producer Grants)

## FARM TO CAFETERIA (농가에서 기관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프로그램)



- Farm to Cafeteria (학교, 대학, 교도소, 병원, 양로원): 지역/광역 기관들의 신선한 로컬푸드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광역 농민들의 시장 확대
- 구내식당들이 신선한 먹거리를 취급/준비할 수 있는 역량 증대
-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 증진
- 먹거리, 농업, 환경, 건강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 증진
- 광역 수준에서의 먹거리 및 농업 관련 인프라 재생
- 학교텃밭, 영양교육

## REAL FOOD CHALLENGE (진짜 먹거리 챌린지)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건설을 위해 젊은이와 대학의 힘을 지렛대로 활용함
- 목표: 대학에서 기존에 먹거리에 지출하던 50억 달러의 예산 중 10억 달러를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인도주의적인 로컬푸드로 전환
- 300개 이상의 미국 대학이 자체농장, 공정무역 프로그램, 농가-구내식당 직거래 프로그램 보유
- [www.realfoodchallenge.org](http://www.realfoodchallenge.org)



## 버몬트 주 FARM TO CAFETERIA 프로그램



- 버몬트 주에서 10년 동안 진행중:  
[www.vtfeed.org](http://www.vtfeed.org)
- 16개 푸드허브가 먹거리 관련 [중소] 사업체를 위해 취합, 배분, 가공 [서비스] 제공
- 주내 학교의 60%가 농가에서 학교로(Farm to School) 프로그램에 참여
- 주정부가 Farm to School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규모 지원금 제공

## FARM TO CAFETERIA 관련 향후 개선점



Photo credit: Andrea Sauer  
(Elementary school lunch, 2010)

- 로컬푸드의 값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음
- 기관 구내식당들이 가급적 가장 값싼 먹거리를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인해 지역 농민들의 참여가 힘든 경우 발생
- 지역산 우대 명시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방정부의 지원과 정치적 지원이 미약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win5m@aol.com](mailto:win5m@aol.com)

505-983-3047

[www.markwinne.com](http://www.markwinne.com)

[www.foodpolicycouncil.net](http://www.foodpolicycouncil.net)





#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을 위한 토스카나 주의 정책

충남 아산시  
2012년 9월 7일

잔루카 브루노리  
피사대학 교수

바네사 말란드린  
피사대학 연구원



##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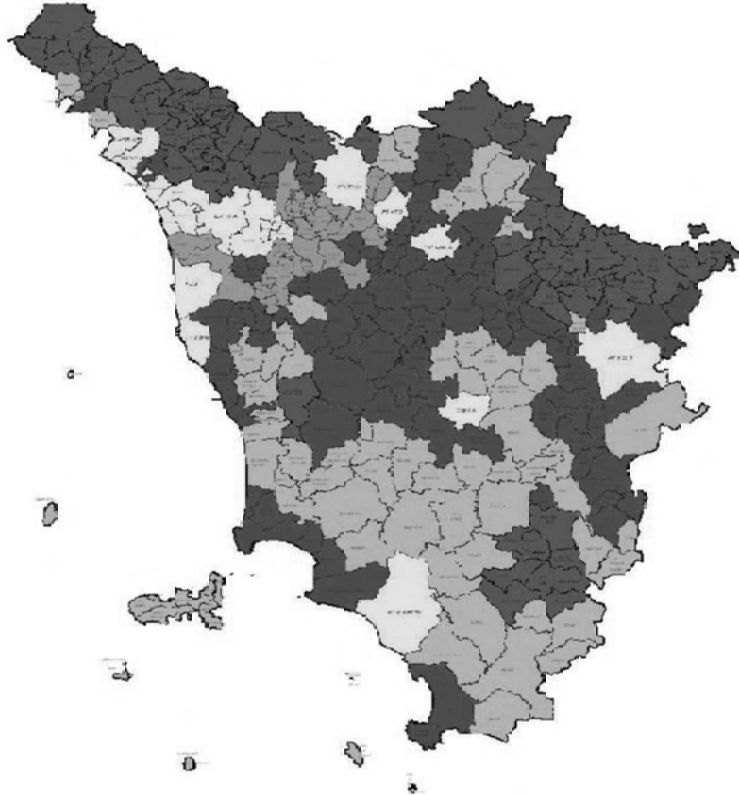


- 인구 360만명, 면적 22,939km<sup>2</sup>
- 농촌지역: 면적의 56%, 인구의 15%
- 농가수: 13만 9천호, 고용 5만명
- 1인당 GDP: 이탈리아 평균 이상(110%)
- 농업 부문 감소현상: 40년간 농가수 40%, 경지면적 26% 감소
- 포도: 이탈리아 포도밭의 8.3%, 42,300농가, 이탈리아 전체 생산액의 10.8%

### 토스카나 모델

- 언덕과 산악, 소농, 다양한 산물, 고품질 농식품, 전통적 음식문화 등 다양성과 지역화의 모델을 대표하는 전세계적 모범사례
- 와인, 올리브유, 치즈, 육가공품 등은 세계적 유명산물이며, 그러한 식재료로 만드는 “토스카나 요리”가 크게 기여함
- 슬로푸드 운동의 활성화: 시칠리아주, 피에몬트주 다음으로 활성화된 지역





## 국가개발계획 상의 토스카나주 분포

-도시 4.6%, 산간 22.6%, 농촌 56%

-농업 45%, 산림 43%

노란색: 도시지역

녹색: 집약농업지역

빨간색: 변화가  
진행중인 농업지역

오렌지색: 쇠락하고  
있는 중간농업지역

파란색: 개발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



## [농가의 소비자] 직판 (1)

- 2000년 토스카나 농가의 52,3%가 참여
- 농산물, 축산물, 농가 가공식품(잼, 주스, 치즈)
- 농업현대화법(Dlgs n.228/01) 제4조
- 직판방식: 개별농가/집단적, 장소고정형/이동형
- 농촌관광활동이나 전체적인 농촌개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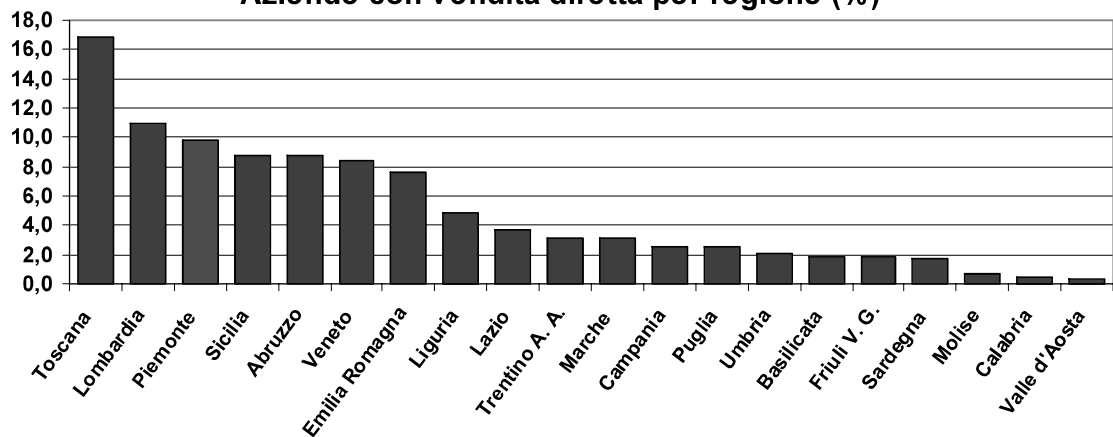


## [농가의 소비자] 직판 (2)

- 다른 농민이 생산한 물품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주가 되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기존 법률(n.59/63)이 계속 적용됨
- 지역 행정관서에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함



Aziende con vendita diretta per regio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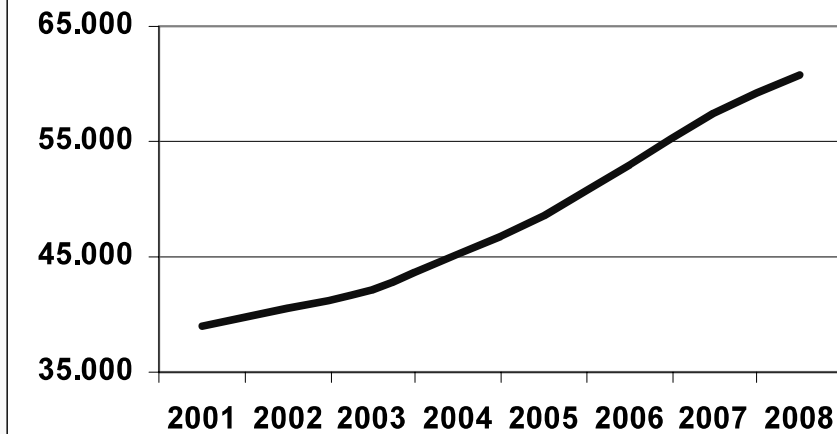


### 각 주별 직판 참여 농가 비율

토스카나주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음  
=> 약 17%의 농가가 직판에 참여

Source: National observatory on DS





## 이탈리아 직판 농가수

2003~2008년까지 5년간 직판농가수 44% 증가

Source: Agri 2000, Coldiretti – National observatory on DS



##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 토스카나 주 프로젝트

- ✓ 프로젝트명 “SFSC: 토스카나주 농식품 가치제고를 위한 광역 네트워크 구축”
- ✓ 2007년 주정부 승인(DGR n. 335)





## 프로젝트 목표 (1)

- 농민들이 생산한 농식품에 대해 합당한 가치 인정
- 인증된 토스카나 농식품과 특징에 대한 인지도 제고
- 각 지역 내에서 자체 생산된 농식품의 소비 확대
- 운송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제철 농식품 소비를 증대



## 프로젝트 목표 (2)

- 로컬푸드의 생산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특히 주변 지역에서 잠재적인 관광자원화 목적
- 농촌지역에서 '음식관광'의 확대
- 먹거리 공급사슬 상의 계약관계 증진





## 경제적 측면

- ✓ 이 프로젝트를 통해 토스카나 주정부는 지역 단체들이 주도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
- ✓ 보조금으로 총 [창업]비용의 80%를 충당할 수 있으며, 상환 의무는 없음.



## 지원대상 (1)

### 1단계 지원대상:

- 농민장터
- 직판장
- 먹거리 공급사슬 상의 계약관계
- 예술-음식 연계사업





## 지원대상 (2)

2단계(2009 / 2010) 프로젝트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범주가 지원대상에 추가됨

- 물류: 타지역 농민들을 일부 수용하여, 토스카나 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품이 농민장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함
- 특별 프로젝트: 마케팅과 소통 측면에서 독특한 혁신성과 실험성을 가진 시험적 프로젝트



## 직판의 장소

직판은 몇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실외: 이동형 또는 고정형
- 실내: 농가 또는 마을/도시
- 요구에 따라: 농가직판 또는 택배
- 개별적 또는 집단적(다른 농민들과 장소의 공유)









## 토스카나 주 볼테라(VOLTERRA)

Emporio del Gusto

한 공간을  
여러 농민이 공유하는  
집단적인 방식의  
직판장 사례



## 토스카나주 볼테라(VOLTERRA)

Emporio del Gusto

- 여러 농가에서 생산된  
유제품이 한 냉장고 안에  
동시에 진열

- 생산자 이름표가 달려  
있음



토스카나주 몬테바르끼 장터 (Market of Montevarchi)

집단형 실내장터, 매일 운영



## 농민장터 (farmers' market)

- 농업현대화법(Dlgs n.228/01)에서는 집단형 판매의 가능성도 도입되었음
  - Reg. CE 852/2004 - 식품 위생규정
  - Reg. CE 853/04 - 축산품 위생규정
- “식품위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해당 식품 부문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다” (Art.1 Reg. CE 852/2004)



## 농민장터 (2)

- 먹거리 시식 체험
- 지리적 표시제 등 여러가지 라벨(PGI, PDO, DCO, 슬로푸드 프레지디아 등)을 가진 로컬푸드 진열
- 지역의 음식문화 전시
- 지역의 고품질 음식점 홍보
- 장터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활동



### 몬테바르끼 장터 (토스카나주)

판매대 60개(3x3 m)  
대형파라솔 20개  
냉장고 10개  
플라스틱 진열대 20개  
테이블 65개(2x1 m)  
조명시설 + 전기공급





## 농민장터에 참여하고 있는 기타 관련 단체

- 콜디레티(Coldiretti): 전국농민연합
- 슬로푸드(Slow Food) 장터: 장터로부터 최대 40km 반경 이내의 지역생산자들만 참여 가능
- Aiab (이탈리아 유기농업 협회)



## 생우유 직판 사례

[www.milkmaps.com](http://www.milkmaps.com)

- 식품위생규정(852/04), 축산품 위생규정(853/04)
- 2007년 중앙정부-주정부간 협약
- 2007년 주 조례(DGR n.381/2007)

=> 소비자들에게 더 질 좋고 더 저렴한 우유 공급

=> 환경적 편익 &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





### 생우유 자판기(토스카나주)

생우유는 리터당 1유로에 판매되며, [공병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자판기에서 플라스틱병이나 유리병 구매도 가능함



### 유제품 자판기 (슬로베니아 류블랴나(Ljubljana, Slovenia))

우유, 치즈, 요구르트, 빵, 기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품





## 연대적 구매그룹(GAS) (영미권에서는 CSA, 한국의 꾸러미)

- 2008년 재정법에서 인정받은 이래 다음과 같은 정의가 통용되고 있음:

"재화를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잉여 없이 배분할 목적으로 창설된, 윤리성-사회적 연대-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결사체"

=> 이 같은 제도적 인정 덕분에, 비영리단체와 동일한 규제에 의거하여 활동이 가능해짐



## 연대적 구매그룹(GAS) (2)

- 상품의 품질, 지속가능성, 연대, 소비자-생산자 간의 관계를 특징으로 함
- 농가방문, 공동 점심식사, 토론, 집단학습 등의 활동
- 저렴한 가격 vs 생산자와의 연대(가격문제) 간의 분기
-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vs 정치적 지원 간의 분기
- GAS 전국 네트워크가 활동





**콜롬비니 농장의  
사회적 농업  
(Social Farming)**  
- 사회적 약자의  
농사활동 통한 치유,  
사회적 포용,  
농촌활성화 효과



## 코라짜노 농장 (1) (토스카나주)

여성들이 연대적  
구매그룹(GAS)  
회원들에게 배송될  
상자들을 준비하고  
있다.





## 코라짜노 농장 (1)

여러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진열된 선반: 파스타, 주스, 오일, 잼



## 연대적 구매그룹(GAS)들의 로고와 슬로건 (예)



연대적 구매그룹

- 깨어있는 정신과 현명한 시간 사용을 위한 수단







## GAS와 연대경제 지구 (Districts of Solidary Economy)

Territories in movement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 <가치>

- 짧은 먹거리 공급사슬을 통한  
질 높은 소비
- 공정한 경제
- 윤리적 가치
- 유기농
- 녹색경제
-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 <뿌리>

- 지역 행정기관
- 지역민과 풀뿌리 단체
- GAS(연대적 구매그룹)

### <지표면>

- 다 함께 미래를 창조하자
- 미래를 보전하자

### A Corsico sta crescendo un nuovo albero





## 결론

- 대상 소비자에 따라 주의 깊게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함(장소, 일정, 사람을 끌어들이는 장치, 의사소통 관련 측면)
- 혁신적이면서도 가벼운(light) 형태의 물류지원을 통해, 주문과 배송에 대한 관리를 더 쉽게 만들고 운송을 효율화해야 함
- 조율, 관리, 보증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이에 관한 자연스런 해결책이 도출될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은 불가능함



## 피사 市 먹거리계획

(The Pisa Food Plan )





## 배경

- 토스카나주는 로컬푸드/지역특산물과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짧은 먹거리 사슬에 대한 지원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음
- 지자체들의 참여가 활발함
- 소비자 집단들이 활발히 활동함
- 관련 전문가들을 넘어선 [광범위한] 학문적 관심이 존재
- 정치인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 광역 수준 개발기구들이 관심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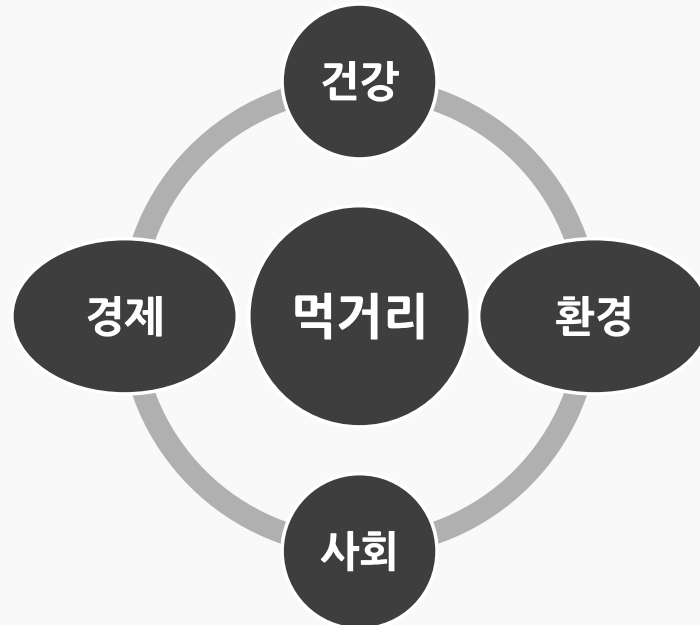
## 피사 시 먹거리 프로그램

- 학교 과일 간식 공급
- 생수 대신 무료로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급소(Major's water)
- 푸드마일 캠페인
- 학교급식
- 농민장터
- 연대적 구매그룹(GAS)
- 도시농업
- 게릴라 가드닝
- 생물다양성 축제
- 종자 갈무리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 탄소 라벨링
- 지속가능한 시장
- 지속가능한 소비자
- 0 Km 식재료 식당
- 간식 자판기
- 탄소발자국 계산기
- Last minute market[폐기 직전 먹거리를 수거,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단체]
- 킷캣 보이코트 (팜유 생산으로 오랑우탄이 죽어가는데 대해, 팜유 사용 내슬레 초콜렛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 지속가능한 먹거리 워크숍
- 슬로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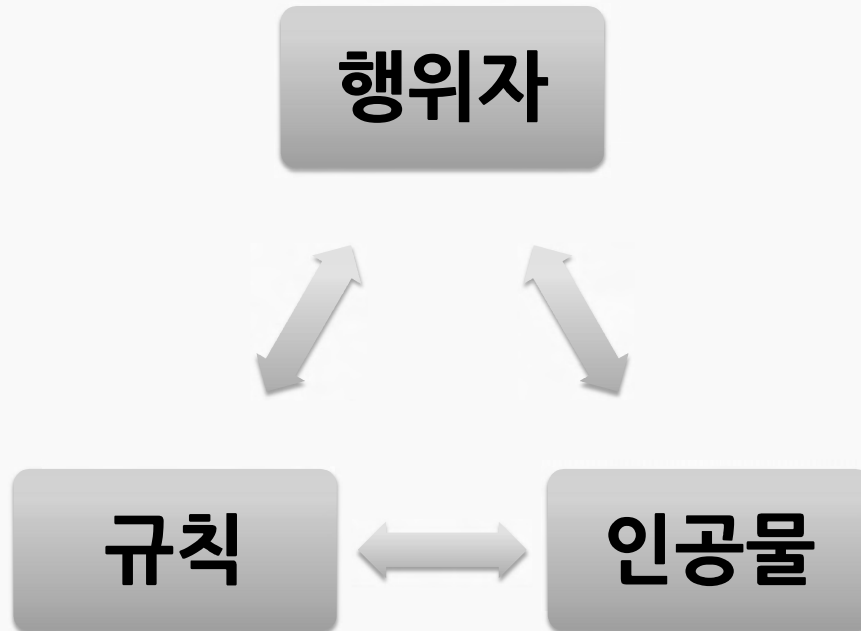
# 통합의 필요성



**경제위기와 예산삭감의 시대에  
새로운 정책영역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사회-기술체계로서의 도시



## 소비자: 변화의 추동동인

- 급진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자유롭게 행사
- 먹거리체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먹거리운동에 참여
- 새로운 먹거리 공급체계를 함께 만들어냄
- 먹거리가 사회-기술적 관행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방식을 재편함





## 먹거리 계획

- 정보의 수집
- 목표의 설정
- 정보의 전파
- 관련 노력들의 조율
- 자원의 동원



## 상이한 주체들 간의 만남과 네트워킹

- 당사자들 간의 회의
  - 학계 네트워크
  - 시민사회 네트워크
  - 의료 관계자 네트워크
  - 지역 행정기관 네트워크
  - 먹거리 관련 사업체 네트워크
- 학교 급식 위원회
- 피아노델시보(Pianodelcibo: 먹거리계획) 웹 2.0
  - 인터넷 소통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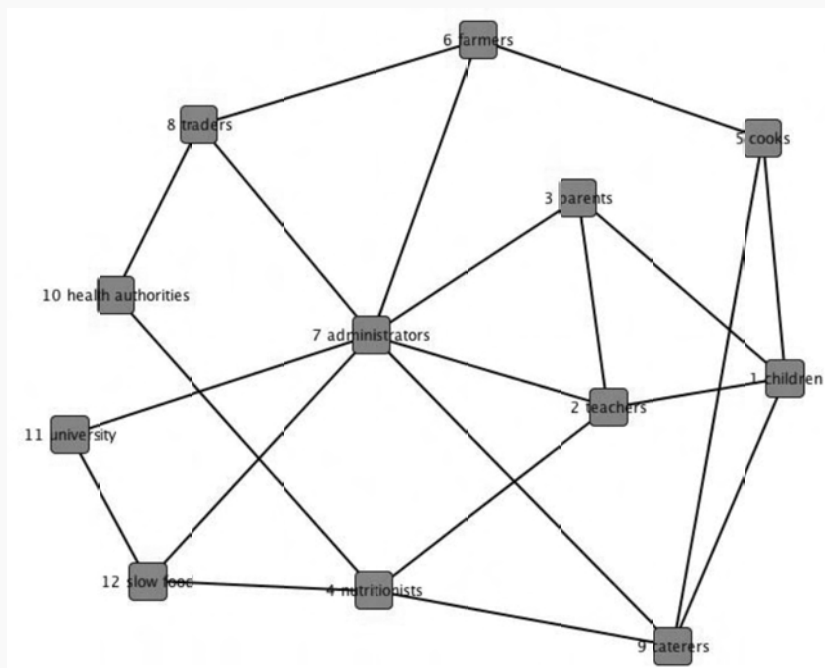


## 활용가능한 자원들

- 학계
- 학생
- 자원봉사자
- 웹 활동가
-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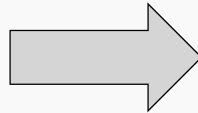
##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 학습 과정

?



## Pianodelcibo 웹 2.0 (먹거리계획 웹 2.0)

- 자원의 공유(사진, 동영상, 행사, 참고문헌)
- 활동들의 문서화 및 공유
- 토론 장의 활성화
-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줌

### ⇒ 먹거리 계획의 목표

- 공공정책, 시민사회운동, 경제활동을 서로 조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하는 것







Percorsi d'inter-azione sul cibo  
per un'alimentazione salutare e sostenibile

PRESENTAZIONE MIA PAGINA EVENTI BLOG GRUPPI FORUM NOTIZIE DALLA RETE LIBRI UTILI DOCUMENTAZIONE  
INVITA CLASSIFICHE GESTIONE

resentazione.  
oria del progetto  
me.funziona  
ocumentazione.  
arta e la Strategia del cibo  
tegie urbane  
re corte  
ole - mense scolastiche  
rumenti di Web 2.0



VANESSA MALANDRIN

Esci  
Posta in arrivo (1 nuovi)  
Avvisi  
Amici - Invita  
Impostazioni

NUOVI INVITI

1 invito di gruppo

EVENTI

Agosto 20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Stanza principale

## Pianodelcibo 웹 2.0 - 웹사이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먹거리 협력의 길”

<http://pianodelcibo.ning.com/>



## 함의

- 먹거리 계획은 사회적 혁신 혹은 사회적 학습의 과정이다.
- 배포된 지식의 적절성: 중개자의 역할
- 시장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 발휘가 불가능: 사회적 자본의 역할
- 웹 민주주의의 역할





# 감사합니다!

바네사 말란드린  
Vanessa Malandrin  
vmalandrin@agr.unipi.it





## 일본 아키타 현 자산지소 시스템

타니구치 요시미츠 (谷口吉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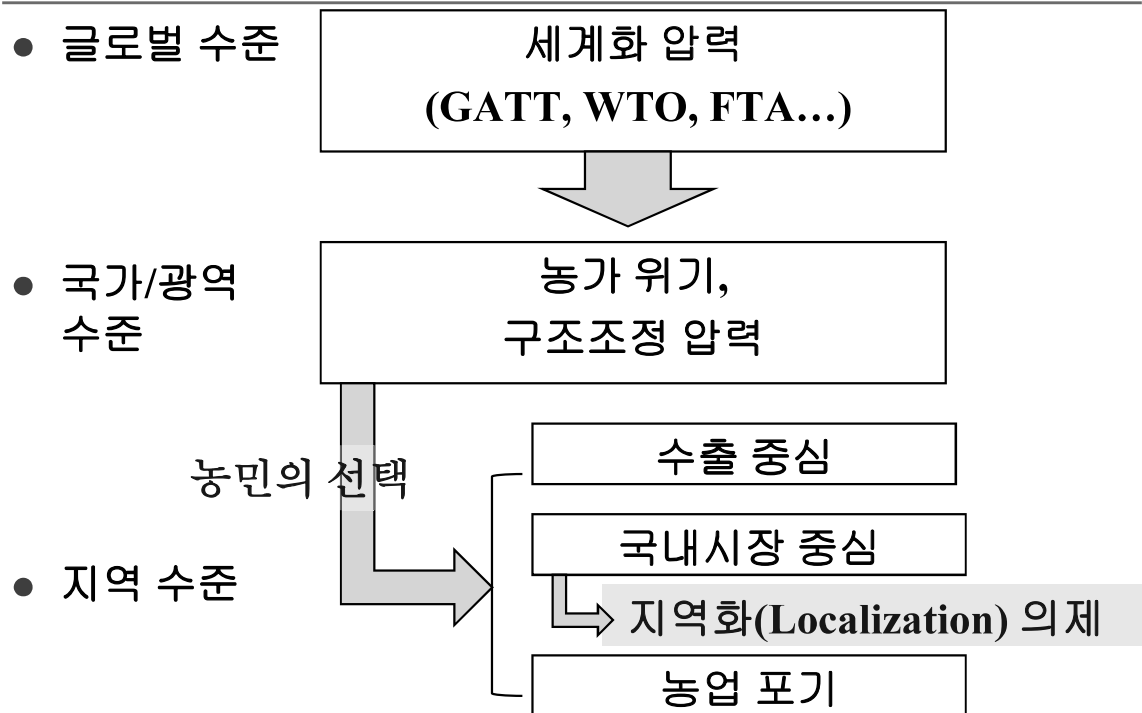
아키타 현립대학 교수  
아키타 자산지소 추진회 대표

### 지역 농식품체계(LAFS)란?

---

- 로컬푸드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농식품체계 (LAFS)가 무엇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함
- 흥미롭게도, 사회현상으로서 LAFS는 90년대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측되어 왔음: 북미와 EU의 CSA, 일본의 자산지소 등
- 이런 전세계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 세계화가 국가수준 및 지역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농식품체계(LAFS)란? (계속)

- LAFS는 세계화 압력에 대한 지역수준의 대응으로 이해 가능  
- 따라서 지역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시장 창출을 목표로 함
- 국내시장을 중심에 두기로 선택한 농민들은 보통 소농, 낙후지역 거주민, 가족 농장, 여성농민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농민들
- LAFS는 지역화(localization) 의제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함  
- 따라서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는 경쟁력이 낮은 농민들을 세계화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 로컬푸드 정책의 몇 가지 원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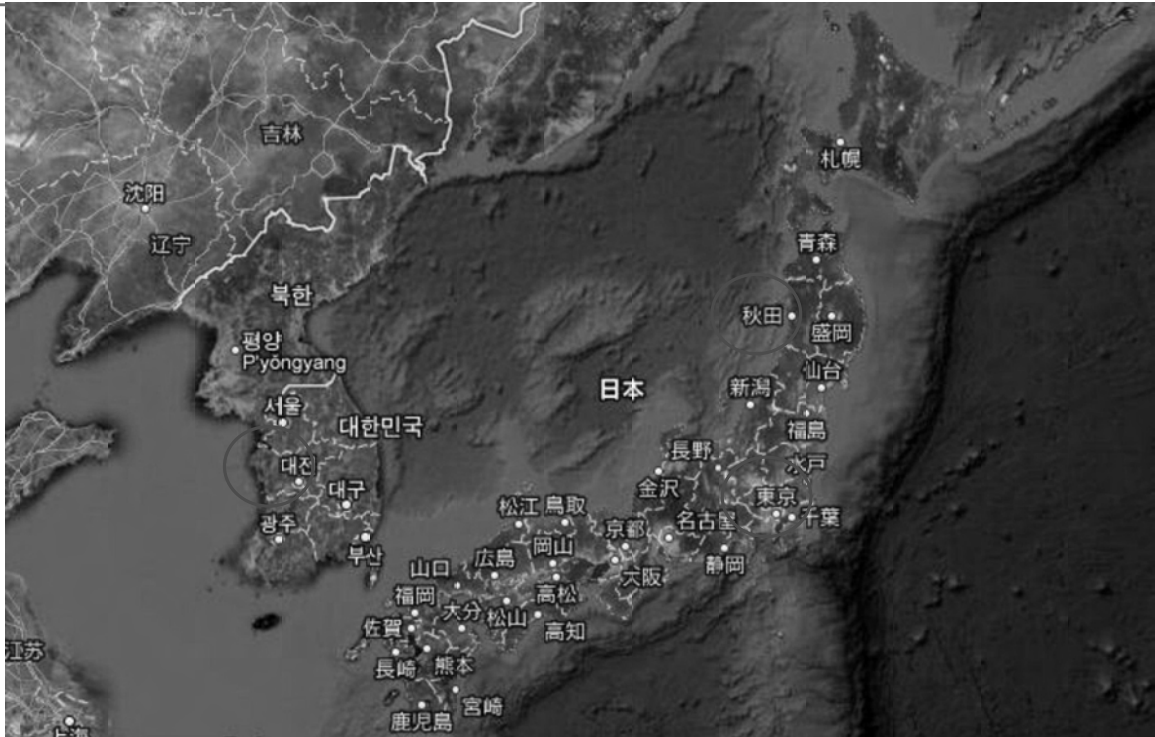
- 비록 LAFS 구축 사례들이 다양하고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정책결정자들은 이들이 지역화 의제의 일부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지역화 의제는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회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추진하는 지역 프로그램의 총체로 정의 가능함
- 지역화 의제의 최종 목표는 지역농업,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를 세계화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

## 몇 가지 원칙들 (계속)

---

- 시민사회(소비자, 납세자,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극히 중요함
  - 따라서 로컬푸드 정책은 LAFS의 비경제적인 가치(로컬푸드의 품질, 건강적 가치, 다기능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를 강조해야 함
- LAFS 증진에 있어 세 주체(농민, 시민사회,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정부의 역할은 지역화 의제의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아키타 현 위치



## 아키타 현 지역농식품체계(지산지소 체계) 개괄

- 농민장터
- 소매점 내 판매대(In-shop)
- 농-식교육 (“食育”)
- 녹색관광
- 여성 기업인
- 토종 채소
- 전통 음식
- CSA, 먹거리 생협, 비영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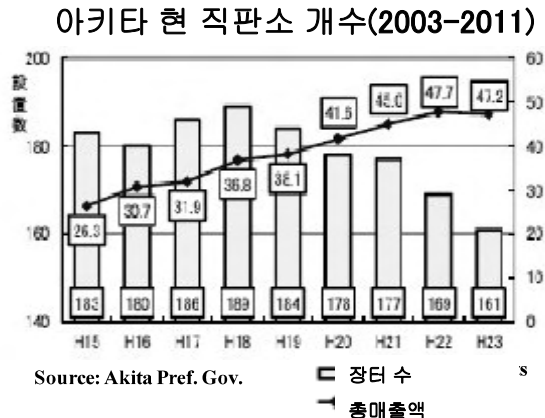
## 농민 직판소 (상설직판장, 장터)

- 2011년 아키타 현의 농민 직판소 수는 161개
  - 총매출액은 47억 엔(농업 총생산량의 약 4%)

- 최근에는 대규모 (매출액 1억 엔 이상)들이 증가하는 추세

- 개수는 조금씩 줄고 매출액은 계속 증가세

- 대규모 직판소들이 서로 교류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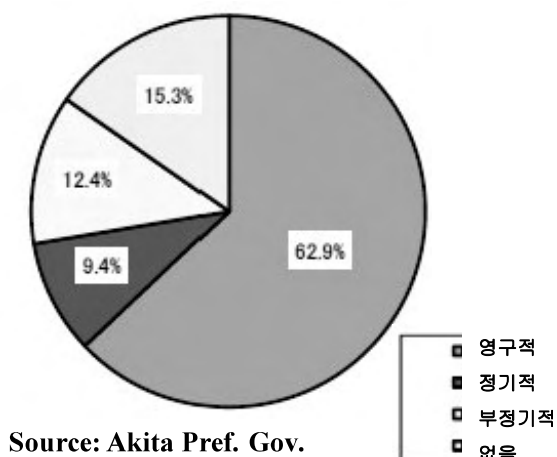
## 소매점 내 판매대 (In-shops)

- 80% 이상의 슈퍼마켓(전국체인 및 지역체인)이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in-shop 코너를 가지고 있음

- In-shop은 지역 채소 배분체계의 발전을 가속화

- 그 결과 신선한 지역산 채소를 구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음

<그림 2> In-shop 설치 방식



## 농-식교육(食育)

- 아키타 현 지산지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학교와의 제휴
  - 학교 급식에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
- 학교급식용 지역 채소 공급량의 증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음
  - 하지만 단순한 먹거리 조달보다는 아이들의 인간적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함



농민이 아이들에게 전통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 녹색 관광

- 많은 지산지소 참여 농민들이 녹색관광 관련 사업도 진행
  - 농가민박, 농가식당 / 농가카페, 농가가공 등
- 농민과 현 정부의 오랜 공동노력으로 인해, 아키타 현은 현재 녹색관광의 선두주자로 유명
  - 가이드북(“아키타 그린노트”) 출판이 좋은 사례





## 여성 기업인 지원

- 아키타 현 정부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성 기업인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유럽 농민들과의 국제교류, 농업비즈니스 관련 교육훈련 등
- 리더 육성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됨
  - 오랜 기간에 걸친 현 정부의 노력 덕분에 훌륭한 리더들이 활동하고 있음



## 민간NGO: “아키타 지산지소 추진회”

- 1996년 7월 20일 창립: “지산지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단체
- 임무:
  - “아키타 현에 지산지소 공동체를 창조한다. 지산지소 공동체는 사람들이 좋은 로컬푸드를 먹는 장소를 말한다. 우리는 좋은 로컬푸드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 지산지소 공동체는 서로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도록 돕는다. 농민과 소비자가 파트너가 되도록 돕는다. 생명, 환경,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는 것을 돕는다.”

## 아키타 현 유기농 축제 (Organic Festa in Akita)

- 2010년부터 아키타 시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온 지역 유기농 장터로 지역 소비자 수천 명이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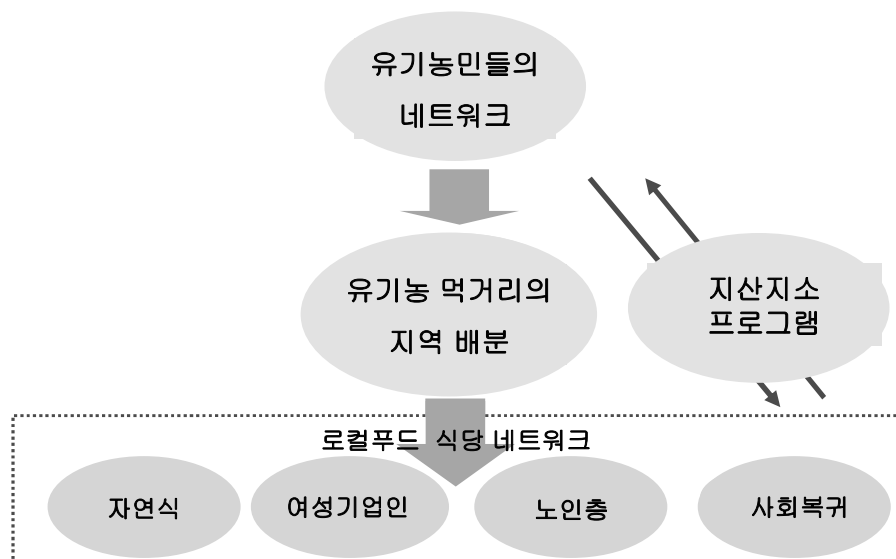
2010년 하루 동안 열린 축제에서 소비자 3천명이 참여



2011년 이틀 동안 열린 축제에서 소비자 4천명이 참여했다.

## 로컬푸드 식당 네트워크

- “로컬푸드 식당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토요타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 아키타 현 정부 웹사이트

아키타 현 정부가 만든 특별 웹사이트를 통해  
아키타 현의 다양한 지산지소 활동을 살펴볼 수 있음.



(<http://common.pref.akita.lg.jp/aktshoku>)

감사합니다!



# 한국의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 - 충청남도 사례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차례

1. 로컬푸드 개념
2. 로컬푸드 분류
3. 로컬푸드 정책수단
4.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5. 식품정책(food policy)의 재정의 필요성
6. 한국의 로컬푸드 상황
7. 충청남도 로컬푸드 정책
8. 충남지역 로컬푸드 실천사례
9. 충남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계획안
10. 향후 과제

# 1. 로컬푸드 개념

## • 다양한 개념 이해 및 정책 활용

- 일본: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 미국: 로컬푸드시스템(local & regional food system), 지역사회 먹거리보장 (community food security), 자신의 농민과 먹거리를 알자(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 영국: 로컬푸드
- 프랑스/이탈리아: 짧은 유통(short food chain)

## ⇒ 생산자-소비자 연결/신뢰/상호이해/소통, 직거래, 지역공동체성, 지역경제 제순환

- 전지구적인 식량위기의 시대에, 국가/지역의 식량통제력 확보 필요성
- 전지구적인 건강위기의 시대(비만, 당뇨, 결식)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개입 필요성
- 세계화로 인한 지역과 농업위기의 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촌활성화의 필요성

# 2. 로컬푸드 분류

로컬푸드 시장 영역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농민장터: 농민장터 신설 또는 기존시장 재활성화(재래시장, 5일장) 직판장: 도로변, 마을, 관광지, 도심 꾸러미(CSA) 분양사업(과실수, 장독대) 지역생협 농가식당(음식점, 빵집, 떡집, 카페, 정육점 등)
생산자-구매자 직거래 (준직거래)	외식: 음식점, 빵집, 떡집, 카페, 정육점 등 급식: 기업체/단체급식소 유통: 식재료 유통, 꾸러미 유통, 지역판매장(지역생협/구매클럽) 가공: 가공업체 원료공급 관광: 관광업체/관광지 연계판매 복지: 푸드뱅크, 푸드마켓, 무료급식소 공급
준공공적 영역	로컬푸드 허브(사회적 지역유통센터)
공공 영역	공공조달: 일상품목, 행사품목, 선물 등 공공급식: 학교급식, 시설급식, 기관급식 등

로컬푸드 비시장 영역	
자가생산-소비	농업인/비농업인의 비시장적 영농활동
요리활동	농촌/도시 커뮤니티의 조리 및 요리활동 (마을공동취사, 커뮤니티 키친 등)
먹거리 나눔	먹거리 나눔활동 (김장나눔 등)

### 3. 로컬푸드 정책수단

#### 1. 로컬푸드 시장 유형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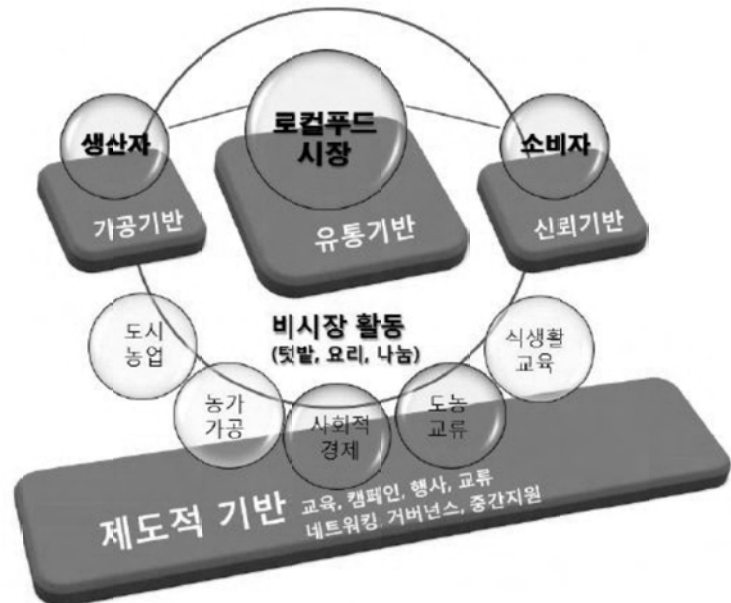
- 직거래 시장
- 지역협력판매 시장
- 공공조달 시장
- 비시장활동

#### 2. 생산자/소비자 기반 및 생산자/소비자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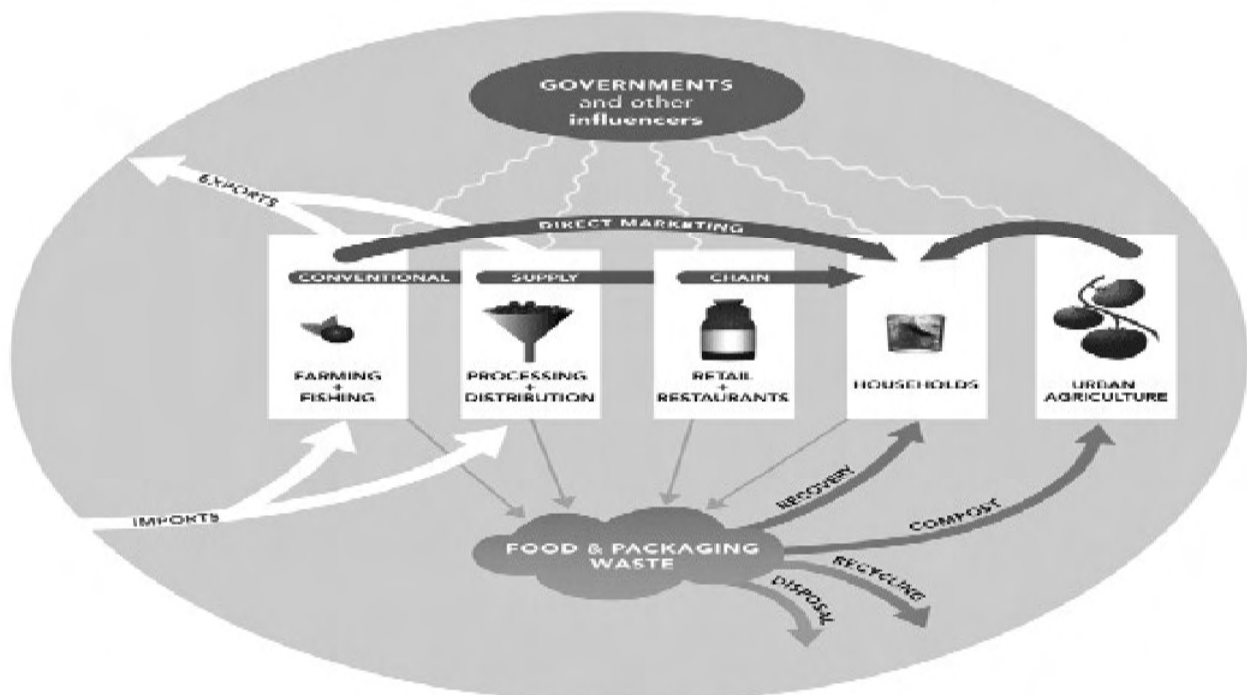
- 생산자/소비자의 조직화
- 농가가공 활성화
- 친환경농업/지역순환농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마을만들기 활성화
- 도농교류 활성화

#### 3. 제도적 기반의 조성

- 계획수립/제도정비
- 거버넌스/협약
- 네트워킹/정보교류
- 교육 및 인력양성
- 연구조사
- 캠페인/이벤트
- 자금 조성



### 4.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sustainable local & regional food system



밴쿠버 지역식품계획(2011)

## 5. 식품정책(food policy)의 재정의 필요성

- 식품정책은 “식품산업”정책과는 달라야 한다
  - + 식량수급정책
  - + 식품산업정책
  - + 영양정책
  - + 농업정책
  - + 식품안전정책    => 식품정책(food policy)
- 프랑스 농식품부의 국가식품프로그램(PNA, 2010)
- 호주 농림부의 국가식품계획(초안, 2012)

## 6. 한국의 로컬푸드 상황

- 중앙정부: - 종합적인 로컬푸드 정책은 아직 없음(미국, 일본, 프랑스 중앙정부 사례 대비): 농가직판에 대한 정책체계가 아직 없음
  - 사회적기업(2005)/마을기업(2010) 지원정책으로 로컬푸드 사업체 확산 기여
- 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도농복합시, 농촌군)의 로컬푸드 육성조례 제정(2009~), 광역지자체의 정책 준비(충남/전북/충북/경남 2011~)
- 민간 주체: 꾸러미사업 중심으로 로컬푸드사업체 증가세, 농민장터/직판장이 조금씩 증가, 가공/조리사업체도 늘어나는 추세
- 학교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의 광역지자체 확대 실시(2010~) 이후 급식 식재료 통제/공급기능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중임(광역/기초)



## 7. 충청남도 로컬푸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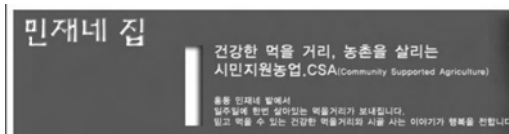
- **위원회:** 지역순환식품체계사업단(민관거버넌스 기구, 2012~)
- **중간지원조직:**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충남발전연구원, 2011.6~)
- **세부 정책**
  - 학교급식: 시군별/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의 실현
  - 로컬푸드 직판: 농민장터 지원사업, 도농교류 지원사업
  - 식생활교육: 학교텃밭(학교식생활교육장) 지원사업
  - 중장기 계획수립준비: 충남지역순환식품체계 기본계획

## 8. 충남지역 로컬푸드 실천사례 농민장터(farmers'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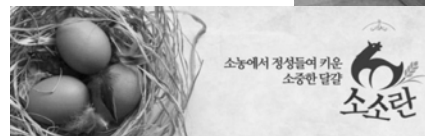


(상-좌)(중-좌) 대홍슬로시티장터(예산군 대홍면, 2011~)  
 (상-중) 마서동네장터(서천군 마서면, 2009~)  
 (상-우) 천안 목요장터(도심 아파트단지 이동, 2000년대 초반)  
 (중-중) 꽃밭피 빨간장(홍성군 구항면, 2012~)  
 (중-우) 청양 칠갑산장터(장곡사 입구, 2012~)  
 (하-우) 아산 목요농민장터(아산시 탕정면, 2012~)

## 8. 충남지역 로컬푸드 실천사례 꾸러미사업(CSA/box scheme) 및 기타 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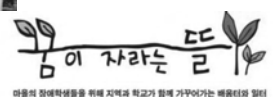


- (위-좌, 위-중) 공주 공생공소 (마을기업. 2011~)
- (위-우) 청양YMCA (마을기업. 2012~)
- (중) 홍성군 홍동면 개인농가 CSA (충남내 6농가 개별 사업. 2000년대 후반~)
- (하-우) 소농이 키운 자연방사 유정란 자판기 직판(천안/아산. 2012~)



## 8. 충남지역 로컬푸드 실천사례 학교급식/식교육 관련

- (상-중)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 (2011~)
- (상/중-우) 충남 친환경 급식Day (2012.7.11)
- (하-좌) 학교 텃논: 농생태원예조합 가꿈(홍성군 홍동면, 2010~)
- (하-중/우) 치유타밭(green care farm): 꿈이자라는뜰(홍성군 홍동면, 2010~)



## 9. 충남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계획안 (가칭. 충남푸드 2020)

- 1) 농업, 농민, 농촌 활성화                      2) 도민 건강 증진
- 3) 도민 먹거리에 대한 통제력 확보            4) 지속가능한 충남 자연환경 유지/보전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충남의 먹거리 증진

### 1. 로컬푸드의 활성화

- 농가직판의 활성화
-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의 활성화
- 먹거리공동체의 활성화

### 2.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단계의 환경부하 감소

- 친환경 유기농업 증진
- 농업환경자원기반 유지 관리
- 식품 탄소발자국 줄이기
- 음식폐기물 자원화

### 3. 도민의 식품접근성 증진과 건강 증진

- 영양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증진
- 농촌마을공동급식 활성화

### 4. 도민의 이해 및 의사소통 증진

- 학교 식생활교육의 체계적 활성화
- 도민 대상 충남농식품 마케팅 및 홍보활동 강화
- 식품관련 주체들 간 의사소통의 증진
- 로컬푸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 온라인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 기반 구축

### 5. 충남의 맛 극대화

- 음식관광 활성화
- 농어업 6차산업화 활성화
- 관광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 10.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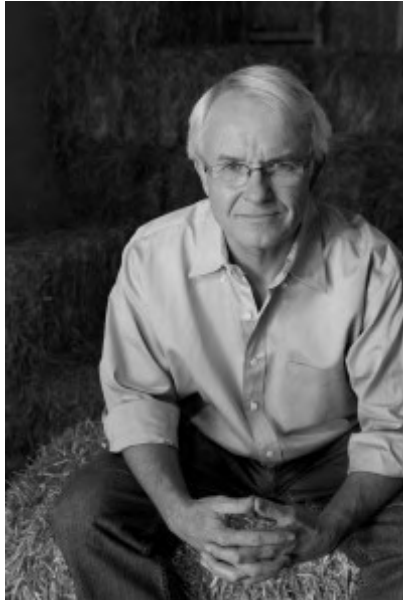
=> 소통 ! 소통 ! 소통 !

- 보건의료계와의 상호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필요성
- 농업정책을 넘어서는 틀짜기: 타 분야와의 협력과 소통
- 도민들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
- 중앙정부의 밑틀 짜기: 전향적 지원정책수립



## 외국발표자 약력

미국: 마크 윈 (Mark Winne) <http://www.markwin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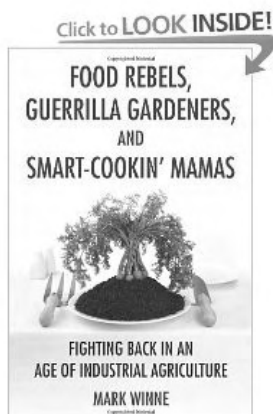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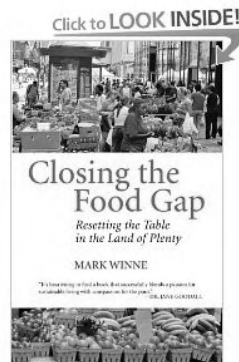


### ○ 현재 Santa Fe Food Policy Council 활동

- Community Food Security Coalition 활동가
- 1979~2003 25년 동안 (코네티컷 주)하트포드 푸드시스템 대표
- 하트포드 시 먹거리정책위원회(City of Hartford Food Policy Commission), 코네티컷 먹거리정책협의회(Connecticut Food Policy Council), 기아 종식 코네티컷!(End Hunger Connecticut!), 전미지역사회먹거리보장연대(Community Food Security Coalition) 창립 멤버

### ○ 저서

<Closing the Food Gap: Resetting the Table in the Land of Plenty>(Beacon Press, 2008)



<Food Rebels, Guerilla Gardeners, and Smart Cookin' Mamas: Fighting back in an Age of Industrial Agriculture> (Beacon Press, 2010)

## 이탈리아(공동): 지안루카 브루노리 (Gianluca Brunori)



-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농학 및 농업생태계관리학과 교수  
(Department of Agronomy and  
Management agroecosystem)
- 유럽 농촌사회학회 부회장

### 연구주제

- 소농의 개별적, 집단적 전략에 관한 이론 및 경험연구
-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소농과 농촌개발정책 연구

### 수행 연구과제

- Marie Curie mobility of Early Stage Researchers on 'Socio-economic and socio-spatial dynamics of the (peri-) urban and regional Foodscapes' (PUREFOOD) - 2010-2013
- "Strengthening Innovation Process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IN-SIGHT) - European commission - 2006-2008
- "Improving Collective Performance Towards Sustainability of Food Supply Chains" European Commission - 2003-2006
- "Capitalisation of research results on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European Commission , 2002-2004
- "Transforming rural communication (TRUC)" European commission 2000-2003 (as scientific coordinator)
- The socio-economic impact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realities and potentials (IMPACT). European Commission. 1998 - 2001
- Impact of coexistence with GMOs at regional level. 2004-2005. ARSIA - Tuscany Region
- TEACHING Co-ordinator of the II level university degree in Management of Agro-forestry environment, University of Pisa Food Marketing, Rural Development, Science Communication
- Co-ordinator of the Summer School on Rural Development, module of the Erasmus Mundus International Master of Rural Development

### 대외활동

- 2006~ President of the Scientific Committee of ARSIA (토스카나 주 농업혁신청)
- 2008~: Chief Editor,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 이탈리아(공동): 바네사 말란드린 (Vanessa Malandrin)

### ○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강사 및 연구원

(Department of Agronomy and Management agroecosystem) (2005~현재)

### ○ 이탈리아 국립농업경제연구원(INEA) 연구원(2011)

### 발표 논문

- G. Brunori, V. Malandrin, A. Rossi, 2011. "Trade-off or convergence? The role of food security in the evolution of food discourse in Italy". Journal of Rural Studies Special Issue: Food Security, emerging perspectives and responses'.
- A. Rossi, F. Guidi, V. Malandrin, V. Niccolai, 2010, Implications of farms' relationship with Solidarity Purchase Groups (GAS) on logistic activities, and the subsequent emerging organizational needs) - Publication by the Regional Agency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Agriculture of Tuscany(ARSIA).
- G. Brunori, A. Rossi, V. Malandrin, 2009 - "Co-producing transition: Innovation processes in farms adhering to Solidarity Purchase Groups (SGPs) in Tuscany, Italy" - Int. Jnl. of Soc. of Agr. & Food, Vol. 18, No. 1, pp. 28-53. <http://www.ijisaf.org/archive/18/1/brunori.pdf>
- G. Brunori, V. Malandrin, 2008 - "Scenari per l'acquacoltura toscana" (Tuscan aquaculture perspectives) – Arsia, Acquacoltura in Toscana, studi e analisi di settore.
- V. Malandrin, D. Rizzo, 2003 - "Soil and water management on Monte Pisano, Pisa". Socrates Programme publication.

## 일본: 타니구치 요시미츠 (谷口吉光)

<http://www.akita-pu.ac.jp/stic/souran/study/detail.php?id=219>



○ 아키타 현립대학 생물환경과학과 교수  
(농촌사회학 전공)

○ 아키타현 <지산지소 추진회> 대표  
(민간네트워크조직)

### 분야

환경사회학, 농업과 먹거리의 사회학

### 최근 연구 주제

대량생산 대량소비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과 전환 논리를 연구하고, 전환을 구체화하는 실천을 추진하는 것을 연구실천테마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유기농업의 지역적 전개와 신규 취농자 연구, 농가 가공을 통한 활성화 연구, 지산지소를 통한 지역 먹거리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NPO 등 사회 부문의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등

### 사회 활동

- 아키타현 지산지소 추진회 대표
- 팔 시스템 생산자 소비자 협의회 고문
- 팔 시스템 새로운 농업 추진위원회 자문
- 아키타현 유기농업 추진협의회 자문
- 동북 유기농업 추진협의회 자문
- 아키타현 농업시험장 운영협의회 위원 2007.4.1 ~
- 아키타현 종합식품연구소 운영협의회 위원 2007.4.1 ~
- 아키타현 유기농업 추진계획 수립회의 위원 2009.3.12 ~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로컬푸드 정책사업 3년의 성과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KYF2)

<http://www.usda.gov/wps/portal/usda/knownyourfarmer?navid=KNOWYOURFARMER>

(번역: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목차

1. 환영사 - 톰 빌색 농무장관, 캐슬린 메리건 농무부 차관
2. 서론 - 로컬푸드의 정의와 로컬푸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3. 농무부의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 - 내용과 업무
4. 로컬푸드 인프라
5. 책임성과 로컬푸드
6. 지역산 육류 및 가금류
7.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
8. 건강에 유익한 먹거리 섭취
9. 농업 관련 직업
10. 로컬푸드 관련 지식
11. 로컬푸드: 농무부 외에도 많은 정부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
12. 결론

#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 성과

지난 4년 사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농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 없던 분들이 자신이 먹는 먹거리의 출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꾸준히 먹지 않았던 분들이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공동체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농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혁신적인 로컬푸드 사업이 속속 출범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로컬푸드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합시다. 그러면 그 혜택은 미국 전역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 서론

### 로컬푸드의 정의와 로컬푸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요점

- 농무부 경제조사국(Economic Research Service)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농장 소득 100만달러 당 농장관리 일자리 13개가 새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그램(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주 및 영토는 55곳 중 54곳에 달했다.

미국의 시골 마을과 도시 중심가에서, 외떨어진 농가 들판이나 도시 변두리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다. 생산한 먹거리를 미국과 해외에 판매해온 농민과 축산농민은 생산한 먹거리를 집에서 더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일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판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 소규모 또는 중규모 농장,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구매해줄 사람을 지역공동체에서 찾고 있다. 농장에는 발 한 번 들여 본 적 없던 도시민들은 자기들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거래하게 되면서 그 참 가치를 깨닫고 있다. 기업들도 지난 일십년 사이 꾸준히 성장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을 늘리며 경제발전을 이룰 기회로 삼고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지리적 장벽과 인구 구성의 장벽을 넘어 주류로 진입했다. 2011년 전미식품점협회(National Grocers Association)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의 생산자가 생산한 먹거리를 취급하는 식품점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거래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조사 대상의 85%를 넘었다.<sup>1)</sup> 한편 1천500명의 요리사를 대상으로 그 해 식음료 산업의 경향을 조사한 결과 로컬푸드가 1위를 차지했다.<sup>2)</sup> 미국 전역에서 2천여 곳이 넘는 학교가 지역 농민, 지역 축산농민, 지역 식음료 업체에서 식재료를 납품받는 “농장-학교 직거래(Farm to

School)”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고<sup>3)</sup> 미국 도시와 시골 마을 중 농민장터를 운영하는 곳이 7천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는 많은 의문을 낳았다. 도대체 “로컬”이란 무엇을 말하나? 미국의 전체 농업 매출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는데, 로컬푸드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컬푸드로 인해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로컬푸드가 이토록 떠들썩하게 선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2008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농민과 축산농민이 “생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농장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 그들이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자 사회에 중요한 일인 농업을 유지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로컬푸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sup>5)</sup> 2010년 톰 빌색 농무장관은 로컬푸드와 관련해 농무부가 추진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 계획의 한 축은 개발이었고 다른 한 축은 로컬푸드 시스템 지원이었다. 톰 빌색 농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로컬푸드 시스템이 농촌 지역공동체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를 번영하게 만들 것입니다. 농무부는 2008년 [의회가] 농업법(Farm Bill)에 다져놓은 기초를 토대로 로컬푸드와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 로컬푸드 시스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sup>6)</sup>

미국인인 우리는 지역공동체에 투자해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거두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에 쓰는 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수단이다. 자료, 문헌, 이 책자에 등장하는 현장의 소리들을 보면 로컬푸드 시스템이 농업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농촌 지역공동체에서 기업을 운영할 기회를 늘려주며 먹거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보충 요소다. 각 시스템이 지닌 저마다의 고유한 장점을 취한다면 미국 농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농무부가 제공하는 자원 및 로컬푸드 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력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지침서다. 이 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돕고, 자기가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올리며, 미국 농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전국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무부가 최근 수행해온 사업을 설명한다. 다음 장에서 소개될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KYF)은 2009년 도입된 이래 관리 및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책은 미 농무부가 진행해온 로컬푸드 시스템 관련 사업을 주제별로 7가지 분야로 구분해 설명한다. 각 장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자원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농무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농무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중 굵직한 사업들을 주제별, 프로그램별, 수혜자별로 구분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 지도에 표시했다.

이 책과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에 소개되는 자원은 지역의 생산자와 지역의 관련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농무부의 자원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농무부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 중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27가지 프로그램을 선정해 이 책과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그러나 27가지 프로그램에 들지 못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농무부 농촌개발국이 진행하는 미국 농촌에너지 프로그램(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은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 판매하는 농민을 비롯한 농민들이 영농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미국 농촌에너지 프로그램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책에도 소개되지 않지만, 지역 농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에 표시된 금액은 로컬푸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농무부가 지출하는 지원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농장서비스청이 시행하는 농장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생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행사 지원금의 경우 위 지도에는 몇몇 주에서 이뤄진 일부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집계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즉, 농장서비스청의 도움을 받은 지역 생산자 수가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많다. 지도에 표시된 금액은 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지원금 총액 중 일부라는 점을 유념하자.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와 이 책자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 자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조정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책에 소개된 노력 대부분은 기관 간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었기에 이뤄질 수 있었던 일이었다. 가령, 미 농부무 산하 식품및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농업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농촌개발국 같은 기구 간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했다면 2010년과 2011년 사이 지원을 받은 농민장터 숫자가 50%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기관은 효과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 2010년 200만 명이 넘는 여성, 영유아, 아동과 100만 명에 가까운 고령자가 농민장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섭취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책과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는 자원이 제한적이라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령 2010년과 2011년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은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을 통해 미국 전역의 농장에 4,200개가 넘는 온실 모양의 비닐하우스(High tunnel)를 건립하도록 1,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1,300만 달러라는 액수는 2012년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이 14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극히 적은 액수임에도 많은 농민들이 이 지원금을 이용해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런 투자는 농무부가 더 우선시하는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비닐하우스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재배기간을 늘려주는 동시에 토양의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해충을 예방함으로써 환경 보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도 충족시킨다. 농무부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강조함으로써 로컬푸드 시스템을 촉진함과 동시에 더 너른 목표 달성에 한 발 더 가까이 감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보았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 웹사이트에 수록된 정보는 일자리 창출, 사업체 운영 기회 증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과 프로젝트가 추가됨에 따라 월 단위로 갱신된다.

## 로컬푸드 시스템이란?

**로컬푸드를 정의해보자.** 그렇다면 로컬푸드란 무엇인가? 보통 로컬푸드라 하면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와 관련된 활동 전부가 특정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러나 로컬푸드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내포한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자기가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먹거리에 대해 더 친숙함을 느끼게 만든다. 자기가 먹는 먹거리의 출처를 알게 된 소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역”을 정의하는 데는 지리적 변수, 사회적 변수, 정부 변수, 물리적 변수, 경제적 변수, 기타 여러 변수가 관련된다. 어느 지역공동체가 로컬푸드 시스템을 공동으로 계획해 구축하려고 한다면 정책을 수립하거나 홍보 행사를 벌이기에 앞서 “로컬”의 정의부터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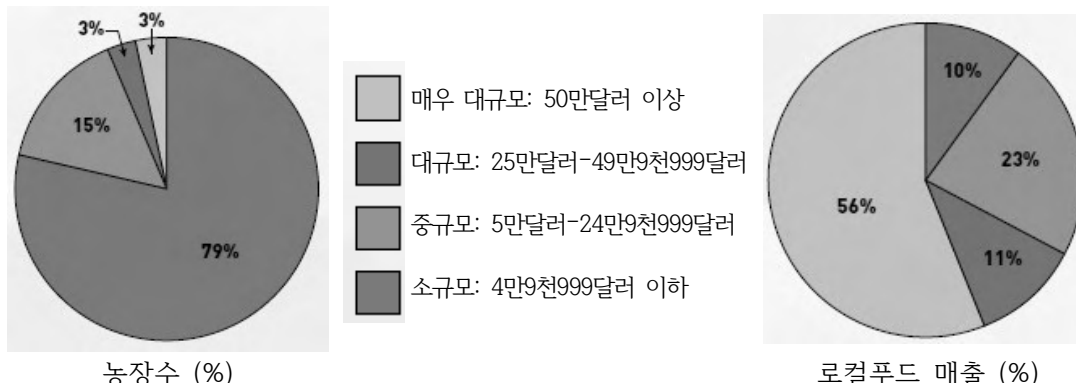
이 책에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한 미국 지역공동체의 사례가 담겨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 “로컬”의 정의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어디에서 농무부의 지원을 받은 로컬푸드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는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먹거리 생산자나 지역 시장에 관련된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투명성을 강조하고 생산자-소비자의 관계를 강조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농민과 축산농민은 지역이나 운영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브랜드화해 포장에 반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또는 인증을 받아 마크를 붙임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얻게 되며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업가는 생산자가 재배하거나 길러 가공한 농축산물에 생산자의 특징을 연계시킬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을 읽는 여러분 역시 먹고 있는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공급망에는 여러 주체들이 관여한다.** “로컬푸드”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판매 수단인) 농민장터나 도로변 직판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로컬푸드 시스템에는 그 외에도 많은 주체들이 결부되어 있다. 가령 버지니아 주 샤로테스빌(Charlottesville)의 경우 로컬푸드허브(Local Food Hub)가 100마일 반경 안에 있는 50여개 농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구매한다. 로컬푸드허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고에서 생산물을 분류하고 저장한 뒤 시장에 내다 팔거나 지역의 학교, 병원, 식료품점, 식당에 공급하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농무부 구내식당에도 먹거리를 공급한다. 지역의 여러 회사가 먹거리 저장, 가공, 운송을 각각 맡아 처리하는 로컬푸드 시스템도 있을 수 있다.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관련된 과정이 지역 안에서 이뤄지고 공급망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된다면 로컬푸드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농장, 목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다.** 로컬푸드와 관련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농민이나 축산농민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목장이 소규모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로컬푸드 시장이 소규모 생산자나 먹거리 품질을 특화시켜 차별화하려는 생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농무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농장 모두가 로컬푸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지역 유통업자, 지역 소매상, 지역 식당에 공급되는 먹거리들은 대규모 농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역시 농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농장의 매출 규모 별 로컬푸드 관련 농장 및 로컬푸드 매출액 통계, 2008년-2009년 평균



출처: USDA, ERS/NASS, 2008 & 2009 Agri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Survey (ARMS)

로컬푸드 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공급한다. 마지막 오해는 로컬푸드 시장에서는 오로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만이 거래된다는 생각이다. 워싱턴 주와 오리건 주의 농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밀에 셰퍼즈 그레인(Shepherd's Grain)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농민에게 물어보라.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농민 조합원 대부분은 수출용으로 밀을 생산한다. 그러나 재배하는 작물의 15%에서 30%는 품질이 우수한 경질 적색 춘소맥(hard red spring wheat)을 재배해 로컬푸드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농민들은 수출할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지역의 제빵업체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또한 이 협동조합은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의 지원을 받아 농민 조합원에게 무경운 농업을 교육해 토양을 보호하고 연료 사용을 줄였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로컬푸드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으니 로컬푸드가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자.

## 로컬푸드: 다양한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온 로컬푸드는 한 순간 휩쓸고 지나가버리는 유행과는 다르다.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어하고 우리 식탁에 먹거리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으로 인해 로컬푸드 생산자들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잡기 쉬워졌고, 로컬푸드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먹거리 체계에 관련된 모든 구매자들이 로컬푸드를 구매하려고 하고, 미국 전역에서 농민과 소비자들이 소통하는 장이 열리게 되었다.

2009년 농무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물결에 부응하기 위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 사업에는 농무부 17개국과 산하 청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되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로컬푸드에 관련된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만을 위해 따로 배정된 예산이나 전일제 전담 직원은 없다. 농무부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먹는 먹거리의 출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고 로컬푸드 생산자들과 로컬푸드 기업이 미국의 농촌 지역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마도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높은지, 미국 의회와 농무부가 비교적 소규모에 불

과한 로컬푸드 시장에 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지 궁금할 것이다.

**소비자는 자기가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한다.** 농민장터, 가판, 기타 직접 판매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식당, 그 외 여러 “간접” 판매망(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대형 슈퍼마켓 포함)을 통해서도 로컬푸드를 구입하려 한다. 2008년 로컬푸드 시장 매출액은 5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11년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주 및 직할령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기금을 요청했다. 각 주는 주민들이 요청으로 연방 기금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체 먹거리 시장에서 로컬푸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작더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먹거리를 비롯해 자기 삶에 관련된 여러 측면을 직접 통제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며 관여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먹거리의 출처와 농장에서 출발한 먹거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의 손을 거쳐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따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컬푸드 시스템은 농업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소비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령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농민은 학교에 먹거리를 공급할 뿐 아니라 먹거리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교에서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샐러드 바에 오르는 상추를 재배한 농민의 이름을 아는 초·중·고학생은 학교 식당에서 먹거리를 고를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먹거리를 재배하는 수고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에서 농업이 이뤄지던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이런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900년대 초에는 미국인의 40%가 농장에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수가 1%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는 농민을 직접 만나보거나 가게에 들러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글을 읽게 되면서 농업에 대해 처음 접한 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로컬푸드 경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농업에 연계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로컬푸드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새로운 소비자 수요가 나타나면 농민에게는 판매 기회가 되고,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며, 농장 관리·생산·가공·유통에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된다. 2011년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총 6만1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로컬푸드 생산자의 소득 1백만 달러 당 전일제 관리직 일자리 13개가 창출된 셈이다. 전일제가 아닌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지역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하지 않는 농장은 소득 1백만 달러 당 고작 3개의 관리직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농장 규모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장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농장에서 직접 농산물을 가공해 포장한다. 따라서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길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로컬푸드는 먹거리 생산에 관련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뿐 아니라 설비제조업, 먹거리 가공업, 냉장시설, 푸드허브, 운송망, 소매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이끈다. 따라서 로컬푸드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생산자와 먹거리 관련 기업 뿐 아니라 토지



이용에 관련된 사람들, 경제개발, 먹거리정책 위원회, 로컬푸드 지지단체, 지역 학교,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다양한 먹거리를 재배해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중규모 농장이 사라지고 있는 미국 농촌경제에는 로컬푸드 시장의 성장이 정말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1992에서 2007년 사이 미국에서는 중규모 농장 10만 곳이 사라졌다(21% 하락). 이런 변화는 농촌의 지형을 변화시켰고 농장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었다. 기관, 지역 공급업자, 지역 식료품상의 수요가 살아나면 중규모 농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농촌경제가 부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농무부는 농업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부흥시킨다는 폭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컬푸드 시장을 지원한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 새로운 농부가 나타난다.** 미국 농업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농업 인구의 노령화다. 35세 미만의 농장 운영자를 둔 농장에 비해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농장 운영자를 둔 농장이 6배 많다. 톰 빌색 농무장관은 현재의 먹거리 수요와 미래의 먹거리 수요를 감안해 2012년까지 농민과 축산농민 10만명을 새로 육성할 것을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에 제안했다. 신규 농민 대부분은 자금 압박 때문에 소규모 농장으로 시작하고 로컬푸드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한다. 소규모 농장 운영에 만족하는 농민도 있지만 미국 전역으로, 나아가 전 세계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하려는 야심을 품은 농민도 있다.

**로컬푸드 시장은 영세 농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푸드 수요 증가는 자본 부족으로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민족, 여성, 아메리카 원주민 등의) 영세 농민과 농업기업에게 영농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기회가 된다. 그 외에도 로컬푸드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 많다.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 지역은 로컬푸드 자원을 활용해 오랜 시간 자립 경제를 유지해왔다. 이민자나 난민은 농업을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했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문화적 유대를 강화해왔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농촌경제를 강화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로컬푸드 생산 및 판매, 로컬푸드가 창출한 일자리를 통해 창출된 소득은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무부 경제조사국이 2010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생산자들은 봄체소믹스샐러드, 블루베리, 우유, 소고기, 사과를 지역에 판매하는 동시에 지역 밖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류 유통망을 통해 먹거리를 판매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연구 결과 주류 유통망과 거래할 때의 소득보다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할 때의 소득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사과의 경우 50%, 믹스샐러드의 경우 649%였다. 연구 결과 “5개 사례 모두에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벌어들인 임금 소득 및 농장 소득 거의 대부분이 지역경제 안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연구들은 농무부 경제조사국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최근 조지아 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조지아 주 주민들이 매주 10달러를 들여 조지아 주 생산자들에게서 육류와 우유를 구입한 결과 조지아 주가 올린 소득이 200만 달러에 달했다. 2010년 오하이오주 북동부지역 16개 카운티에 대한 연구는 로컬푸드가 오하이오 주 주민들의 먹거리 수요 25%를 충당했다고 기록했다. 이로써 2만7천6백64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실업자 8명 중 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연간 판매액은 42억 달러에 달했다.

## 사례 1

### 아이오와 주 로컬푸드 시스템은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

#### 요약

- 아이오와 주 북서부 지역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출액은 2006년 1만 달러에 못 미쳤지만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10년에는 200만 달러를 상회했다.

**1** 농업이 우세한 아이오와 주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농업의 우세를 더 강화할 수 있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이오와 주 북서부 지역에서는 2007년 처음으로 지역 농민, 농업기업, 지역공동체 개발전문가, 소비자 등이 모여 건강에 더 유익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한 끝에 아이오와 북서부 식품과 건강 사업(Northeast Iowa Food and Fitness Initiative)을 구축했다. 이 단체는 곧 6개 카운티, 생산자 회원 100여명 이상, 그 외 관련 회원 5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단체의 노력 덕분에 2006년 1만 달러에 못 미치던 아이오와 주 북서부 지역의 로컬푸드 매출액은 2010년 200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농장에서 영농, 생산물 가공, 판매 관리, 기타 여러 일을 처리할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 일자리 26개가 새로 생겨났다. 2010년에는 농장 21곳에서 지역 학교에 먹거리를 공급하게 되었고 11곳의 농장이 로컬푸드 시장에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2011년 농무부 농촌개발국이 운영하는 농촌경영체보조금프로그램(Rural Business Enterprise Grant program)을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일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

**2** 아이오와 주 농업 및 토지 책임성부(Iow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Land Stewardship)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아이오와 주 전역에서 운영 중인 농민장터는 228곳으로 2년 전 대비 40% 상승했다. 아이오와 주 소비자 9만9천명과 생산자 1천500명이 농민장터를 이용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 농민장터에서 거래된 로컬푸드 직·간접 판매 매출액은 5천940만 달러에 달했고, 농민 소득은 1천220만 달러 증가했으며, 직접 창출된 일자리는 374개, 간접 창출된 일자리는 200개였다.

**3** 아이오와 주의 로컬푸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한다. 아이오와 주 남서부 식품과 농장 사업(Southwest Iowa Food and Farm Initiative) 소속 로컬푸드 코디네이터 바히아 나이텐게일은 이렇게 말한다. “사실 농민장터를 개설하려 하는데 개설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지역공동체가 너무 많습니다. 로컬푸드를 공급받으려는 학교, 식당, 기관도 너무 많은데 로컬푸드 공급이 그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이 최근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 남서부 지역 카운티 10곳에서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67만 달러의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45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빌 메너(Bill Menner) 농촌개발국 아이오와 주 담당관은 이렇게 말한다. “농무부 농촌개발국은 아이오와 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재배된 먹거리를 공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죠, 한편 지역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농장과 미개발지 보전에 기여한다. 도시의 확장으로 미국 최고의 농장들이 사라졌다. 이제는 약 40%에 달하는 생산자들이 “도시” 카운티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형편이다. 도시 시장과 가까울수록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사업 계획 프로그램,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농장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자를 지역 시장에 연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 시장과의 강력한 유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농장의 경제성을 높이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먹거리 섭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대부분 아동이나 노인인) 미국인 5천만 명이 먹거리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약 2천500만 명이 슈퍼마켓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령층이나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로서는 식료품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농촌 지역공동체의 경우 가장 가까운 시장이라도 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농민장터, 이동식 식료품점, 그 외 비전통적 소매점을 통해 로컬푸드를 판매한다면 전통적인 유통망을 통해 먹거리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병원 근로자, 환자의 경우 농장-기관 직거래 사업 (farm-to-institution initiatives)을 통해 건강에 유익한 먹거리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먹거리와 먹거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

미국 내 먹거리 시스템과 국제 먹거리 시스템을 보충한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 농업의 강점도 바로 다양성 (다양한 농산물, 다양한 공급망, 다양한 시장)에 있다. 지역 시스템, 전국적 시스템, 국제적 시스템은 각각의 장점을 지니며 서로 다른 조건에서 번창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이 어떤 조건에서도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판매 방식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컬푸드 생산에 기회가 될 만한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농무부는 미국 농민과 축산농민이 로컬푸드 시장이라는 농처서는 안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출범시켰다.

## 농무부가 추진하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

### 사업 내용과 업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농민, 축산농민, 먹거리 관련 기업이 활동하는 나라다. 그들 대부분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먹거리를 공급할 기회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농민들의 관심사에 부응하기 위해 미 의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로컬푸드망에 관련된 생산자와 먹거리 관련 기업을 돕도록 농무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농무부는 2009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출범시켰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촉진, 건강에 좋

은 먹거리 섭취 기회 극대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사실 이 사업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업만을 전담하는 전일제 근무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이 프로그램만을 위해 배정된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농무부가 지니고 있던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무부 17개 부서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적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다. 이 사업은 기존에 농무부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농무부 여러 부서들에서 적어도 한 명의 직원을 대표로 보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는 TF 팀을 꾸려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며 프로그램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을 규명한다. 공직자가 아닌 정치계 인사도 TF에 참여할 수 있지만 TF 팀 구성원 대부분은 농무부 공직자로 구성되며 신입 직원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다양한 직급이 참여한다. 지난 3년간 TF 팀을 거쳐 간 공직자는 다양했지만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TF 팀은 다양한 관점을 한 데 모으는 공간이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단이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로컬푸드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건강에 유익한 먹거리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필요도 충족시켜 줍니다.”

—케빈 콘캐넌(Kevin Concannon), 농무부 식품영양소비자국장

**자원 공유.** TF 팀은 로컬푸드 생산자와 먹거리 관련 기업을 돕기 위해 농무부의 여러 국들이 각각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한 데 모은다. 적어도 서로 다른 9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7개 프로그램이 목록에 올랐다. 이런 자원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는 자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 농부 지원 로컬푸드 프로젝트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미국 전역에서 이뤄지는 지원 사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수단이다.

**협력, 효율성, 책임성 증진.** TF 팀 구성원은 여러 국들이 결부되는 쟁점이 등장할 경우 소위원회 구성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할 책임도 진다. 가령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자료 소위원회는 6개 국과 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자료 소위원회를 통해 각각의 국들이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 자료 소위원회에 파견 나온 직원들은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과 푸드허브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2012년 농업총조사에 지역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했다. 이 외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푸드 관련 지식” 장에 수록되어 있다.

농무부 농업마케팅국과 식품및영양국이 협력해 농장에서 학교로 팀을 꾸린 일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맺어진 또다른 결실이다. 농장-학교 직거래팀은 농장-학교 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과 학교에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농무부 여러 국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공급받는 학교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먹거리의 출처에 대한 전국적 논의 활성화.** 농무부는 “이야기가 있는 먹거리”를 바라는 소비자의 증가를 미국의 농민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미국 전역의 농민과 축산농민은 웹사이트, 제품 포장지, 유기농 인증마크, 그 외 여러 수단을 활용해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방법을 개발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려고 애쓴다.

농민과 축산농민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을 개발해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이든, 미국 전역이나 전 세계를 무대로 판매되는 것이든 관계없이) 자신이 재배하고, 사육하고, 가공하는 먹거리를 고유한 것으로 특화하고자 한다.

가령 지역에서 재배된 고추에 대한 자부심이 큰 뉴멕시코 주는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해치(Hatch) 마을 인근 고추 재배 농민은 5개 주에서 홍보행사를 열어 해치산(産) 고추의 진가를 알렸다. 홍보행사가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치 지역 칠리 재배 농민의 소득이 늘었고 신규 재배 농민도 늘어났다. 해치 지역 고추 재배 농민은 해치 지역 고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층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고객으로 만든 것이다.

농무부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농업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농업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전파하고자 한다. 농무부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자기가 먹는 먹거리의 출처에 대해 토론하는 전국적인 논의를 활성화해왔고,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만들었으며, 미국 경제와 미국 지역공동체에서 농업이 수행하는 역할을 널리 알려왔다. (지역을 무대로 먹거리를 판매하든, 미국 전역을 무대로 먹거리를 판매하든 관계없이) 먹거리 생산자와 먹거리 관련 기업은 먹거리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도움을 받고 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무부가 가진 더 큰 이상, 즉 미국 농촌이 잡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며, 미국인 모두가 공유한 자연자원을 보전한다는 이상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책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성취한 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는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농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수록해놓았다.

이어지는 장들은 로컬푸드 인프라, 지역의 책임성, 지역산(産)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지원,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 건강에 유익한 먹거리 섭취, 농업 관련 직업, 로컬푸드 관련 지식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 로컬푸드 인프라



### 요점

- 미국 전역에 설치된 농민장터 수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54% 증가해 농민이 소비자와 직접 만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7천 곳이 넘는다.
-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푸드허브 포털 사이트(Food Hub Web Portal)는 개장한지 석 달 만에 5천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민장터, 도로변 직판, 그 외 농민들이 (대체로 가공되지 않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여러 종류의 직판장들은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아왔다. 이런 판매소의 성장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 총 매출액이다. 최근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식당, 소매업자, 지역 공급업자의 매출액이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매업자나 기타 “간접 판매” (또는 “중개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

다. 인프라에는 창고 및 냉장시설, 먹거리를 분류하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시설, 브로콜리의 꽃 부분을 잘라내는 공장, 딸기로 잼을 만드는 공장, 밀을 빵아 밀가루로 만들어 지역 빵집에 공급하는 제분소, 로컬푸드를 운송하는 냉동 트럭, 로컬푸드를 조리하는 식당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인프라는 규모도 적절해야 한다. 미국의 기존 먹거리 관련 인프라는 장거리를 운송하는 관계로 너무 거대하고 모든 지역에 저장소를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 안에서 소규모로 거래하는 지역 생산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로컬푸드 시스템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인프라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잼이나 밀가루 같이 가치를 더하는 제품을 생산하면,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를 판매할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음식점 역시 먹거리를 판매할 새로운 판로다. 가공공장이나 운송망은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수 있고 학교에 구내 식당을 설치하면 로컬푸드 이용을 늘릴 수 있다. 냉장 창고를 이용함으로써 가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판매해 수확하자마자 판매할 때보다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업자는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서류작업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소규모 농민과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른 시기에 작물 재배를 시작해 더 늦은 시기까지 재배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새롭고 이익이 많이 나는 시장인 직거래 시장으로 이르는 길은 인프라에 달려 있다.

## 현장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와 로컬푸드 인프라

2009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출범했을 때 TF 팀은 생산자와 먹거리 관련 기업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인프라에 주목했다. (아래에서 논의될 육류와 가금류 도축 시설 지도와 푸드허브 목록이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다.) TF 팀은 농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추가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어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지금까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로컬푸드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준 사례는 공급망 구축, 재배계절 확대 시설, 최신 시설 구축, 소매 시설 개선 등 다양하다.

## 생산 인프라

지역 생산자는 재배 계절을 늘려 따뜻한 계절 이외의 계절에도 먹거리를 공급하게 만들어 줄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농무부는 자연자원보전국을 통해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책의 “지역의 책임성” 장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또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에 농무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로컬푸드 생산 인프라는 농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쿠아포닉(aquaponics) 산업<sup>i)</sup>의 경우에는 창고가 중심 역할을 했다. 농무부 농촌개발국은 센트럴 뉴욕 셰릴(Sherill)에 위치한 아쿠아 비타 농장(Aqua Vita Farms)을 도와 1만3천 제곱피트의 창고 공간을 온실과 물고기 양식장으로 탈바꿈시켰다. 2011년 기업보증대출(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은 오네이다 저축 은행(Oneida Savings Bank)을 통해 아쿠아 비타 농장에 자금을 지원했다. 양식 물고기와 재배된 농산물은 센트럴 뉴욕 도매상에게 판매된 뒤 지역 식당과 소매상에게 공급될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센트럴 뉴욕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진다. 농촌개발국은 아쿠아 비타 농장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뉴욕의

i)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융합한 기술.

먹거리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촌개발국 뉴욕 주 책임자 질 하비(Jill Harvey))

## 가공 인프라

먹거리 가공을 통해 생산자는 생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상하기 쉬운 먹거리를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얼리면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계절에 관계없이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일십년 사이 농산물 가공시설이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먹거리를 가공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책의 “지역산(産) 육류 및 가공류”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남아 있는 가공시설 대부분은 계약을 맺은 특정 농장과만 거래하거나, 로컬푸드 생산자들은 맞출 수 없는 물량 기준을 제시하는데다가 대부분 너무 멀리 있는 관계로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로컬푸드 가공시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무부는 새로운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지역공동체는 농무부가 지원하는 자원을 이용해 일 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가령 오클라호마 주 오클멀기(Okmulgee)에서 활동하는 머스코지(크리크) 머스코크 먹거리 주권 수호사업(Muscogee (Creek) Nation's Mvskoke Food Sovereignty Initiative)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튼튼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공시설 건립도 포함되어 있다. 2010년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이 시행하는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머스코크 먹거리 주권 수호사업은 먹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시설을 건립하고 먹거리 안전 관련 지식과 먹거리 가공기술을 지역 주민에게 교육했다. 머스코크 먹거리 주권 수호사업은 부가가치를 더한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직접 생산한 먹거리를 직접 가공하고 직접 홍보하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 생산자들은 소매 판매를 통해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남은 물론 벌어들인 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되었다.

농촌개발국이 운영하는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금(Value-Added Producer Grants)은 생산자가 부가가치를 더하는 시설을 직접 소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금으로, 농산물을 가공하고 포장하는 시설에 지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08년 미 의회는 농무부에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금 프로그램을 영세 소농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2011년 농무부는 텍사스 주 엘 파소(El Paso)에서 2008년 농업법 규정을 보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로 운영되는 가족농이나 영세 농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2012년 켄사스 주 포해튼(Powhattan)의 요하네스 팜(Johannes Farm)은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금을 받아 살충제, 제초제, 합성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귀리의 껍질을 벗겨 가공하고 포장하는 시설을 건립했고, 그렇게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시장에 내다 팔았다.

**가공을 통해 가치를 높인다.** 가공 인프라 구축은 먹거리 시스템에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자원보전국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장의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가령 매사추세츠 주 해들리(Hadley)에서 5대째 낙농업을 영위해 온 존 코코스키(John Kokoski)는 자연자원보전국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 판매할 우유를 병에 넣는 시설과 소 분뇨 및 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했다. 지역에 판매하는 우유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코코스키는 목장 경영을 정상화했고 땅을 매각하라는 개발업자들의 압력을 물리치게 되었다.

## 유통 인프라

미국 전역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운송업자와만 거래하게 되면 로컬푸드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 농무부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튼튼한 운송망을 구축해야 한다. 가령 네바다 주 미네랄 카운티 경제개발청(Mineral Count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은 2011년 농촌개발국에서 운영하는 농촌경영체보조금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냉장 트레일러 2대를 구입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 시장에 공급했다. 미네랄 카운티 경제개발청이 직접 기금을 신청해 진행된 이 사업에는 여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트레일러 임대는 퍼싱 카운티(Pershing County)에 있는 더블 트리 랜치(Double Tree Ranch) 목장이, 운영은 처칠 카운티(Churchill County)의 그레이트 바신 바스킷 유한 회사(Great Basin Basket, LLC)가 맡았다. 트레일러는 네바다 주 농민이 먹거리 및 가치를 더한 먹거리의 판매 영역을 농민장터,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대도시로 확장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 소매 인프라

**농민장터.** 농민과 소비자를 연계하려면 그들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농민장터는 바로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다. 농민장터 수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54% 증가해, 미국 전역에서 농민장터 7천여 곳이 소비자와 농민을 직접 연결하고 있다. (농민장터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일리노이 주와 오레건 주 농장들의 경험담을 참고하라.)

농민장터는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칸소 주 뉴포트(Newport)는 2010년 농촌개발국으로부터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Community Facilities grant)을 지원받아 임시 천막을 치고 운영되던 농민장터를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고 시설을 확충해 대형 전시장을 마련했다. 농민장터에 참여하는 농장은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고 참여 농장의 매출도 50% 상승했다. 2011년 플로리다 주 마리아나 시(City of Marianna)는 농촌개발국으로부터 농촌경영체를 지원받아 폐쇄 위기에 처했던 지역 시장을 되살렸다. 새로 개장한 시장은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공연예술 공원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잭슨 카운티 농민 연합(Jackson County Growers Association)이 로컬푸드를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남부 지역 주 뿐 아니라 북부 지역 주에서도 겨울에 열리는 농민장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10년 이후 겨울에 열리는 농민장터 수는 40% 증가해 미국 전역에서 1천200곳이 운영 중이다. 2011년 농무부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페이스 인 플레이스(Faith in Place)와 손잡고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시카고 지역의 겨울 농민장터를 15곳 확대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연중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 역시 겨울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농업마케팅국은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그램 등 겨울에 열리는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럿 운영하고 있다.



## 사례 2

### 아이다호 주 사례 : 인프라가 시장을 확대하다

아이다호 주의 바운티 생협(Bounty Food Co-op, Inc)은 아이다호 남부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연중 무휴의 로컬푸드 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바람은 협동조합이 갖추고 있는 운송망과 냉장시설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고 말았다. 2010년 농촌경영체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은 우드리버 자원보전 및 개발(Wood River Resour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이 바운티 푸드 냉동 트럭을 제공하면서 생협은 창고에 있는 먹거리를 상하지 않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인프라 확장을 통해 운송 능력이 증대되어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배송을 책임질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바운티 생협의 성장으로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존의 생산자들이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당과 먹거리 관련 기업들은 로컬푸드를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바운티 생협 조합원의 소득은 2010년 30% 증가했고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한 2011년에는 다시 25% 증가했다.

**이동식 장터.** 농민장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장이 소비자를 찾아간다. 이동식 장터는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게에 제공할 유통 인프라의 또 다른 사례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역의 후파 밸리 족(Hoop Valley Tribe)은 2009년 농촌개발국으로부터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포함해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13개 농촌 카운티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저소득 주민 1천200명에게 운송할 트럭을 구입했다. 그 뒤 농무부 식품및영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냉동 트럭도 구입했다.

**소매점.** 식료품점이나 그 외 전통적인 소매업체가 로컬푸드를 취급하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 들여 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네 명 중 한 명이 빈곤층인 코네티컷 주 뉴 헤이븐(New Haven)에서는 2011년 기업보증대출의 도움을 받아 24시간 영업하는 식료품점을 열었다. 도심에 문을 연 엘름시티 마켓(Elm City Market)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저 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는 새로운 일자리 100여개를 제공했다. 게다가 엘름 시티 마켓은 취급하는 물품 중 절반이 넘는 물품을 반경 200마일 안에서 들여왔다. 엘름 시티 마켓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에게 로컬푸드를 팔면서 성업 중이다. 버몬트 주 브래틀보로 생협(Brattleboro Food Co-op)은 1979년 작은 창고형 가게로 문을 열었지만 지금은 109명의 직원을 두고 1천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큰 매장으로 발돋움했다. 브래틀보로 생협은 2010년 농무부 농촌개발국으로부터 기업보증대출을 받아 더 큰 공간을 확보해 지역 농민 146명과 추가로 거래하게 되었고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입점 생산자도 46명 늘었다.

### 주방 시설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먹거리를 직접 공급하는 인프라의 최종 단계는 음식 조리다. 조리 인프라라는 먹거리 관련 기업에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되고 학교나 기타 기관에게는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음식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초기 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0년 펜실베이니아 주 요크(York)에서는 농촌개발국으로부터 농촌경영체 지원을 받아 2011년 100년 전통의 센트럴 마켓에 음식점을 열었고 메인 주 노르웨이(Norway)는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을 받아 프로그레스 센터(Progress Center)를 식당으로 개조해 하루 200끼를 로컬푸드를 섭취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제공한다. 테네시 주 컴버랜드 조리 센터(Cumberland Culinary Center)는 농촌개발국의 농촌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지어진 음식점이자 소기업 육성의 장이다. 컴버랜드 조리 센터를 활용해 생산물을 홍보하는 소규모 기업 6곳이 입주했고 7곳이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이곳이 없었다면 그 기업들은 수천 달러에 이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하이오 주의 로컬루츠 마켓과 카페 인 우스터(Local Roots Market and Café in Wooster)도 2011년 농촌개발국의 지원을 받아 음식점을 짓고 있다. 식당이 완공되면 기업 25곳의 매출이 증대되고 신생 기업 10곳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농민장터로 출발한 로컬루츠 마켓과 카페 인 우스터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0년에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원 800명과 지역 생산자 1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거래액의 90%를 소득으로 올린다.

**구내 식당 주방의 부활.** 많은 학교들이 주방 시설 부족으로 인해 신선한 로컬푸드가 아닌 조리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무부는 학교들이 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릴랜드 주 하포드 카운티 교육위원회(Harford County Board of Education)는 2010년 농촌개발국으로부터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을 받아 급식용 중앙 창고의 냉장, 냉동 시설을 확충했다. 시설 확장으로 지역에서 재배된 먹거리를 공립학교 학생 3만 9천여 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학생과 지역 농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다. 학교가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고하라.

## **뭉쳐야 산다: 로컬푸드허브, 협동조합, 도매시장**

여러 방식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업도 있다. “푸드허브”가 바로 그런 사례다. 푸드허브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수집, 저장, 공급, 판매를 총괄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개별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모아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 포장, 기타 서비스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푸드허브는 푸드허브가 없었다면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다가설 수 없었을 더 큰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푸드허브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소규모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가령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푸드허브가 오클라호마 주 농민 200여명에게 먹거리를 수집, 저장, 포장, 판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모여서 포장된 생산물은 오클라호마 주 50여 곳에서 판매되며 월 매출은 70만 달러에 달한다.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매출은 20배 성장했고 참여하는 농민 수도 10배 증가했다. 이 푸드허브는 농무부 농촌마케팅국으로부터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규모를 늘렸다.

농민이나 축산농민이 생산한 먹거리 수집이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도매상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푸드허브(FoodHub)는 오리건 주에서 활동하는 에코트러스트(Ecotrust)가 농무부 농촌개발국으로부터 농촌창업보조금(Rural Business Opportunity Grant)을 지원받아 설립한 쇼핑몰이다.

## 사례 3

### 라 몬타니타: 농업협동조합 설립보조금 프로그램

뉴 멕시코 주에서 활동하는 소매 협동조합 라 몬타니타(La Montanita)는 2007년 푸드허브를 설립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점 네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물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도매 시장과 거래를 트려고 하는 지역 생산자를 지원했다. 회원이 1만7천명에 달하는 라 몬타니타 협동조합과 푸드허브는 앨버커키(Albuquerque) 반경 300마일 안에 있는 900명의 생산자가 생산한 1천500여 품목의 상품을 취급하고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한다. 푸드허브는 1천500제곱피트 규모의 냉동창고, 500제곱피트 규모의 냉장공간, 4천제곱피트가 넘는 규모의 건조창고, 생산물을 수거하고 배달하기 위한 냉동 트럭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망도 갖추고 있다. 2010년 푸드허브는 27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C. E. 퍼그(C. E. Pugh) 전(前) 총 매니저는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한 협동조합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 분명해보였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덕분에 농업이 한 자릿수 성장세로 하락했을 때에도 우리는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라 몬타니타는 농무부 농업협동조합 설립보조금(Rural Cooperative Development Grant)을 지원받아 협동조합 사업을 확대했다.

미국 전역에서 푸드허브에 대한 관심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2009년 농무부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농촌마케팅국이 주도 부서가 되었다. 소위원회는 농무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 푸드허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푸드허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해 로컬푸드 공급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푸드허브 저장 시설을 확충하며, 건강에 좋은 먹거리 전국 네트워크(National Good Food Network)와 손잡고 동영상이나 여타 교육자료를 제작해 푸드허브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동영상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500여명에 이르며 교육과 별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시청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 농촌마케팅국 직원들은 생산자 및 관련자로부터 200여건의 요청에 대해 대응했다. 농촌마케팅국이 수집한 자료는 2011년 7월 만들어져 가상의 공간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농촌마케팅국 푸드허브 포털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2011년 9월까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 수는 5천명에 이른다.

**협동조합.** 푸드허브의 기업 모형은 소규모기업, 비영리단체, 구매클럽,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등 다양하다. 로컬푸드 재배자로 구성되는 생산자 협동조합은 먹거리를 수집, 저장해 다양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푸드허브에 참여하거나 푸드허브를 설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다. 소비자들이 주축이 되는 소비자 협동조합도 푸드허브를 설립해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수집해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푸드허브의 기업 모형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고하라.

푸드허브와 관련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설립보조금을 지원하는 농무부 농촌개발국이다. 록키마운틴농민연합(Rocky Mountain Farmers Union)은 농업협동조합설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콜로라도 주 하이 플레인스 생협(High Plains Food Cooperative) 설립을 지원했다. 하이 플레인스(High Plains) 지역과 록키마운틴 프런트 레인지(Rocky Mountain Front Range)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하이 플레인스 생협은 온라인 농민장터를 개설해 협동조합원인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판매한다.

## 사례 4

### 전통시장에서 푸드허브로 탈바꿈한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이스턴 마켓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이스턴 마켓(Eastern Market)은 전통 시장에서 푸드허브로 탈바꿈한 뒤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스턴 마켓은 (소비자용) 소매시장, (식료품점, 납품업자, 식당용) 도매시장, 꽃시장, 특별시장 이렇게 네 개의 개별 시장이 모여 있는 큰 시장이다. 미시건 주, 오하이오 주, 온타리오 주에서 모여든 가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250여 곳이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이스턴 마켓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스턴 마켓에서는 먹거리 수집, 납품, 가공, 소규모 또는 중규모 농민들의 직접 판매가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2010년 농무부 농업마케팅국과 협력연구 협정을 체결한 이스턴 마켓은 시장 조사를 통해 건강에 좋은 로컬푸드를 디트로이트 전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경제 개발 구역의 재개발을 통해 기업창업보육센터 및 식당, 도소매, 공급을 활성화할 센터 건물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도 수립했다. 이스턴 마켓은 디트로이트 공립학교(Detroit Public Schools)와 손잡고 학교의 먹거리 구입 예산 160만 달러 중 30% 이상을 미시건 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을 최소화한 먹거리로 구입하겠다는 학교의 내부 목표 달성을 도왔다.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소매 판매 뿐 아니라 도매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져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주요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는 이스턴 마켓에서는 영양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舊 푸드스탬프)이 지원하는 먹거리도 매달 3만 달러어치 가량 취급하고 있다.

**도매 시장.** 최종 시장이라고도 불리는 도매시장은 저장 시설과 운송 시설을 활용해 농산물을 거래하거나 인근 대도시에서 먹거리를 공급한다. 역사적으로 도매시장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온 먹거리를 도매상들이 구입하는 시장이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기획하면서 농무부는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시설이 소규모나 중규모의 지역 농민을 도울 인프라로 적절한 공간인지를 연구했다.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은 윈록 인터내셔널(Winrock International)의 월러스 센터(Wallace Center)와 협동 연구 협정을 맺고 북아메리카 프로듀스 마켓 매니저 협회(North American Produce Market Managers Association) 및 유나이티드 신선산물협회(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의 도움을 받아 기존 도매 시장의 유통망을 조사해 활용도가 낮은 인프라를 찾아내 활용도를 높였다.

농무부는 이런 인프라를 지역 생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디트로이트의 이스턴 마켓은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시장이다. 디트로이트 주민의 먹거리 섭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생산자를 소비자와 연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농무부는 공급망에 연계된 모든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보면 농무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인프라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 책임성과 로컬푸드



### 요점

- 2010년과 2011년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은 미국 전역에 4천500여 동의 비닐하우스 건립을 지원해 재배 계절을 확대했다.
- 2009년 톰 빌색 농무장관은 시민텃밭 사업(People's Garden Initiative)을 시작해 지역공동체와 학교 농장 700여 곳을 조성했다.

모든 농장과 목장은 규모, 거래 시장에 관계없이 자연자원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생산자들에게는 자연자원 보전이라는 역할이 특별한 특징이 되고 있다. 지역에 먹거리를 판매하기에 적합한 농장 대부분은 대도시 인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대도시의 엄청난 인구와 자연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받는 대도시 주변 공간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서게 된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자는 가족, 부족, 지역공동체, 기업이 적극적으로 먹거리를 수집하고 전통 문화를 보전하며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숲과 목초지도 보호한다.

로컬푸드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원 보전과 책임성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농민장터, 도로변 직판, 기타 직접 판매 수단을 활용하는 농민이나 축산농민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일한 생산자다.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생산자는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 활동을 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농업 홍보대사”의 역할을 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미국의 자연자원을 더 잘 보전하려고 애쓰는 농무부의 노력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본다.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종자 개발.** 성공적인 농업은 종자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인 질병에 견디고 해충에도 강한 다양한 종자를 활용하면 화학 약품 의존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해충이나 질병은 기후, 토질, 기타 요인에 의존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른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농무부는 지역에 적합한 종자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 농촌의 토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가령 2011년 네바다 주 농민 릭 래틴(Rick Lattin)은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비트 컬리 탑 바이러스(Beet Curly Top Virus)에 저항성을 가진 유기농 토마토 종자 시험을 수행했다. 바이러스에 걸린 종자를 바이러스에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자 옆에 심고 결과를 지켜봤다. 래틴의 농장을 비롯해 연구에 참여한 농장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종자와 노지에서 재배하는 종자의 유병율을 비교해보기도 했다. (아래 참고).

**지역 생산자가 농장과 목장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은 자연을 보전하는 농업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농민과 축산농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관개 시스템 확충, 퇴비장 조성, 토양침식을 줄이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완충지대 조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한다. 오클라호마 주에서 열린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자는 자연자원보전을 실천하는 농장을 돕는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는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연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 가령 뉴멕시코 주 남부 지역 해치 마을 인근 칠리 생산 농민들은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의 기금을 지원받아 물을 지하로 배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덕분에 생산량이 25% 늘어났고 물 이용 효율성도 30% 정도 늘어났다. 뉴멕시코주의 자량인 해치 산(産) 고추는 주로 뉴멕시코 안에서 팔리지만 뉴멕시코의 특산물로서 미국 전역에도 공급된다. 미시시피 주, 텍사스 주, 워싱턴 주 등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는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은 농민과 축산농민의 유기농 전환을 돕는다. 모든 로컬푸드 생산자가 인증받은 유기농민인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기준을 투명하게 준수해 기른 유기농 먹거리는 먹거리의 가치를 더하며 소비자에게 농업에 대해 교육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자연자원 보전과 생물 다양성 창출을 요건으로 하는 유기농 시스템은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한다.

**자원을 보전하고 재배 계절을 늘려주는 인프라 지원.**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은 2010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출범시켰다. 지역 시장에 먹거리를 내다파는 생산자들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호응이 높을 줄은 몰랐다. 재배 기간을 확대해주는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농무부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분담했다. 후프 하우스(hoop house)로도 알려진 비닐하우스는 물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유병율을 줄이며, 값비싼 비료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보전하기 때문에 지역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생산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자연자원보전국의 비닐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은 32개 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반응이 뜨거워 곧 47개 주로 확대되었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첫 2년인 2010~2011년 사이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은 4,500동이 넘는 비닐하우스 시설비용을 지원했다. 2011년 말 자연자원보전국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확대해 50개 주 모두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영상을 통해 앨러배마 주, 버지니아 주, 유타 주, 백악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사례를 확인하고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통해 자연자원보전국의 지원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보자.

**정원을 돌려준다.** 150년 전 링컨 대통령은 농무부를 신설하면서 “시민의 부처”라고 표현했다. 링컨 대통령의 정신을 따라 2009년 톰 빌색 농무장관은 시민텃밭 사업을 출범시켰다. 농무부 직원들이 앞장서 농무부 안에 농장을 조성했다. 그 뒤 지역공동체의 시민 단체와 전국 단위의 시민 단체가 협력해 미국 전역에 지역공동체 텃밭 및 학교 농장 700여 곳을 조성했다. 시민텃밭의 위치는 다음의 지도를 참고하라. 2010년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식품및영양국과 협력해 시민텃밭 학교 시범사업(People's Garden School Pilot)을 출범시켜 고등학교에 텃밭을 조성했다. 2011년에도 볼티모어의 식품 사막 지역에 추가로 시민텃밭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산림국(Forest Service)도 과실수나 활엽수 식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마련해 지역공동체 텃밭이나 도시농업 활동 증진에 기여했다. 농무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아동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게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시민텃밭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가 주도하는 “렛츠 무브!(Let's Move!)” 사업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개발로부터 농장을 보호한다.** 미국 전역에서 농장이 사라지는 추세다. 특히 개발 압력이 심한 도시 주변에서 심각한데 땅 값이 높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주변일수록 로컬푸드를 재배하는 최적의 장소가 된다. 자연자원

보전국이 운영하는 농장 및 목장 보호 프로그램(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은 각 주, 지역 시민 단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토지소유주와 함께 땅을 구입하고 농장을 조성해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한다. 이곳에서 코네티컷 주 교외의 가족 농장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로컬푸드를 생산해 농장을 방어한 방법을 알아보자.

**나무와 숲의 생산력을 강화한다.** 혼농임업(Agroforestry)은 자연의 다양성을 보전한다. 숲과 작물 생산을 혼합한 혼농임업은 토양과 물을 보전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 나무들이 줄뿌림 작물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그늘을 드리운다. 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생산물이 된다. 또한 나무를 이용해 작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 농무부 산림국과 자연자원 보전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국립 혼농임업 센터(National Agroforestry Center)는 농민에게 숲과 작물 모두를 보전하는 혼농임업의 원칙을 알리고 있다. 가령 일리노이 주 국립 혼농임업 센터 직원들은 어느 가족농에게 야생 양파의 일종인 램프(ramps)를 수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숲에 작물을 재배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숲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을 채취하면 그 자체로 소득원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그 농장이 램프를 통해 얻는 소득은 전체 농장 소득의 70%나 된다. 또한 수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게 되었으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동시에 거두게 되었다. 2011년 농무부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2016년까지 농무부가 기울이게 될 노력에 대해 설명한 혼농임업 전략틀(Agroforestry Strategic Framework)을 발간하면서 혼농임업 장려에 나섰다.

**원주민과 지역공동체가 농업 문화 전통을 보전하도록 돕는다.**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야생동물과 야생물고기를 잡는 일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나 그 외 농촌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다. 생계를 위한 채집이나 수렵은 특히 알래스카 지역의 오랜 전통이다. 농무부 산림국 및 연방의 여러 기관은 연방 생계관리 위원회(Federal Subsistence Management Board)를 통해 알래스카 전역에 있는 연방 토지 및 연방 수계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어업 및 수렵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알래스카 원주민 및 알래스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보전에 기여한다.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알래스카 원주민 건강 연구센터(Center for Alaska Native Health Research)와 알래스카 페어뱅크 대학(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이 알래스카에서도 외딴 곳에 위치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학교에 공급하는 자족적 프로그램의 전통을 확대한 것으로 2010년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가 운영하는 농업과 식품 연구 사업(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미국 전역의 농민과 축산농민은 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들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농업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농민과 축산농민이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농업 홍보대사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로컬푸드 생산자가 아닌 농민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유기농 인증을 받으며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땅을 지키는 농민의 역할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

## 지역산(産) 육류와 가금류



### 요점

- 2010년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소규모 가공공장 도우미(Small Plant Help Desk) 사업을 시행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육류, 가금류, 달걀 가공공장에게 농무부 소속 전문가를 연계해주었다. 첫 2년간 도움을 준 건수는 무려 4,500여 건에 달한다.
- 농무부 규정에 따라 2011년 중반부터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 도축장은 주 경계를 넘어 온 육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돈이 많이 벌리는 주에서 육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급 음식점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소규모 지역 식료품점, 농민장터에서 대형 소매점, 병원, 기업의 구내 식당에 이르는 모든 먹거리 관련 기업은 지역 농민과 축산농민이 생산한 육류, 가금류, 달걀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 메인 주 해안에 이르는 미국 전역의 학교 역시 급식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 조리한 점심을 제공할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지역에서 기른 육류에 대한 지원은 축산업이 지역공동체에 가져다 줄 이익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가축은 작물 재배지를 비옥하게 만들 거름을 제공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가축이 풀을 뜯음으로써 작물을 재배할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도 한다. 농민과 축산농민은 지역에서 가공한 가축을 지역에서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6개 주에 있는 소 사육 목장을 조사한 결과 지역을 중심으로 육류를 판매하는 농가가 지역 바깥의 구매자와 거래하는 농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즉, 로컬푸드 생산자들에게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아무리 높더라도 시장으로 진입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축산농민에서 출발한 육류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도축장, 포장, 공급,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사이 이와 같은 중간 단계를 처리할 시설이 통합되면서 수는 줄어들고 규모는 커졌다. 가령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연방에서 관리하는 도축장 수는 1천200곳에서 800곳으로 줄어들었다.<sup>7)</sup> 오늘날에는 대규모 공장 같이 기계화된 도축장에서 계약된 축산농가의 가축을 매입해 균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육류를 처리한다. 소규모 독립 축산농민은 대규모 도축장을 이용할 수 없어 소규모 시설을 찾지만, 소규모 도축장은 대규모 도축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계절에 따른 공급 변동이 도축장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축 가공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도 도축장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한다. 식품 안전 및 환경 규제를 따라잡기 위한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생산자의 이익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시장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소규모 도축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의 소규모 도축장에서 소를 1천 마리 처리할 때 생겨나는 일자리는 7개였다.



## 현장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와 지역산(産) 육류와 가금류

농민과 축산농민은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도축장 시설 선택권의 부족을 꼽았다. 문제를 파악한 농무부는 소규모 도축장의 활동 범위를 넓힐 방안을 찾는 동시에 기술을 지원했고 도축장의 규모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009년 농무부 7개 부서가 파견한 직원들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의 감독 하에 협력 활동을 벌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에 대한 이해 확대.**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의 지도를 만든 뒤 생산자, 기업,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들었다. 지도와 관련 보고서는 소규모 생산자가 집중되어 있지만 도축장은 거의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생산자들에게 지역 도축장 이용 기회 부여.** 생산자는 육류, 가금류, 달걀 생산 감독 목록(Meat, Poultry and Egg Product Inspection Directory)을 이용해 농무부가 감독하는 인근의 가공시설을 찾아볼 수 있다.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목록의 정보를 한 달 단위로 갱신한다. 주 별, 도시 별, 우편번호 별로 분류해 놓은 엑셀 파일도 배포해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는다. 육류, 가금류, 달걀 생산 감독 목록 엑셀 파일은 2010년 10월에서 2011년 9월 사이 1백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되어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 웹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보가 되었다.

## 사례 5

### 이동식 시설을 이용한 지역산(産) 육류 가공

매사추세츠 주 로웰에 있는 뉴 엔트리 지속가능 농업 프로젝트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소득원을 가지면서 토질을 향상시키기를 바랐고, 이에 닭 사육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떠올랐다.

닭은 6~8주만 기르면 출하할 수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위험도 적다. 안타깝게도 매사추세츠 주에는 농무부의 감독을 받는 가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닭 사육 농민이 소비자에게 닭을 판매할 수 없었다. 본인도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민이었던 뉴 엔트리 지속가능 농업 프로젝트 책임자 제니퍼 해슬리는 가금류 시장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었고 뉴 잉글랜드 소규모 농장 연구소(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에 농장을 돌면서 가금류를 가공하는 이동식 가금류 가공시설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뉴 엔트리 지속가능 농업 프로젝트는 주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의 감독 하에 이동식 가금류 가공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이동식 육류 및 가금류 가공시설 규제 관련 지침서를 발간해 이동식 가공시설 관련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각 주의 노력을 지원했다.

뉴 엔트리 지속가능 농업 프로젝트가 시범 설치한 옥외 가공시설은 8개 농가에서 이용했다. 그 뒤에는 농무부 농촌개발국이 운영하는 농촌경영체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더 규모가 큰 실내 가공시설을 지어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수십 명의 가금류 사육농가가 이동식 가금류 가공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적어도 8곳의 가금류 사육 농

가가 주의 허가를 받아 농장에 가공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이동식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생산자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뉴 엔트리 지속가능 프로젝트는 농무부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두 번째 자금을 지원받아 식품안전과 기업모델개발을 포괄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가 비용과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산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그 결과 농민, 소비자, 지역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 **소득 증대.** 이동식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생산자들은 한 계절 동안 보통 400~2,000마리의 가금류를 생산하고 풀을 먹여 기른 신선한 로컬 가금류 또는 유기농 가금류 1파운드 당 4달러에서 7달러를 받는다. 직접 판매를 통한 일년 매출은 3만 달러에 달한다.
- **소비자 접근성 향상.** 가공된 로컬 가금류를 주 안에서 판매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일자리 창출.** 한 계절동안 가금류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5명에서 1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수십명의 생산자가 이동식 가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공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늘어났다.

농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도축하는 이동식 가공시설은 비용 문제로 대형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소규모 생산자와 거래할 수 있다. (워싱턴 주 사례 참고.) 이동식 가공시설 규제가 모호해 이동식 가공시설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말을 들은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이런 요구를 명확히 파악해 이동식 육류 및 가금류 가공시설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또한 농촌개발국과 공동 회의를 열어 이동식 육류 및 가금류 처리 시설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을 모아 콜로라도 주 포트 콜린스(Fort Collins)와 네바다 주 카슨 시티(Carson City)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이곳과 이곳을 참고하라.). 익스텐션(eXtens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소규모 육류 가공센터(Small Meat Processing Center)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동식 가공시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대출 또는 농무부 농촌개발국이 주관하는 기업보증대출 프로그램 같은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새로 가공시설을 열고자 하는 기업가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보조금도 있다. 2011년 미네소타 주 지속가능한 농업 협회(Sustainable Farming Association of Minnesota)는 농촌마케팅 국이 주관하는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아 농민들에게 육류 감독 규정을 교육하고 지역산 육류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육류 생산자의 성공을 돕는다.** 일부 로컬푸드 생산자들은 기르는 가축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무부는 이런 장벽을 뛰어 넘는 하나의 방안으로 협동조합 생산을 지원한다. 가령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로부터 농업과 식품 연구 사업 지원금을 지원받은 아이다호 대학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해 소규모 농민의 가축 생산, 가공, 판매를 증진할 최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풀을 먹여 가축을 기르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가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은 지속가능한 목초지 관리, 영양 관리 등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는 농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농민을 지원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10대 짜 목장을 운영하는 가족농이 풀을 먹여 기른 지역산 소고기를 판매하게 된 사연을 이곳에서 알아보자.) 농업마케팅국도 유기농 비용분담 프로그램(Organic Cost Share Program)을 통해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이 길러지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농민이나 축산농민의 농장을 방문해 실

제로 가축이 길러지는 방식에 대해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품은 환상은 깨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농업 단체가 가축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도 블로그나 여러 노력을 통해 소비자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버팔로 같은 동물을 사냥해 소비하는 전통을 지닌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는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물을 사냥하는 일은 전통 중 하나지만 그런 동물을 감독받은 도축 시설에서 도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우스 다코타 주의 경우 버팔로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 중 농무부의 감독을 받는 시설은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버팔로 고기를 정육점에서 판매하거나 학교 식당에 납품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 19개 주 57개 부족을 대표하는 부족간 버팔로 위원회(InterTribal Buffalo Council)는 농무부 농촌개발국이 지원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규모 생산자 보조금(Small Socially Disadvantaged Producer Grant)을 받아 회원 부족에게 버팔로를 사냥하는 전통 기술을 가르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버팔로 고기를 유통시키고 있다.

**육류 가공업자의 성공을 돕는다.** 소규모 가공공장은 대형 가공공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가령 소규모 가공공장은 기술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안전 규정을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소규모 가공공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소규모 가공공장 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해 소규모 및 초소규모 육류, 가금류, 달걀 가공업자에게 농무부 전문가들을 연계해 지식을 나눠주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어마어마해 시행 첫 두 해인 2010~2011년 사이 4,500건 이상의 문의를 처리했다.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의 소규모 공장 페이지에는 도움을 주는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해 안내되어 있다.

기존의 도축 시설이나 신규 도축 시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돕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연구소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소규모 육류 및 가금류 가공시설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가 운영하는 전국 통합 식품안전 사업(National Integrated Food Safety Initiative)은 높은 평가를 받은 연구를 통해 소규모 육류 및 가금류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보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축 시설의 경우 연방의 감독이 아니라 주(州)의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州)의 감독을 받는 시설은 주(州) 경계를 넘어 판매할 수 없었다. 감독 항목이 같은 주(州) 간에도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주(州) 경계 바깥에 이익이 많이 나는 시장이 있더라도 주(州)의 감독을 받는 도축장을 이용하는 생산자들은 주(州) 경계 너머로 생산물을 판매할 수 없었다. 위스콘신 생산자들이 시카고에 판매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08년 농업법 개정으로 주(州)에서 감독하는 도축장을 거친 육류도 주(州) 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주(州) 간 거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1년 중반부터 농무부는 주(州) 간 육류 거래 프로그램을 주(州)에서 감독하는 모든 도축시설에 적용하게 되었다.

#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



## 요점

-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2004년 400곳이었으나 2011년에는 2,300 곳으로 늘어났다.
- 농무부 리스크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은 지역 생산자가 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혁신적인 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학교, 대학교, 병원, 회사, 정부 기관의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 집 밖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기관들이 가까운 농장에서 먹거리를 납품받는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미국의 농민, 축산농민, 먹거리 관련 기업에게 시장 지배를 넓혀 소득을 높일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생산자를 기관과 연결하는 이득은 또 있다.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배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은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sup>8)</sup>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농업에 대해 가르칠 기회를 얻는다.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2004년 400곳에서 2011년 2,300여 곳으로 부쩍 늘었다.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은 건강에 좋은 신선한 먹거리를 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할 기회가 늘어난다. 메인 주에 있는 어느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과일과 채소를 제공해 인근에 있는 농민장터 활성화에 기여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 농민과 지역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식재료 구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관이 로컬푸드를 더 많이 구매하면서 농민의 판매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안에서 돌아다니는 현금도 늘어난다(경제조사국이 2010년 발간한 보고서는 소비자, 지역 소매상, 지역 기업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민이 도매상과 거래하는 농민에 비해 판매 대금에서 남기는 이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시장은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때문에 중규모 이상의 농장에 유리하지만 농민장터나 도로변 직판보다 훨씬 많은 양을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역의 기관과 거래하는 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소농은 대규모 주문이나 포장 조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은 농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드는 식품안전 감사, 인증, 안전성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프라 또한 문제다. 중소규모 농장은 먹거리를 직접 운송할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관 역시 냉동시설이나 먹거리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인프라 부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이 책의 “로컬푸드 인프라” 장을 참고하라).

## 현장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와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

생산자와 기관은 서로 연계를 맺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는 늘어난 요구에 부응해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라고 농무부에 지시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이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부터 이뤄진 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민과 기관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다.** 2009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농장-학교 직거래 사업팀을 구성해 농무부가 산하 청들을 통해 지원하던 사업을 조정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로컬푸드 생산자를 연결시켜 주었다. 농장-학교 직거래팀은 지침, 자원, 동영상 자료, 평가자료를 담은 농장-학교 직거래 도구 지침서를 발간해 농민과 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농장-학교 직거래 사업팀은 학교 15곳을 방문해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1년 농업마케팅국과 식품및영양국이 합동으로 생산물 안전대학(Produce Safety University)을 개설해 식품관련 전문가들에게 로컬푸드 생산자를 비롯한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신선한 식재료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일주일간 교육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5차례의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의 기회와 한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향상.** 미 의회는 2008년 개정 농업법에 학교가 가급적 지역에서 재배된 가공전 농산물을 소비할 것을 권장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2011년 농무부는 학교가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 입안, 로컬푸드 소비 권장조달 지침 작성, 자주 묻는 질문(FAQs) 정리, 온라인을 통한 무료 조달교육, 농무부 직원을 투입한 개별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런 자원은 농장-학교 직거래 웹사이트 정책 안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를 투입해 지역공동체에 다가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TF팀은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에 관련된 농무부의 약속에 관한 정보를 한 데 모아 일반에 공개했다. 가령 국립농업도서관은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에 관련된 서지목록을 제공해 연구자나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농무부 농촌개발국도 지식을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령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열린 이들 간의 컨퍼런스에는 생산자, 학교급식 전문가, 식료품업자, 농무부 직원, 기타 전문가들이 모여 첫날은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 및 기타 마케팅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둘째날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 지원.** 2010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지역공동체에 기술 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동 법안(Healthy, Hunger Free Kids Act)에 서명했다. 관련 자금은 2012년 10월부터 농무부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농무부 여러 국들이 협력해 공동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가령 농무부 리스크관리청은 농장식품안전프로젝트(On Farm Food Safety Project), 당신을 위한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 4U) 같은 식품안전 보장 도구를 개발해 로컬푸드 생산자에게 보급함으로써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기관이 제시하는 식품안전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은 각 주에서 관리하는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런 보조금 대부분은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령 오클라호마 주는 지역 농민에게 샐러드 바에 주로 사용되는 채소 재배법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고 오하이오 주는 오하이오 주의 특작 재배자들이 대학에 납품할 수 있게 할 방안을 찾기 위해 상세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주 전역에서 이뤄지는 농장-병원 직거래 프로그램을 지원해 병원이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에 좋은 과일과 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교 같은 기관이 농촌개발국에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을 신청해 로컬푸드 저장, 가공, 조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가령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도체스터 교육청(Dorchester School District)은 2010년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을 받아 로컬푸드를 조리할 고효율 찹기를 구입했다(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라). 이런 노력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주도하는 유명한 렛츠 무브! 사업 등 학교가 로컬푸드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오바마 정부가 펴는 더 광범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

## 사례 6

### 애팔래치아 남부 지역은 농장-학교 직거래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 경제발전, 건강 증진을 이뤘다.

농장-기관 직거래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성공 사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졌다. 2009년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애팔래치언 지속가능 농업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농업 전문가,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현장지도 전문가의 역량을 모아 농장-학교 먹거리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2년 사업을 시작했다(미국 전역의 주립대학들에서 협동조합 현장지도 전문가를 지원해주었고 이들이 대중을 상대로 기술 전수, 재정 계획 수립 등을 돕는 교육을 진행했다).

“역량 강화 :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2011년 “훈련가 양성” 컨퍼런스였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 주에서 온 교육팀이 농장-학교 직거래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100명 이상의 협동조합 확대 전문가가 모여 자신이 하는 일과 농장에서 학교로 사업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배워갔다. 이런 교육은 하나의 컨퍼런스를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져야 더 많은 학교와 생산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애팔래치언 지속가능 프로젝트는 2010년 로컬푸드 매출액이 620만 달러에 이르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농무부 식품및영양국이 운영하는 영양 팀 훈련 보조금(Team Nutrition training grants)은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돕는다. 학교는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 아이다호 주, 몬테나 주, 사우스 다코타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위스콘신 주 같은 여러 주의 기관들이 2011년 영양 팀 훈련 보조금을 받아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학교텃밭을 통한 농업 체험 교육 기회 확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학교텃밭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농업을 직접 체험하게 할 좋은 수단이며 나아가 먹거리를 직접 수확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무부는 교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오와 주, 아칸소 주, 뉴욕 주, 워싱턴 주에 있는 57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4천명에게 농무부 식품및영양국이 기획한 국민의 텃밭 학교 시범프로그램(People's Garden School Pilot)의 일환인 건강한 텃밭, 건강한 청소년(Healthy Gardens, Healthy Youth) 체험 기회를 주었다. 농업 전문가가 참여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지도했다. 영양교실, 식품안전교실, 조리교실도 진행되었다.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수록 지역경제도 되살아났다.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과일과 채소 소비 습관의 변화를 연구할 예정이다.

##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의 활동상

기관이 지역 농장으로부터 더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무부가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농무부 식품및영양국과 농업마케팅국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납품받는 학교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출범시켰다(FAQ는 이곳을 살펴보자). 농무부의 다른 여러 부서들도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부서 간 협력을 증진한 산 증거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서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농업마케팅국.** 식품안전지침과 기관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산자를 위한 인증 마련. 학교 식당에서 소모되는 식재료를 국가학교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을 통해 구매함.
- **식품및영양국.** 국가학교급식프로그램을 비롯해 학교급식에 관련된 프로그램 관장. 학교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선호하도록 지도함.
- **리스크관리청.** 생산자들이 식품 안전, 신뢰성, 기타 충족 요건을 만족시켜 기관으로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개발에 자금 지원.
- **소규모 기업,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운영하는 기업 활성화 사무소(The 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소규모 기업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운영하는 기업이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혜택을 누리도록 도움을 줌. 농업마케팅국과 함께 소규모 생산자 및 소규모 공급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작업장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함.

또한 농무부 직원들은 지역공동체의 학생들과도 직접 만난다. 농무부 농장서비스청은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실에서 농업을 프로그램 (Ag in the Classroom program)을 운영하는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이르는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실에서 농업을 프로그램과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오클라호마주 툰사(Tulsa)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먹는 먹거리와 그것을 재배한 농부에 대해 잘 알게 된 사연을 살펴보자.)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도록 도왔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참고하면 농무부의 지원을 받은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 사례 7

### 뉴잉글랜드 지역 주지사 협의회는 농장-기관 직거래사업을 기회로 본다.

뉴잉글랜드 지역 6개 주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확대로 농장부지가 줄어들면서 위기에 처했다. 뉴잉글랜드 주지사 협의회(New England Governors' Association)는 농장-기관 직거래사업을 농지보전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병원, 교도소, 학교 같은 지역의 주요 기관에 지역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내게 되었다. 2010년 뉴잉글랜드 주지사 협의회는 농무부 농촌개발국과 협력 협정을 맺고 농장-기관

직거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개발국이 2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각 주에도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책자를 만든 시점에 모인 자금은 45만 달러에 이르는데 그 중 7만3천 달러는 켄들 재단(Kendall Foundation)이 지원한 것이다. 2011년 말 존 머크 펀드(John Merck Fund)는 뉴 잉글랜드 지역의 로컬푸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 10여 년 동안 수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건강에 유익한 먹거리 섭취



### 요점

- 2010년 농무부는 노년층 90만명, 여성·영아·아동을 위한 특별영양보조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의 수혜를 받는 215만명에게 농민장터에서 지역 농민이 판매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했다.
- 2010과 2011년 전자거래시스템(EBT) 거래 승인을 받은 농민장터 및 직판장의 수는 51% 증가해 2천400곳을 넘어섰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비만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영양 관련 질병에 걸리기 쉽다. 백악관 아동비만 TF팀(Task Force on Childhood Obesity)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아동(2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 3명 중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기 쉬운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렛츠 무브!”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먹거리 섭취 문제는 지역공동체에 식료품점이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먹거리 섭취 문제는 각 가정이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먹거리 구매력은 고용 상태 및 일자리의 품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미국 전역에서 식품 섭취를 늘림으로써 실업문제와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먹거리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공동체를 지역 생산자 및 지역의 먹거리 관련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판로를 확대해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기업 설립,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농민장터, 이동식 장터, 농장-학교 직거래사업, 푸드허브, 그 외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로컬푸드 판매는 이미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먹거리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도 2010년 발간된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서 2010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에서 권장하는 만큼의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농무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플레이트(MyPlate)는 『지침서』가 권장하는 만큼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려면 현재 식탁에 오르는 접시의 절반을 과일이나 채소로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미국인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량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증가해야 한다. 미국의 농민과 먹거리 관련 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해 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을 확대한다면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미적거리다가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 농민에게 기회를 빼앗길 것이다. 2010년 오하이오 주 북동부에 위치한 16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서 원하는 먹거리 수요의 25%를 로컬푸드가 감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실업 주민 8명 중 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2만7,66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연 매출은 42억 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

### 현장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와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

가족 또는 지역공동체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게 되는 데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농무부 여러 부서들은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펴고 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출범한 이후 농무부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기울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전역의 식품 섭취 현황 파악.** 2009년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650만 명의 아동을 비롯해 2천350만 명의 미국인이 슈퍼마켓에서 1마일 넘게 떨어져 있는 저소득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제조사국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품 사막 지도(Food Desert Locator)를 개발해 식품 섭취가 어려운 지역공동체가 어디인지, 어디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1년 4월부터 2011년 말까지 9개월 동안 무려 32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제조사국이 농업마케팅국, 식품및영양국과 함께 개발한 또다른 도구인 먹거리환경 지도(Food Environment Atlas)는 식료품점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먹거리 공급 불안정성, 먹거리 지원, 활용가능한 로컬푸드 등 여러 사회경제 지표를 카운티 수준에서 제공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도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탰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해 농무부 각 부서들이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먹거리 섭취와 관련해 농무부가 제공하는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했다. 가령 2011년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연구소가 지원하는 농업과 식품 연구사업은 로컬푸드와 먹거리 섭취에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한다. 가령 노스다코타 주립대학은 스탠딩 록 수 보호구역(Standing Rock Sioux reservation)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펜실베이니아 주는 북동부 지역의 로컬푸드 시스템을 평가해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였으며, 버지니아 공대는 애팔래치아 지역의 식품안전과 로컬푸드 경제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시작했고, 와이오밍 대학은 로컬푸드 시스템을 지역공동체를 조직하는 전략으로 삼아 먹거리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노력은 미국 전역의 여러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자 산 증거가 될 것이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의 활동상: 영양보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매점은 영양보조프로그램 소매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농민장터는 오래 전부터 영양보조프로그램에 참여해왔지만 푸드스탬프 쿠폰을 EBT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에는 없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가령 농민장터는 대부분 야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기 시설과 전화 설비 같이) EBT 카드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9년 농무부 식품및영양국은 농민장터와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EBT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양보조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했다. 동시에 농업마케팅국은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야외 시장이 EBT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선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2010년 농업마케팅국과 식품및영양국은 영양보조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농민장터 운영자를 위한 소책자를 공동으로 발간해 참여 절차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안내해 도움을 주고 있다.

먹거리 섭취율이 저조한 지역공동체에 농민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농민장터에 EBT 도입을 지원한다. 농민장터와 가판에 EBT이 도입되면 영양보조프로그램(舊 푸드스탬프)과 여성·영아·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보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쿠폰 같은 복지 수급자들은 건강에 좋은 로컬푸드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농민과 축산농민은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농무부는 농민장터와 가판대에 EBT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소비자를 지역 생산자와 직접 연계되도록 돕는다. 농민장터와 가판대에 EBT을 도입하는 사업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강조한 지난 3년간 속도를 더했다.

2008년 미 의회는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 자금 중 10%를 농민장터에 EBT을 설치하는 사업에 배정했다. 농무부는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 보조금 중 500만 달러를 18개 주 농민장터에 EBT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해 미 의회가 규정한 10% 이상을 지원했다. 2011년 미 의회는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 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서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율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2011년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의 자금의 받은 40%가 식품 사막 지역에 투입되었다. 농무부는 미 의회가 규정한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민간 자선단체에 지원했다. 덕분에 영양보조프로그램 수급자들이 농민장터에서 보조금을 쓸 경우 농민장터가 아닌 곳에서보다 2배의 가치로 보조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건강에 좋은 로컬푸드 접근성을 증진하는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농무부 식품및영양국에서 운영하는 여성·영아·아동을 위한 특별 보조 및 농민장터 영양 프로그램, 노년층 농민장터 영양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2010년 이 두 프로그램은 90만 명의 노인과 212만 명의 여성·영아·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어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지역 농민에게 직접 구입하도록 도와주었다.

각 주는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이 시행하는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의 특작 재배를 확대하고 농민장터에 EBT 도입을 지원해 저소득층 구매자를 돕는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미국 전역에서 먹거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지역공동체에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젝트는 2010년 30건에서 2011년 41건으로 늘어났다. 이 보조금은 주 정부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이 결부된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2010년과 2011년 EBT을 도입한 농민장터 및 가판의 수는 51% 증가해 2천400여 곳을 넘었다. 덕분에 저소득층이 먹거리를 더 잘 섭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농민의 소득도 높아졌다.

**인프라를 지원해 소매점이 건물에 입점할 수 있게 하는 일도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를 촉진하는 방법이 된다.** 식품및영양국이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기아퇴치 보조금(Hunger-Free Communities grants)은 로컬푸드 유통을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인 텍사스 주 엘 파소(El Paso)에는 섬유 산업이 남쪽으로 이전한 뒤 버려진 창고가 많았다. 센트로 델 오브레라 프론테리조(Centro del Obrero Fronterizo)는 2011년 지역공동체 기아퇴치 보조금을 받아 버려진 창고 중 하나를 시장으로 개조해 지역 농민들이 신선한 채소, 곡물, 육류, 토르티야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 멕시코 출신이 대부분인 지역공동체 주민들은 이제 건강에 좋고, 자신들의 문화에도 맞는 먹거리를 섭취하고 영양 및 요리 강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이 없는 지역에 시장을 조성하는 지역공동체 기아퇴치 보조금은 생산자들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먹거리 섭취율을 늘리려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득이 증대하게 되어 농민이나 축산농민이 먹거리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무부 농촌개발국은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로컬푸드 관련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시설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에 식당을 지어 학생들이 로컬푸드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냉장시설을 지어 로컬푸드를 저장하는 푸드뱅크 저장소를 확대하며 냉동 차량을 지원해 신선한 로컬푸드를 원하는 가정에 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무부가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원책을 살펴보면 캐슬린 메리건 농무부 차관의 기록을 살펴보자.

펜실베이니아 주 르하이 밸리(Lehigh Valley)의 이스턴(Easton) 마을은 EBT을 이용해 먹거리 구입을 확대하고 농업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슈퍼마켓도 몇 곳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턴 마켓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EBT을 도입한 15곳의 시장 중 한 곳이 되었다. 이스턴 마켓은 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EBT 카드 이용율이 32% 증가했다. 판매량도 20% 증가했다. 여성·영아·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농민장터 영양 프로그램 수혜 이용자도 3배 증가했다. 그 결과 농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건강에 더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게 되었다.

## 사례 8

###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농업 창업 현황

2005년부터 오하이오 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농민이 20% 감소하고 농지도 29% 감소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계층이 특히 큰 고통을 받았다. 만성질환이 증가해 도시의 식품 사막 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욱 커졌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1년 오하이오 주립대학(OSU)은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연구소가 운영하는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 개발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창업농민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농업창업네트워크(Beginning Entrepreneurs in Agricultural Networks) 프로젝트는 여성, 소수민족, 난민, 발달장애인 같은 자원이 부족한 성인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했고, 클리블랜드 시는 시 소유의 빈 토지를 내어주어 소규모 농장 창업을 지원했다. 농업창업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대학, 정부 기관, 주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독특한 프로젝트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실습장을 제공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12주짜리 교육인 자영농훈련프로그램(Market Gardener Training Program)은 농민 11명을 도와 지역 농장 7곳의 창업을 지원했다. 참가자들은 농장창업보육의 장인 6에이커 규모의 킨스먼 농장(Kinsman Farm)에서 토지를 가꾸고, 울타리를 치며, 농업용수를 대고, 생산한 먹거리를 저장하며, 토질을 높이는 방법을 배운다. 그 외에도 여러 농장 부지를 확보해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난민과 이민자 20명에게 클리블랜드 시에서 농업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했고 생산물을 지역에 내다팔 수 있도록 지원했다. 쿼야호가 카운티 발달장애 위원회(Cuyahoga County Board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가 운영하는 농업 훈련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26명의 사람들에게 도시 텃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필요한 곳에 먹거리 공급하기.** 마지막으로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가 지원하고 원록 인터내셔널의 월러스 센터가 진행하는 건강한 도시 먹거리사업 개발센터(Healthy Urban Food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프로젝트는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로컬푸드를 제공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라코타 족(Lakota) 말로 “신성한 불이 머무는 곳(Sacred Fire Lodge)”이라는 뜻의 비영리단체 페타 와칸 티피(Peta Wakan Tipi)는 2009년 건강한 도시 먹거리사업 개발센터의 지원금을 받아 구매한 트럭으로 미네소타 주에서 이동식 농민장터를 운영해 아메리카 인디언 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공동체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메리카 인디언 주민이 유기농 농장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세인트 폴(St. Paul) 지역에 있는 네 곳의 유통시설로 실어 나를 트럭이 생김으로써 먹거리 공급 영역을 넓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소득도 늘어났다.

**먹거리 섭취, 농업 교육, 지역공동체 연계.** 미 의회는 2008년 농업법에 지역공동체 텃밭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명시했다. 네브래스카 주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미니스트리즈는 2008년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로부터 3년 사업인 지역공동체 먹거리 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 보조금을 지원받아 빅 루얼 가든 프로젝트(Big Rural Garden Project)를 시행해 먹거리를 제대로 구하기 어렵던 11개 카운티에 지역공동체 텃밭을 조성했다. 600여 명의 네브래스카 주 주민이 15개 농장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자기가 먹을 먹거리와 농민장터에 내다 팔 먹거리를 직접 재배했고 생산물 중 일부는 로컬푸드 나눔 단체에 기부했다. 참여자들은 영양 및 건강교육도 받았다. 프로젝트 책임자 스테파니 알쉬워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참여자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가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심한 경우 45분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신선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재배해 사람들에게 공급하자는 것이죠 (...) 결과적으로 로컬푸드 생산량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마하 주 저소득 지역에 텃밭 32곳을 조성하는 도시 빅 가든(urban Big Garden) 사업으로 이어졌다.

농무부 산림국도 텃밭 조성을 통해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율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국 산하 노던 리서치 스테이션(Northern Research Station)은 볼티모어 생태계 연구(Baltimore Ecosystem Study)를 통해 볼티모어가 수립한 지속가능 계획의 일부인 도시 농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볼티모어가 수립한 지속가능 계획이 추진하는 토지 이용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국 직원들은 비어 있는 공간이나 공원 공간을 과수원, 곡물 재배, 기타 작물 재배지로 활용해 로컬푸드 관련 사업체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볼티모어 시가 자연경관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움을 준다. 산림국이 운영하는 도시와 지역공동체 숲 프로그램(Urban and Community Forestry Program)은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를 도와 공공 공간을 과수원으로 조성해 과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을 통해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율을 성공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로컬푸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무부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 전략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미국 전역에서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살펴보자.

## 사례 9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

주민 27%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 서부에 위치한 농촌 지역 포리스트 그로브(Forest Grove)에서는 아델란테 뮌레스(Adelante Mujeres)가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며,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뮌레스는 아델란테 아그리쿨투라(Adelante Agricultura)라는 22주간의 단기 집중 농촌훈련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다. 로컬푸드 재배 조건에 대한 생산자의 지식을 증진하고, 농장 운영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며, 시장 모니터링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농민들이 농산물을 성공리에 재배해 성공리에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한다. 생산자들은 뮌레스가 운영하는 포리스트 그로브 농민장터와 지역의 아파트 단지 세 곳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데, EBT을 도입한 뒤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농무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뮌레스는 퍼시픽 대학(Pacific University)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농민장터에서 먹거리를 구입할 경우 영양보조프로그램 이용자 1인당 5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영양보조프로그램 인센티브 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2009년 뮌레스는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 보조금을 확보해 지역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노령 인구와 저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농민장터 촉진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동안 포리스트 그로브 농민장터를 찾는 소비자는 주당 800명에서 1,500명으로 두 배 늘어났다. EBT 이용율도 422% 늘어났다. 현재 뮌레스가 보증하는 농민장터에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판매하는 농민은 25명으로, 해당 농민의 매출 중 80%가 뮌레스가 보증하는 농민장터 거래를 통해 나오고 있다.

## 농업 관련 직업



### 요점

- 2009년 농무부는 창업농과 창업축산농 개발 관련 프로그램 29개에 자금을 지원했다. 지원 첫 해에만 무려 5천명 이상의 신규 농민이 훈련을 받았고 2010년에는 40개 주, 40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
- 2009년 4월 취임한 이래 캐슬린 메리건 농무부 차관은 미국 전역의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25곳을 방문해 젊은이들에게 먹거리와 농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체험” 기회를 주었다.

농업, 축산업, 먹거리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활하면서 젊은이에서 노년층에 이르는 미국 전역의 노동 인구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과 축산업은 들판에서 일하면서 혁신적인 기업을 발전시켜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먹거리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일, 학생을 가르치는 일, 초보 농민을 훈련시키는 일은 생산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느끼게 만든다. 농장 바깥에서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사업이 먹거리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창의적인 전략을 내놓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전역에서는 농민과 축산농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감소세가 꺾이는 추세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농장 운

영자의 은퇴, 낮은 농산물 가격, 기타 요인으로 인해 20만 곳의 농장이 사라졌다.<sup>9)</sup> 농민들이 떠나는 바람에 농촌 지역공동체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고 경제는 허약해졌다. 젊은이, 이민자, 난민, 제대 군인 등 농업에 뛰어드는 새로운 농민을 수혈해 이런 경향을 반전시켜야 한다. 새로 농업에 뛰어든 초보 농민에게는 지역 시장이 공략해볼만한 대상이다. 지역 시장에 적합한 작은 규모로 농업을 시작하는 농민도 있을 것이고 이 시장을 발판으로 규모를 키워가려는 농민도 있을 것이다. 지역 시장에 뛰어든 농민은 인구가 많은 인근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가치가 높은 먹거리를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농장은 도시를 확장하려는 개발의 압력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해 열린 공간을 보호할 뿐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국가의 농업 역량을 확충한다.

그러나 농업에는 날씨를 비롯한 불확실성이 많이 작용한다. 초보 농민은 훈련과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농민이 토지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비할 자원을 확보하고 신용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토지 확보가 가장 큰 도전이다. 농지의 평균 가격이 지난 10년 사이 2배 상승했기 때문이다.<sup>10)</sup> 저장, 냉장, 가공, 유통 인프라를 이용할 방법을 찾는 일도 지역 시장을 공략하는 농민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남아있다(인프라에 관련된 장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무부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이 책의 “로컬푸드 인프라” 장을 살펴보자).

## 현장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와 지역의 새로운 얼굴

새로 창업하는 모든 농민이 로컬푸드를 생산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무부는 농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먹거리 관련 기업을 창업하는 은퇴자들에게 로컬푸드 시장이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의 일환으로 농무부 여러 부서들은 협력하여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창업농민이나 로컬푸드를 거래하는 먹거리 관련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무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창업농민 교육.** 주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창업농민, 창업축산농민을 지원하는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는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가 운영하는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 개발 프로그램이다. 2009년 농무부는 미국 전역의 단체들이 수행한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 개발 프로그램 관련 29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고 보조금을 지급한 첫 해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 창업 교육을 받은 농민과 축산농민은 5천명에 달했다. 2010년에는 40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요약하자면 2010~2011년 40개 주, 총 69개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동영상, 컨퍼런스, 현장 실습, 멘토 농민의 지원 등 훈련 활동이 이뤄져 미국 전역에서 창업한 농민과 축산농민이 혜택을 누렸다. 훈련의 주안점은 로컬푸드를 판매할 기회를 마련하는데 맞춰졌다.

## 사례 10

### 캘리포니아 주 버트 카운티의 농지 보전과 창업농민 육성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많은 프로젝트들은 창업농민을 교육해 로컬푸드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 버트 카운티(Butte County)에서 활동하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농지 트러스트는 2010년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 개발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창업농민과 창업

축산농민에게 로컬푸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시행 첫해에 농지 트러스트는 3개 카운티를 아울러 카운티 농업위원, 대학 교수, 경제개발 부서장, 농민, 농지 트러스트 직원, 농장 신용평가 관련자가 참여하는 기술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신용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직접 판매에 성공하는 기술 등의 주제를 내건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을 위한 기술 워크숍을 6차례 개최했다. 또한 농지 트러스트는 창업농민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노엘레 페르동 농지 트러스트 로컬푸드시스템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역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지켜내더라도 새로운 젊은 농민이 수혈되지 않는 한, 강력한 로컬푸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토지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유구한 농업의 역사를 보호하기 위해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기로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식 공유의 장 제공.** 협동조합 지도사업국(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은 100여 곳 이상의 주립대학 캠퍼스 및 주 사무소와 카운티 사무소에서 로컬푸드 생산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훈련을 제공하며 농민들이 네트워크 구성해 서로에 대해 친숙해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지도사업국이 로컬푸드를 생산하기로 마음먹은 창업농민을 지원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블로그를 참고하라. 협동조합 지도사업국은 온라인 농촌지도시스템 익스텐션(eXtension)을 개발해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농무부는 현장 연구조사에 자금을 지원해 창업농민과 창업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에 지식을 제공한다. 다음 장 “로컬푸드 관련 지식”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온라인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농무부 리스크관리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개설된 새로운 미국 먹거리유역을 위한 현장 가이드(Field Guide to the New American Foodshed) 웹사이트는 로컬푸드에 관심을 보이는 창업농민, 창업축산농민, 먹거리 관련 기업이 동료 농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장 가이드를 비롯해 창업농민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농무부와 미국농업협회(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가 창업농민의 훈련과 정보교환을 돕기 위해 개발한 Start2Farm.gov 웹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다.

## 사례 11

### 뉴햄프셔 주 토지를 지키는 젊은 농부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은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을 통해 뉴햄프셔 주 뉴더햄(New Durham)에 위치한 다이아몬드B 농장(Diamond B Farm)을 창업한 농민 메건 빅포드(Meghan Bickford)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도록 도왔다. 자연자원보전국의 지원을 받은 메건은 벨티드 갤러웨이(Belted Galloway) 종 소와 애그너스(Angus) 종 소를 목장에 방목해 풀을 먹여 기를 계획을 수립했다. 메건은 배수로를 만들어 농장으로 물이 넘치지 않게 조치했고 숲 향상 계획도 세웠다. 농장 부지에 군침을 흘리는 개발업자들이 많았음에도 메건은 페이스북과 입소문을 통해 로컬푸드 판매량을 늘려나갔고, 언제든지 메건의 농장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는 지역 소비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창업농민의 토지 확보와 로컬푸드 생산 지원.** 농무부가 수행한 농업자원관리설문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에 따르면 농민 40%가 대도시가 위치한 카운티에 자리 잡고 있다. 농무부는 도시 인근에 농장을 소유한 농민이 인근 도시의 시장에 먹거리를 내다 팔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웹사이트, 블로그, 에이전시 간 협력,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는 농무부가 지원하는 자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가령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이 운영하는 농장 및 목장보호 프로그램은 도시 인근에 있는 농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한다. 자연자원보전국은 환경질 개선 장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토양, 공기, 물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농민과 분담함으로써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창업농민도 지원한다. 자연자원보전국은 기존의 경험 많은 농민보다는 창업농민의 비용을 분담해준다. 마지막으로 농장서비스청이 운영하는 전환보상프로그램(Transition Incentives Program)은 보전지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에 속했지만 기간이 만료된 토지를 창업농민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농민과 축산농민에게 팔거나 임대해, 지속가능한 목축이나 농장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은퇴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장 멘토 프로그램은 창업농민의 토지 확보를 돕는 새로운 방식이다. 가령 미네소타 주 노스필드(Northfield)에 있는 힐사이드 농민협동조합(Hillside Farmers Co-op)은 새로 창업한 라틴아메리카계 농민에게 작물 재배나 가금류 사육용으로 땅을 임대해 준 기존 농민을 짝지어준다. 2010년 농무부 농촌개발국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규모 생산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힐사이드 농민협동조합은 멘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창업농민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자유티 풀어놓고 기른 가금류를 판매하는 지역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다.

**농장 소유를 통한 안정적 영농 지원.** 농무부 농장서비스청은 자격에 부합하는 창업농민과 창업축산농민에게 특별농업자금을 대출해 농지 매입에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유니온빌(Unionville)의 젊은 농민 자흐 레스터와 조지아 오닐은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임대한 농지의 토양을 돌보고 토질을 향상시켰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농장을 비워줘야 하고 그동안 농장에 투입한 돈과 시간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2009년 농무부 농장서비스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해 재배지를 옮겼다.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 시설자금도 지원받았다.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와 온실을 이용해 재배 기간을 늘려 워싱턴DC 전역의 농민장터에서 신선한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장서비스청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젊은 농민이나 창업농민에게 기여한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싶다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참고하라.

**젊은이들에게 농업 부문의 비영농 일자리 지원.** 다른 농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로컬푸드 시스템도 영농 일자리 뿐 아니라 비영농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로컬푸드 저장, 가공, 홍보, 공급, 판매와 관련된 기업을 창업할 기회를 찾는 젊은이도 있고, 농무부 직원의 대다수가 몇 년 안에 은퇴할 예정이므로 농무부 직원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 젊은이도 있을 것이다. 유타 주에 사는 젊은 나바호족 여성 세미라 크랭크(Semira Crank)는 농무부 자연자원보전국에 입사해 로컬푸드 생산 농민과 축산농민이 환경을 보호하도록 돕고 있다(세미라 크랭크가 자기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을 시청해보자).

농무부 산림국은 미국 전역에 직업훈련 시민보전 센터(Job Corps Civilian Conservation Centers) 28곳을 운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소 학



생이 농무부 구내 식당에서 주최한 “백악관 최고 셰프(White House Top Chef)” 경연에 참가해 DC 농민장터에서 구입한 건강에 좋은 로컬푸드로 음식을 만드는 동영상 시청해보자. 산림국은 미국산림재단(American Forest Foundation)과 협력해 건강에 좋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녹색학교! 프로그램(GreenSchools! Program)을 지원한다. 녹색학교! 프로그램 대부분은 학교텃밭을 조성해 학생과 지역공동체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직접 재배해 조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부 학교는 직접 생산한 신선한 먹거리를 먹거리 나눔 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

캐슬린 메리건 농무부 차관이 미국 전역의 대학을 방문해 홍보한 덕분에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지식을 넓힐 기회를 얻었다. 2009년 4월 취임한 이래 캐슬린 메리건 농무부 차관은 미국 전역의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25곳을 방문해 젊은이들에게 먹거리와 농산업을 대해 설명하고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과 그 외의 직접 사업을 통해 농무부는 로컬푸드 시장에 관심을 가진 창업농민, 창업축산농민, 먹거리 관련기업에게 지원할 자원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자기들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더 많이 연계시키겠다는 농무부의 광범위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에서 먹거리 관련 사업이나 농장을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농무부가 시행하는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보자.

## 로컬푸드 관련 지식



### 요점

-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농민장터 목록(Farmers' Market Directory)은 미국 전역에 분포한 농민장터 위치를 보여준다. 농민장터 목록 중 영양보조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은 2011년에만 2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해 2010년 조회수를 3배를 상회했다. 농민장터 목록 개발자들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1839년 미 의회는 특허국(U.S. Patent Office) 내에 농업과(Agricultural Division)를 설립해 “농업통계 수집과 기타 업무수행”을 일임했다. 1862년 링컨 대통령 재임 당시 미 특허국 산하 농업과는 농무부로 승격되었다. 그 뒤로도 농무부는 농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료수집과 조사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전미농업통계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이 수행하는 농업총조사(Census of Agriculture)에서 농무부 17개 부서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연구조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농무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렇게 축적된 지식을 나누며, 일반인이 그 조사결과를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비롯한 농업 일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로컬푸드 관련자나 관련 단체들은 조사활동, 자료 수집활동, 로컬푸드 시장이 미국인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진하는 농무부의 노력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입안가들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실무자들이 중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조사연구 자료가 필요한데,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로컬푸드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로컬푸드의 성공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무엇이며 로컬푸드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농민장터에서 먹거

리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누구인가?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식습관을 어떻게 바꿨으며 생산자들의 장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로컬푸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는 얼마나 많은가?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 수록 연구조사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일반인도 늘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 자신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먹거리는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협동조합, 식료품점,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농민장터가 영양보조프로그램(舊 푸드스탬프) 같은 정부의 영양보조프로그램을 취급하는지? 농무부가 내가 사는 지역공동체의 로컬푸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해답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로컬푸드에 대한 연구조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의문을 안고 있다. 상호 검증된 문헌도 부족하고 전국을 아우르는 자료도 부족하다. 지역 사례연구나 조사결과는 형식이 서로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로컬푸드 시장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표준화된 분석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조사 및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농무부 직원들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기존의 연구조사 결과와 자료를 수집해 발간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 계획을 세우면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일반인들이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도구를 활용해 지역의 농민과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돕는 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현장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와 로컬푸드 관련 지식

기존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부족한 점을 규명한다. 농무부 여러 부서들은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공유, 수집, 분석, 요약하는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열린 농무부 컨퍼런스는 정부, 학계, 비영리연구소가 한 데 모여 로컬푸드 시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2010년 초 로컬푸드 시스템의 정의, 참여자, 경제 발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로컬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 말 발간된 어느 논문은 경제조사국의 후원을 받아 지역의 농장에서 출발한 먹거리가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거치는 서로 다른 경로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2011년 경제조사국은 직판하거나 지역 소매업자에게 먹거리를 판매하거나 기타 “중개”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농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농무부 국립농업도서관 및 농업마케팅국 직원은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과 푸드허브에 관련해 상호검증된 기존 자료, 보고서, 지침서 목록 수집 활동을 공동 수행했다.

로컬푸드에 대한 농무부의 이해를 강화하고 젊은이들을 지원한다. 수집한 자료와 정보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농무부는 미국의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정보를 디지털화 하면 이런 경향을 일반에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새로운 디지털 도구 개발에 매진해,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전역에서 농무부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사업의 위치를 나타낸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개발한 여러 로컬푸드 목록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가령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농민장터 목록은 미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농민장터

위치를 알려주고 어느 장터가 영양보조프로그램을 취급하는지 알려준다. 2011년에만 농민장터 목록을 방문한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었다. 이는 2010년 방문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들은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지도에서 CNN과 포스퀘어(Foursquare)가 내세운 공동 브랜드인 건강한 식습관 배치에 이르는 온갖 다양한 정보를 생성해냈다.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푸드허브 목록(Food Hubs Directory)은 생산자들에게 소규모 농장에서 대규모 시장에 이르는 수집 및 공급업자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마케팅국과 경제조사국은 시장 관리자가 고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시장과의 경쟁 가능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농민장터 밀집도와 “경쟁 지역”을 표시한 지도와 연구논문을 작성했다. 농무부 식품안전및조사국은 소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축장 지도를 완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 “지역산 육류와 가금류” 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미국의 로컬푸드 환경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조사국은 100여개가 넘는 다양한 자료를 한 데 모아 먹거리 환경 지도를 설계했다. 여기에는 농민장터,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의 위치가 수록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먹거리를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수, 영양보조프로그램 참여 여부, 인구 특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먹거리 환경 지도는 로컬푸드 활용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지역공동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려는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활용되던 이런 도구들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와 결합되면서 일반인들도 로컬푸드 경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농무부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그리고 이런 노력이 미국의 식품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완결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컬푸드와 관련된 주제별, 수혜자별,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별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농무부의 노력을 일반에게 알리는 초석이 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이와 같은 정보 제공 도구를 통해 지역 농민과 그들이 생산하는 먹거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집 주방, 이웃,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도록 독려한다. 농업총조사를 살펴보면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로컬푸드 농민의 수, 재배하는 작물 종류, 그 외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업총조사가 로컬푸드 조사에 활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고하라.) 새로 도입된 작물재배한계선지도(Plant Hardiness Zone)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로컬푸드 분야의 연구조사를 지원하고 전도유명한 실천법을 공유한다.** 농무부는 학계와 현장 활동가들이 수행하는 혁신적인 연구의 속도를 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로컬푸드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에 대한 제안, 검토,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책은 농무부 국립 식품 및 농업 연구소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말고도 다양하다. 그 외에도 농무부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 경험을 분석한다. 가령 농업마케팅국은 전국적 직거래 연구(National Direct Distribution Study)를 통해 기관 고객에게 먹거리를 판매하는 8곳의 로컬푸드 공급자의 공급 및 판매 시설을 분석했다.

**다음 단계를 계획한다.** 로컬푸드 시스템과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조사와 자료를 평가한 뒤 농무부와 산하 부서들은 미진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확보할 방안을 찾는다. 농무부 식품및영양국은 농업마케팅국의 지원을 받아 영양보조지원프로그램(舊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농민장터를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인들을 시범 조사하고 있다. 식품및영양국과 경

제조사국은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와 성과가 파악될 것이다. 전미농업통계국은 농업자원관리 설문조사와 농업총조사를 통해 로컬푸드 판매 농가와 관련해 수집한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미농업통계국은 차기 농업자원관리 설문조사지에는 농장에서 학교로 납품되는 로컬푸드 판매량에 관련된 질문을 추가하고 2010년 농업총조사에는 소매상과 식당에 공급되는 로컬푸드에 대한 질문을 추가할 예정이다.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먹거리의 지역공급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 지표는 카운티 단위로 집계되는 자료로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농민과 소비자의 참여 정도와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투자 수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활동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출처, 로컬푸드 구입 환경, 경제 성장 등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고 이해도를 높여준다. 농무부가 지원하는 로컬푸드 시스템 연구조사 활동에 대해 알아보려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를 참고하라.

## 로컬푸드

### 농무부 외에도 많은 정부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컬푸드 시스템이 경제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개발지를 보존한다는 이유를 들어 로컬푸드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연방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로컬푸드 시스템을 활용해왔다. 다음은 그 사례들이다.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계획 보조금.** 주거 및 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운송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농무부와 협력해 주거, 토지이용, 경제개발, 일자리 창출, 운송, 인프라 투자를 통합한 지역공동체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계획 보조금(Sustainable Communities Planning grants)을 지원했다. 로컬푸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수립한 계획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가령 중부 오하이오 광역계획위원회(Mid-Ohio Regional Planning Commission)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계획 보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콜럼버스(Columbus) 지역의 로컬푸드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공동체 텃밭 공간을 300% 확대하고 새로 건립할 먹거리 유통센터에 적어도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이다.
- **지역공동체 질병 예방.**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미국 전역에 건강에 좋은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질병 예방 사업(Communities Putting Prevention to Work, CPPW)과 지역공동체 운송 보조금(Community Transformation Grants, CTG)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성공은 지역 농민과 소비자를 연계해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를 늘린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San Diego) 같은 도시 중심가와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과 학교 농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에 좋은 로컬푸드에 대해 가르치고 로컬푸드 섭취를 늘린 네브래스카 주 더글러스 카운티(Douglas County) 같은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 **공원에 건강에 좋은 먹거리 재배.** 국립공원이나 야외가 아동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국은 “건강한 공원, 건강한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주도하는 “렛츠 무브!” 사업과

공동으로 지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비롯해 건강에 좋은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국은 392개 공원 내에서 소비되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600여 먹거리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10억 달러어치의 먹거리를 소비하고 있다. 그 규모로 볼 때 생산자들이 한 번 도전해볼만한 시장이다.

- **지역공동체 경제 발전.**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산하 지역공동체 발전 기금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금이 제공하는 신용, 자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미국에서도 가장 저개발된 지역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무부는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들이 이런 재무부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령 2011년 농무부 직원은 위스콘신주와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스콘신 지역 지역공동체 발전 기금 직원들에게 위스콘신 주 지역의 먹거리 유통망의 중간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인식시켜 위스콘신 지역 지역공동체 발전 기금이 자금을 지원하게 만들었다.
- **소기업 지원.**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소규모 기업에게 자금 지원, 계약, 상담을 제공한다. 농무부와 미 중소기업청은 로컬푸드 시스템 지원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가령 2010년 아이오와 주에서는 농무부와 미 중소기업청이 협력해 로컬푸드 시스템에 끼어들고자 하는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기업인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 **직업 훈련.**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농무부 산림국은 농업과 임업 관련 분야에서 일할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직업 훈련소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라.

## 결론

### 교훈

2008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로컬푸드 시스템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확신은 연방 정부로 확대되었고 농무부가 로컬푸드 시스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로컬푸드 시스템 확대 노력의 성과는 지난 3년간 특히 크게 나타났다. 미국 전역의 농민, 축산농민, 먹거리 관련 기업, 지역공동체 단체의 혁신이 먹거리 구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열망과 맞물리면서 로컬푸드 시스템 확대 노력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톰 빌색 농무장관과 캐슬린 메리건 농무부 차관은 2009년 농무부가 보유한 자원을 홍보하고 로컬푸드 시스템 확대 노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출범하면서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농무부의 이해가 높아지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있는 수천 곳의 지역공동체에서 운영되는 로컬푸드 시스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한다.** 생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미국 전역의 농민과 축산농민 11만 명이 로컬푸드 시장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대농, 중농, 소농 모두가 로컬푸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 로

컬푸드 시장의 총 거래액은 50억 달러에 달했다. 로컬푸드 시장은 그 뒤로도 꾸준히 성장했다. 농무부에 따르면 2011년 미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농민장터는 7,100곳이었고 푸드허브는 170곳이었다. 2011년 농무부 농업마케팅국이 운영하는 특작 포괄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푸드 지원 자금을 신청한 주 및 직할령은 55곳 중 무려 54곳에 달했다. 미국 전역의 지역 공동체에서 농민장터가 발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시스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 주와 오리건 주에서 쉐퍼즈 그레인 상표를 붙인 밀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생산한 밀 대부분을 수출한다. 그러나 재배하는 작물의 15~30%는 품질이 우수한 경질 적색 춘소맥(hard red spring wheat)을 재배해 로컬푸드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농민들은 수출할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지역의 제빵업체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로컬푸드는 농업과 먹거리에 관한 전국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창이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관련 기업이 로컬푸드를 기회로 인식하면서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를 원했고 지역경제를 지원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생산자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먹거리를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인식했다. 눈치 빠른 기업가들은 로컬푸드라는 기회와 실현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줄이려고 애써왔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로컬푸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농무부는 미국 전역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만발하게 된 것은 미국의 농업,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먹기까지의 과정, 농장에서 식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먹거리가 거치는 다양한 경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인해 미국 경제가 누리게 될 혜택 등의 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계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과 자연자원을 보전함에 있어 농민과 축산농민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고 농업 전반에 큰 이익이 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을 통해 농무부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연계를 증진하고 소비자, 생산자, 먹거리 관련 기업 사이에 연계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정보와 자원의 확산을 주도해왔다.

이해관계자들은 농무부의 자원을 이용해 로컬푸드 시스템을 확충했다. 농무부는 운영 중인 보조금 프로그램과 대출 보증 프로그램 27가지가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큰 성과를 낳았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에는 농무부가 로컬푸드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 지원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어, 로컬푸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미국인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준다.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농민장터 수와 매출액의 성장세 및 전미 식료품점 협회와 전미 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같은 업계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는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 조사 결과는 로컬푸드만이 다른 부문의 경제 활동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판매를 통해 농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지역경제 안에 남아서 공급, 노동, 기타 지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된다. 따라서 로컬푸드 수요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제조사국이 수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컬푸드 시장에 먹거리를 판매하는 작물 농가와 견

과류 농가는 소득 100만 달러 당 13개의 전일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게 생겨난 일자리는 2008년에만 6만1천개였다. 여기에는 전일제 일자리 수만 포함되었다. 반대로 로컬푸드 시장과 거래하지 않는 농장은 소득 100만 달러 당 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로컬푸드 시장 발전이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나 백악관 농촌 위원회(White House Rural Council)의 지속적인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로컬푸드 시스템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업 부문 일자리를 늘리며 농업 부문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농무부의 사업 목표 달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그러나 이 걸림돌들은 혁신과 협력을 부추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 수준에서 보유한 인프라의 차이, 토지 확보의 어려움이나 신용 부족, 로컬푸드 관련 기업의 창업이나 운영 경험 부족, 계절에 따라 변동폭이 큰 로컬푸드의 한계 같은 문제들은 로컬푸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공동체가 직면하는 걸림돌들이다. 농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농민, 기업,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와 지역공동체 전체의 지식 공유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적인 지역 공급망 개발 지원, 기술 지원 제공 등을 통해 농무부는 농장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강력한 로컬푸드 시스템 정착을 통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돕고 있다.

**협력,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바람직한 행정 실현.**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농무부의 업무 처리 방식을 새롭게 바꿔놓았다. 농무부 17개 부서의 직원을 7가지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시민의 부처”가 갖춰야 할 덕목인 협력, 투명성, 효율성 수준을 높였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TF 팀은 농무부 17개 부서 참석자들이 참석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농무부 직원과 산하청 직원들이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TF 팀은 소위원회들을 구성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했고 하나 이상의 부서가 관여해야 하는 문제의 경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는 자기가 속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생산자들을 돕고자 하는 농무부의 실무 직원들에게 정보원 역할을 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해 하나 이상의 농무부 부서로부터 자금 지원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지도야** 말로 로컬푸드에 기울이고 있는 농무부의 다각화된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톰 빌색 농무장관과 캐슬린 메리건 농무부 차관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미국 전역과 농무부 부서들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을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 참여하기

미국의 지역공동체라면 어느 곳이나 로컬푸드 시스템을 이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 섭취를 확대하며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규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지역공동체의 부를 증진할 수 있다.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 사업은 로컬푸드 시스템과 관련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노력을 지원하며 농업 부문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무부의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먹거리와 농업은 먹거리를 재배하고 키우는 생산자, 먹거리를 저장, 가공, 공급, 판매하는 기업, 먹거리를 섭취하는 가정에 이르는 우리 모두

의 문제다. 먹거리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에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 미주

- 1) National Grocers Association. 2011. National Grocers Association Consumer Survey Report. Available online at <http://www.supermarketguru.com/public/pdf/Consumer-Panel-Survey-2011.pdf>.
- 2) Blythe, Bruce. 2011. "Local produce near top of hot menu trends." The Packer, May 24. Available at <http://www.thepacker.com/fruit-vegetable-news/122513864.html>.
- 3) National Farm to School Network. Farm to School Programs in the US (Estimated). Available online at <http://www.farmtoschool.org/index.php>.
- 4)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National Farmers' market Directory. Available at <http://farmersmarkets.usda.gov>
- 5) Obama for America. 2008. "Barack Obama and Joe Biden on the Environment." Fact sheet.
- 6)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9. Strategic Plan FY 2010-2015, at 2. Washington, DC: USDA. Available online at <http://www.ocfo.usda.gov/usdasp/sp2010/sp2010.pdf>.
- 7)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Livestock Slaughter Annual Summaries for 1990 and 2010, available at <http://usda.mannlib.cornell.edu/MannUsda/viewDocumentInfo.do?documentID=1097>. These totals represent the annual number of Federally-inspected establishments that slaughtered cattle, calves, hogs, sheep and/or lambs.
- 8) Michelle M. Ratcliffe, K.A. Merrigan, B.L. Rogers and J.P. Goldberg. "The effects of school garden experiences on middle school-aged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vegetable consumption." Health Promotion Practice, Vol. 12 No. 1, 36-43, January 2011.
- 9)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Quick Stats: Farm numbers, total farms, land in farms, average farm size, United States, 1980-2010.
- 10) NASS, Agricultural Land Values and Cash Rents, 1999-2003; NASS, Land Values and Cash Rents 2010 Summary.



# 일본, 미국, 이탈리아의 로컬푸드 정책 개관

(출처: 허남혁 외, 2011,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1. 일본

### 1.1 일본의 지산지소 개념

- 지산지소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産品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 지역에서 생산된 産品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가정에서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지산지소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인 경우와 간접적인 경우가 그것이다.
  - 직접적인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된 産品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경우이다.
  - 간접적인 경우는 縣內(광역자치단체)의 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를 말한다.
  - 예를 들어 지역산 콩(대두)을 사용하여 된장, 간장을 생산하여 지역에 판매하는 경우와 지역산 목재를 사용하여 주택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간접적 지산지소라 할 수 있다.

### 1.2 지산지소의 역할

- 첫째,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저렴한 가격, 제철産品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생산자의 요구와 안전한 농산물을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일치한 결과로,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것이다(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존).
- 둘째, 지역의 생산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의 제공과 수집에 의해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정보화시대의 대응).
- 셋째, 생산자의 측면에서 보면 고령자와 여성도 참가가 가능,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물을 제공 가능하게 되어 지역의 리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력에도 도움을 준다. 결국 지역의 자립과 주체성의 확립에 공헌하게 해주는 것이다(지역의 자립화).
- 넷째,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 전통적인 문화와 기술, 기법을 발견하는 등 지역에 대한 이해심을 깊게 해주는 것이다(지역의 가치 발견).
- 다섯째, 개인 간의 협력체제는 물론 조직의 연대 등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것이다(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 1.3 지산지소의 역사

- 1970년대 후반부터 京都附에서 전개된 ‘地域食糧確立運動’은 현재 일본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산지소의 원형을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윤병선, 2011).

- “지역에서의 식생활과 식료의 생산·유통을 주민분위로 재건하여 250만 교토부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는데,

① 지역의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식생활과 식습관을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식생활을 실제로 풍부하게 발전시킨다.

② 지역 주민의 식탁을 책임질 수 있는 식량공급능력을 지역에서 높인다는 것

③ 지역에 뿌리를 둔 합리적인 가공·유통체제를 구축

④ 250만 부민전체의 운동으로서 나라의 식료자급과 식료정책의 확립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 지역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특산지 만들기’를 ‘종합산지 만들기’라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이는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농업의 「종합산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더욱이는 농업생산환경의 파괴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였고, 이는 현재적 의미에서 지산지소운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산지소가 활동으로서 전국에 보급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농협이다(김태곤, 2005).

-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제20회 JA 전국대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공급’으로서 지산지소 활동을 강화할 것을 선언하였다.

- 특히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시한 지산지소 활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 그 후 2003년 10월의 제23회 JA 전국대회에서는 추진활동이 한층 구체화되었다.

## 1.4 일본 지산지소 정책

### 1) 중앙정부

○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던 지산지소적인 활동을 국가(중앙정부)가 지산지소로 문서화한 것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 (1999년)과 이 법에 의해 수립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2005년)이라 할 수 있다.

- 본 계획서에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산지 직판장 등의 성공을 평가해서 시책화한 것이 지산지소의 근본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그 사이에 2002년 4월, 농림수산성의 「‘食’과 ‘農’의 재생플랜」은 “소비자 제일의 푸드시스템을 확립하고 먹거리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면서, 이를 “농업의 구조개혁의 가속화”와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목표를 천명했다.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2010년 3월)

제3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지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책

(2) 국산농산물을 축으로 한 식과 농의 결합강화

- ② 지산지소활동의 성공사례나 새로운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소개하고, 생산자농업관계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하게 주체적인 활동을 촉진하면서, 활동의 중심인 직매소에서 취급하는 지역농산물의 품목·수량의 확대나 직매소간의 제휴를 통하여 품목의 충실 등 운영·판매력의 강화를 꾀한다.
- 또한, 생산자·농업관계단체와 실수요자인 학교급식이나 회사식당, 외식업자 등과의 제휴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산자 등과 수요자의 교류기회의 확대나 연결의 촉진, 안정된 공급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나아가서 일본 각지의 식문화의 발굴·유지 등을 통하여 지역특산물을 비롯하여 광범한 농산물의 이용촉진이나 부가가치의 향상을 꾀한다.

- 食育기본법(2005년)에 의해 책정된 ‘食育추진기본계획’ (2005년)에서도 지산지소가 추진되었다.
- 食育추진기본계획에서는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지역농산물 사용 증대를 위해 지산지소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식재료를 통해 지역의 자연, 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의 노고를 알며, 食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 본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학교급식의 목표로서 지역농산물 사용비율을 2004년 22%에서 201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내각부의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에서는 <21세기신농정2006>를 결정 지산지소의 추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食育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과 관광과의 연대를 통해 지산지소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21세기신농정2007>.
  - 또한 <21세기신농정2008>에서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식당 등에도 지산지소를 확대시키기 위해 연간 유통할 수 있는 양의 확보, 효율적인 유통체계의 정비 강화를 실시하였다.
- 농림수산업과 경제산업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수산업과 상업, 공업 등의 산업 간 연대(농상공연대)를 시행하고 있다.
- 경제산업성의 농상공연대사업은 지산부분에서의 지산지소와 같은 맥락이지만, 지소부분은 지역 외 판매도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6차산업화법) (2010년 12월)

(지산지소관계)

「제3장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의 개요

1. 기본이념

- 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결합강화, ② 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사업의 진흥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③ 소비자의 풍요로운 식생활 실현, ④ 식육(食育)의 일체적 추진, 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의 일체적인 추진, ⑥ 식량자금률의 향상 기여, ⑦ 환경에 대한 부하를 저감하는 데 기여, ⑧ 사회적 기운의 배양 및 지역에서의 주체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

2. 국가에 의한 기본방침의 책정,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관한 촉진계획의

- 책정
3. 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한 필요지원 실시
- 농림어업자 및 관련사업의 총합화와 함께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2011년 3월)

- (자산지소 관계)
- 「제2장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의 개요
1.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본 기본방침이나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대한 촉진계획을 책정
  3. 목표에 관한 사항
    - ① 직매소의 연간판매액이 1할 이상인 곳의 비율을 2020년까지 50%(2006년도 : 16%)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에 대하여 식육추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년까지 30% 이상)
    - ③ 농가숙박 등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시설의 연간숙박자수를 2020년까지 1,050만명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직매소·도로변상점(道の驛)·노천장터(마르쉐) 등을 활용한 직매활동이나 학교급식·기업 등의 식당·외식산업 등에 있어서의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 지역의 수요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체험활동 등을 통한 식육의 추진, 환경에의 부하절감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구체적인 실시를 강구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을 촉진
  5. 다양한 국민운동과 제휴하여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대하여(2011년 3월)

- (자산지소 관계)
- 「제5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촉진계획관계」의 개요
1.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하여 그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여 실시하기 위해 상기 기본방침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촉진계획을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촉진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노력하고, 이정촌은 이를 도도부현에 통지하고, 도도부현은 시정촌으로부터 의 통지를 포함하여 지방농정국장 등에게 통지한다.

## 2) 자산지소 관련 예산

- 농림수산성 관계의 예산조치로서, 2008년도에는
- ①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의 자산지소특별금을 활용한 직판장 정비
  - ② 급식, 관광, 상공업 등과 연계한 자산지소 추진<자산지소모델타운>조성을 위한 지원
  - ③ 전국 민간단체에 의한 자산지소의 추진운동 전개(인재육성, 우수사례표창, 정보발신)
  - ④ 직판장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소규모 농가에서 가능한 소량다품목생산 등 생산·유통체제 정비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관련 사업	2007년도 (백만엔)	2008년도 (백만엔)
지산지소모델타운사업	281	321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500	500
지산지소추진활동지원사업	13	13
강한수산업만들기교부금	8,762	7,730
식품산업클러스터전개사업	609	609
산림·임업·목재산업만들기교부금	9,756	9,692
특용임산물소비·유통종합지원대책사업	51	74
저비용고품질가공·업무용농산물 안정공급기술 개발	485	363
식품유통고부가가치모델추진사업	33	28
도매시장연대물류최적화추진사업	55	49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교부금	34,088	30,546
食의 안전·안심확보교부금	2,513	2,345
일본食育추진사업	3,815	2,776
광역연대공생·대류등대책교부금	800	973
합 계	61,761	56,019

### 3) 지산지소 추진체제

○ 지산지소의 추진체제는 3개의 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 1) ‘지산지소추진省内연락회의’ (2005년)로 지산지소 촉진시책의 책정, 시행 및 성 간 연락 조정 등을 한다.
- 2) ‘지산지소추진검토위원회’로서 관련 유식자들이 모여 조언하는 것으로 지산지소추진행동 계획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 3) ‘전국지산지소추진협의회’ (2008년)에서는 관계자와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추진 현황

#### (1) 아오모리현

- ① 지역내 농림수산업과 지역產品에 대한 縣民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계몽활동
- ② 지역食材를 사용한 ‘고향產品소비현민운동’의 협력점 제도(2009년 현재 375점포)
- ③ 지산지소 추진 관계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추진체제 강화
- ④ 縣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취급하는 식품기업 등과 연계 강화

#### (2) 이와테현

- ① 이와테현 지산지소추진기구 설치
- ② ‘이와테현 食材의 날’ 설정: 각종 캠페인 전개
- ③ 학교급식에 이와테현 食材 사용비율 확대
- ④ 지산지소 인정 레스토랑 제도 도입

(3) 미야기현

- ① ‘食材왕국미야기추진파트너십회의’ 설치(2008년)
- ② 농림수산물 직판장 설치 등 지산지소 관련 홍보 강화
- ③ 미야기현 인증식품(E마크 인증식품) 제정

(4) 군마현

- ① ‘군마지산지소추진점’ 인정제도 도입(2005년)
- ② 지산지소추진점 가운데 추진 실적이 우수한 점포를 優良店으로 인정(2009년)
- ③ 일본 최초 단계적 인정제도 도입

(5) 야마나시현

- ① ‘야마나시농업르네상스종합지원사업’ 실시: 직판장, 농산물가공시설, 농산물 생산시설 등의 정비 매뉴얼 작성, 지원
- ② ‘야마나시현 食材의 날’ 설정(매월 제3금요일~일요일)

(6) 시즈오카현

- ① 지산지소 활동에 의욕적인 단체를 공모하여 지원
- ② 시즈오카현 내 우수한 농림수산물을 시식하는 이벤트 개최
- ③ 지산지소를 통한 지역산물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수요 확대 도모

(7) 니이가타현

- ① 시정촌레벨에서의 추진체제 정비: 시정촌지산지소추진협의회 등 설치
- ② 학교급식에 지역농수산물 사용 비율 확대 추진

(8) 후쿠이현

- ① 전국 최초 지산지소추진조례 제정(2008년)
- ② 식품점에 지역농산물코너 설치 촉진(2008년)
- ③ 맛있는 후쿠이현산 메밀사용점 인증제도 도입(2002년)

(9) 시마네현

- ① ‘시마네현 고향식의 날’ 제정(매월 제3금요일~일요일)
- ② ‘시마네현 고향요리점’ 인증제도 도입

(10) 오카야마현

- ① 오카야마현 지산지소 추진방침 설정
- ② 지산지소 縣民운동 추진
- ③ 제철 농림수산물 정보의 제공

- ④ 지역농림수산물의 직매활동의 추진
- 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⑥ 관광 관련 시설 등에 지역식재의 이용 촉진
- ⑦ 지역의 전통요리와 식재의 보급·계승

(11) 야마구찌현

- ① 야마구찌현 농수산물 수요확대 협의회 구성: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이 협력해 수요 확대 추진
- ② 지산지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촉구

(12) 에히메현

- ① ‘지산지소의 날’ 설정
- ② ‘지산지소사랑지원’ 등록제도 도입
- ③ 백화점 등에서 지산지소특설코너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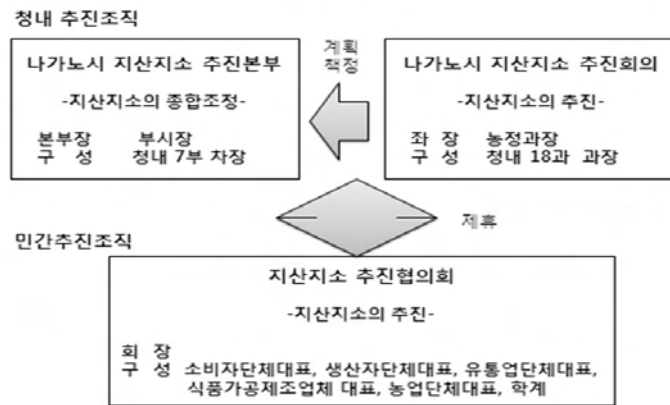
## 5)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 (윤병선, 2011)

### (1) 지산지소 추진협의회의 구성

- 지산지소추진협의회 또는 지산지소추진위원회가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형식도 거버넌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현의 경우는 ‘식품정책과’, 시정촌의 경우는 ‘농정과’ 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 나가노시의 경우, 지산지소 추진을 위해 지산지소추진본부, 지산지소추진회의, 지산지소추진협의회의 3개 조직을 구성하고, 별도로 농산물인증위원회를 두고 있다.
  - 지산지소추진본부 및 지산지소추진회의는 현에서 지산지소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지자체추진조직이며, 지산지소추진협의회의는 공무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생산자·소비자·가공유통업체·농업인단체·전문가 등에 의해 구성되는 순수 민간조직이다.
  - 지산지소추진본부는 지산지소사업의 종합적인 조정과 계획책정을 위해 부서장 및 관련 부장급으로 구성되고, 지산지소추진회의는 추진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정과장 등 관련 과장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 순수 민간조직인 지산지소추진협의회의는 지역농축산물의 안정공급과 소비확대, 지산지소협력점의 인정, 친환경농업의 추진 등 지산지소추진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협의하고 별도의 협의회가 필요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부회를 설치하기도 한다.
  - 지산지소추진협의회의는 지산지소 추진에 관해 지자체 조직인 지산지소추진본부 및 지산지소추진회의와 제휴하여 지산지소 정책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표 3-2〉 나가노시 지산지소 추진협의회 구성단체 일람

소비자단체	나가노현 음식업생활위생동업조합나가노지부 나가노시 살림을 고민하는 모임 나가노시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 나가노시 조리사회 나가노시 호텔여관조합      나가노 요리업조합
생산자단체	나가노시 농촌여성네트워크연구회      나가노시 농업청년협의회 나가노시 농업단체협의회 과수부회 나가노시 농업단체협의회 채소부회
학식경험자	NPO법인 신주슬로푸드협회      TMO나가노마을만들기 나가노 관광컨벤션 뷰로      나가노현 영양사회 복신지부
유통업단체	나가노 도매시장협동조합      나가노 청과상업협동조합
식품가공·제조업단체	나가노현 제분협동조합 나가노 두부상업조합      나가노 면류업협동조합
농업단체	나가노시 농업위원회 JA그린 나가노      JA 나가노



〈그림 3-3〉 나가노시의 지산지소협의회의 체계

## (2) 지산지소협력점 지정제도: 나가노(長野)시의 지산지소 협력점 지정제도

- 나가노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일정량 취급하는 직매소·소매점·양판점, 숙박시설·음식점, 식품가공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산지소협력점’을 인정하고 있다.

###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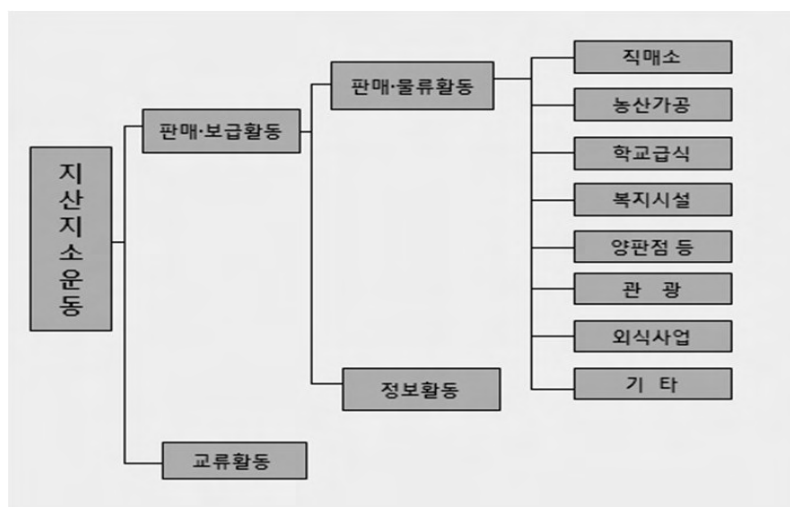
- ‘나가노시 지산지소추진계획’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업소일 것
- 인정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광고 등의 미디어로 소개하고, 또 소개되는 것을 승낙하는 사업소 등일 것
- 직판장: 나가노 산품매장이 15㎡이상으로 연간 영업일수가 100일 이상
- 소매점: 나가노시 산품 매장이 1㎡이상, 200일 이상 설치하고, 나가노시 산품이라는 표시를 하는 사업소
- 양판점: 나가노시 산품매장을 3㎡이상 상설하고, 나가노시 산품인 취지를 표시하는 사업소
- 호텔,여관,음식점: 요리의 재료로서 나가노시 산품을 연중 사용하고, 메뉴 등에 표시를 행해서 PR하고, 나가노시 산품을 사용한 요리 등을 앞으로 증가시키려는 사업소 등
- 식품가공사업자: 나가노시 산품을 원재료로서 100%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이 1개 품목 이상인 사업재통



년제조가 아니어도 좋음), 원재료 표시에 '나가노시 산' 으로 표시하는 것

- 직매소: 12점, 양판점: 11점, 호텔·여관·음식점: 46점, 식품가공사업자: 8점
- 기준은 년100일 이상, 15㎡이상이며, 운동적 차원에서 가능하면 기준을 낮추려 한다.
- 음식점의 경우 나가노산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음식으로 제공(일정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음)하면서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 가공업체의 경우 가공원료의 1가지 이상이 지역산이면 지정 가능하다.
- 지산지소 협력점에는 현판이나 증명서를 대여한다.

### 1.5. 일본 지산지소의 유형



<그림 3-4> 일본 지산지소 운동의 유형

자료 : 윤병선, 2011

#### 1) 食育추진

- 국민이 건전한 심신을 배양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만들기 위해 食育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食育기본법이 제정, 2005년 7월에 시행, 2006년 3월에 ‘食育추진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
- 食育추진시책의 기본방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의 심신건강의 증진과 풍부한 인간형성: 건전한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 등은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특수상황을 배려하면서, 심신건강의 증진과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 ② 食에 대한 감사의 의미 이해: 농업체험, 판매, 시설견학, 요리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국민이 食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 ③ 食育추진운동의 전개: 국민 모두의 이해를 얻으며, 다양한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 남녀공동

참획(참가)이라는 차원에서 食育을 추진함. 국민은 물론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자주적활동을 존중하고,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와 연대에 입각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 ④ 食育에 있어서 보호자, 교육참가자 등의 역할: 보호자 및 교육·보육관계자에게 食育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며, 어린이가 즐겁게 食을 배우고 식생활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구상한다
- ⑤ 食에 관한 체험활동과 食育추진활동 실천: 가정, 학교, 지역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장으로부터 食을 배우는 기회가 제공되어, 국민이 의욕적으로 食育의 활동을 실천 가능하도록 시책을 구상한다.
- ⑥ 전통적인 식생활, 환경과 조화된 생산 등에 대한 배려 및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식료자급률 향상에 공헌: 전통 있는 식생활의 계승 및 환경과 조화된 식료생산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식료자급에 대한 국민의 이해 촉진, 도농교류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⑦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 있어서의 식육의 역할: 식품안전성 등 食에 관한 폭 넓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하고, 행정, 관련단체, 소비자 간에 의견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시책을 구상한다.

## 2) 학교급식·병원급식

- 학교급식에 지역산품을 이용하는 것은 일괄 대량의 소비시장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쌀, 채소, 과일, 축산물, 생선 등 식재료는 물론 食器류까지 지역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더불어 풍부한 인간성의 형성 및 생산자와 교류, 농업체험 등 사회적 교육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러한 건전한 학교급식은 제철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 식문화, 생활문화 등 지역문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
- 식육(食育)기본법 제2차 식육추진 기본계획(2011년 3월)에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이용 비율을 2015년까지 30% 이상(2009년 26.1%)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정은미, 2011b).
  - 학교급식법 개정(2008년 6월 성립, 2009년 4월 시행)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었다.
- 2005년 조사 결과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초·중·고교는 94% 정도이다(김영삼, 손황제, 2009).
  - 개별 학교별 급식 학교는 523개교(53.5%), 급식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432개교(44.2%)였다.
  - 지역농산물 이용 비율은 급식센터 이용 학교 97%, 개별 학교급식 학교 92%로 급식센터 이용 학교가 다소 높았다.
  - 품목별로는 채소 사용비율이 96%로 가장 선호되고 있고, 쌀 88.7%, 과일 67.8%, 우유

64.8%, 가공식품 49.5% 등의 순이었다.

- 병원급식도 영양분석을 기초로 식단이 결정되므로 많은 지역산 식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 그 결과, 식품의 안전성, 영양, 그 외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제공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표 3-3> 후쿠시마현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지역농산물 이용 상황(2005년)

식품명		시정촌 내 생산(%)	후쿠시마현 내 생산(%)
채소류	쌀	99.4	100.0
	아스파라거스	19.9	56.6
	오이	56.9	82.4
	시금치	32.6	64.1
	대파	27.0	47.5
	배추	26.4	46.0
	무	18.0	41.5
	브로컬리	13.9	30.2
	토마토	19.7	48.1
	양배추	11.7	26.3
	감자	9.6	10.9
	양파	5.4	6.6
과일류	당근	2.6	3.6
	배	40.8	82.7
	사과	37.1	72.2
	복숭아	37.1	43.5
	포도	12.0	37.5
축산물	달걀	17.1	62.2
	돼지고기	2.9	56.9
	소고기	1.4	15.8
	닭고기	1.5	22.0

### 3) 직판장

- 직판장은 일반적으로 대면판매이기 때문에 판매원(판매원으로 생산농민이 직접 활동하기도 한다)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윤병선, 2011).
  -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농산물의 특성이나 요리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또한 소비자가 지역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확대는 지역 농업을 응원해 주는 지지층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 직판장은 최근 급속하게 지지층을 증가시키면서 지산지소운동에 탄력을 주고 있으며, 그 거점으로서의 의의를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다.
- 최근, 농산물 직판장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인기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 후쿠시마현의 경우 2000년에 187개소였던 직판장이 2005년에 287개소로 급증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매출액도 약 2배 늘었다.
  - 최근 들어서는 직판장이 단지 지역농산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 농산물 직판장은 1980년대 전후에 시작되어 역사가 길지는 않다(윤병선, 2011).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직판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직판장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설립이 이루어졌다.
  - 농협이 처음부터 농산물직판장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농산물직판장에 대하여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농협이 직판장, 특히 생산자나 그 조직에 의해서 설립된 직판장은 농협의 공동판매 사업에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농협으로 생산자들이 결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그러다가 농산물직판장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JA전국대회에서 ‘Food from JA운동’의 일환으로 ‘파머스마켓 등을 통한 ‘지산지소의 활동강화’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2000년이였다. 유통과정에서 직판장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 농협도 대도시 중앙도매시장이나 지방의 중핵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던 판매전략을 수정하여 「JA 파머스마켓 현장」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나섰다
  - 당초에는 농촌여성의 ‘자그마한 활동’에 불과했던 직판장이 예상과는 달리 지역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직판장의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직판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협도 여성부 등이 주체가 되어 직판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농산물직판장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윤병선, 2011).
  - 농산물직판장의 경영주체가 농가 등의 그룹(임의단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그 다음은 농가조직에 농협이 가세하는 형태이다.
  - 행정기관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영주체로 되는 경우에는 공사, 조합법인, 제3섹타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 대형점에서는 공설민영방식(행정기관이 시설을 정비하고, 농민 등이 운영관리)이 많다.
  - 소규모로 몇몇 농가가 모여 법인격을 갖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는 매출규모가 작다. 이 경우에는 “규격외 농산물이나 잉여분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농림수산성이 2011년 7월에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산물직판장은 16,816개로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직판장이 10,686개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JA가 운영하는 직판장은 1,901개로 11.3%였다(윤병선, 2011).
  - 직판장의 연간 총판매액은 8,767억엔에 달하는데, 이 중 JA의 판매금액은 2,811억엔

- (32.1%),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은 2,452억엔(28.0%)의 매출을 올렸다. JA와 생산자조직의 판매액이 전체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다.
- 직판장 당 연간 평균매출액은 5,214만엔인데, 운영주체별로 보면 JA가 1억 4,787만엔으로 가장 높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그룹의 직판장은 2,294만엔으로 평균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전국의 산지직판장의 총종업원수는 11만 9천명이었는데,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직판장에서 6만 8천명(전체의 57.1%)의 종업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1 직판장당 종업원수는 전국평균 7.1인이다.
  - 산지직판장 당 참가하는 농가수는 전국평균 87호인데, 이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JA가 279호로 가장 많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은 44호로 가장 낮았다.
  - 전국의 산지직판장 중 상설시설을 이용하는 직판장은 92.9%였고, 상설시설을 이용하는 직판장의 평균매장면적은 131㎡이고, 운영주체별로 보면 JA가 272㎡로 가장 넓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직판장은 94㎡였다.
  - 연간 이용자수 규모별 직판장 비율을 보면, 20만명 이상이 5.8%, 5만~20만명이 15.8%, 1만~5만명이 18.6%였고, 1만명 미만이 59.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1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직판장의 77.5%가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직판장이었는데,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직판장 가운데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직판장은 22.3%로 JA가 운영하는 직판장 30.3%의 뒤를 잇고 있다.

<표 3-4> 운영주체별로 본 농산물 직판장 형태

형 태	경영주체	특징
행정주도형	시정촌(市町村)이 직접 경영	수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담당
JA직영형	농협 등	JA의 새로운 사업분야
제3섹터형	행정, 농협, 지역농가	공공기관의 출자가 50%이상
영농조합형	농사조합법인	평등의 의무와 권리관계
임의단체형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형태로 운영	집단의식이 강함
농가개인	개인경영	무인점포도 포함
인숍(In-Shop)형	농가, 농협 등	기존점포에서 공간을 빌려 판매

자료 : 윤병선, 2011

- 직판의 가장 큰 장점은 계통유통보다 수취액이 많다는 점이다(윤병선, 2011).
- 계통유통에서는 농산물의 운송료, 운송을 위한 자재비용이 더해져 소매가격이 100엔이라고 할 경우, 농가에 돌아가는 액수는 20-35엔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야채의 경우, 소매가격은 농가수취가격의 3-5배에 달한다. 그러나 농산물 직판활동에서는 같은 농산물이 소매가격은 50-70엔이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40-56엔에 이른다. 이 경우에는 직판장의 운영경비로 소매가격액의 15%전후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통유통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규격외품을 직판장에서는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통출하에서는 소량의 경우 취급할 수 없지만, 농산물직판장에서는 특별히 진열해서 팔 수 있게 된다.

- 생산자소득의 증가는 유통비용의 절감 등에 의한 생산자 수취액의 증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채소의 경우 통상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판매액의 5할 정도가 유통비용이지만, 직판장 출하에서는 유통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는 판매액의 15% 정도에 불과해서 수취액은 판매액의 80%정도로 된다. 이로 인해서 직판장에 출하할 경우 판매단가가 낮더라도 수취액이 크게 된다.

○ 소비자의 입장에서 농산물직판장은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 이른바 유통과정의 혁신이라는 추세에 의해서 대형소매업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구매와 관련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책임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비해, 농산물직판장에서는 생산농민과 소비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지역농산물판매활동의 효과(2005년 설문조사 결과)

내 용	비율(%)
소비자에 대한 안전·안심농산물의 제공	84.4
지역농업의 활성화	72.5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	58.2
소비자와 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52.7
소비자에 대한 지역농산물 홍보	42.4
유통코스트의 삭감	37.1
기타	2.7

주 : 복수응답

자료 : 윤병선, 2011

○ 농산물직판장이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산물의 확보
  - 품질과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의 생산자와 계약해서 농산물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 ② 인재의 확보
  - 지역의 여성 및 고령자 노동력 활용
  - 지산지소 계획 단계부터의 여성, 고령자, 소비자 참여
- ③ 학습과 실행
  - 지산지소의 구상, 목표를 명확히 함
  - 생산방법, 판매실적, 구매동향을 철저히 분석
  - 소비자가 직매장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일반 슈퍼마켓과의 차별성 강구
- ④ 판매방법의 개선
  - 팔리는 지역산물을 생산

- 소비자에게 생산자 정보를 명확히 제공
- 재고품은 가공 등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 제고

#### 4) 가공사업

- 가공사업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역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생산자가 직접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가공품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지역의 가공업체가 지역농산물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경우이다(정은미, 2011a).
  - 가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2003년)에서, 조사에 응답한 1,107개소의 2003년 연간 매입액은 1억 3,091만엔이고, 그 중 지역농산물 이용비중은 매입액의 79.5%인 1억 409만엔이었다.

#### 5) 유통, 관광, 외식업과의 협력(정은미, 2011a)

- 할인점에서 지산지소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할인점 U사는 각 점포에 지역농협, 지역시장에서 매입한 지역산 채소를 판매하고 인근 농가가 직접 판매코너 설치, 개인명 표시, 농협 품평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관광업계에서 지산지소는 지역의 독자적인 식재료나 식문화를 제공, 소개함으로써 관광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군마현 온천에서는 지역의 농업후계자 그룹과 여관조합이 협력하여 숙박자 대상의 지역농산물 직판장, 농사체험용 농원의 정비와 수확체험을 실시하고, 숙박업소는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한다.
- 외식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지역농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녹색제등 달기 캠페인 등
- 일본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농림수산성과 협조하여 사원식당에서 지역 농산물 이용 확대하는 지산지소를 추진하고 있다(김영섭, 손황제, 2009: 18)
  - 2007년 5월 일본 경단련은 지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광역경제권의 자립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 그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경단련 회원 기업 1,300여개 사원식당에서 현지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회원 기업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 농림수산성은 지역 소재 기업의 사원식당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 경단련, 생산자 단체의 제휴를 추진하였다. 사원식당에서 그 지방 농산물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성과 각 지방 농정국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도도부현, 생산자 단체 등에 통지를 보내 경단련과 제휴하여 사원식당에서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6) 정보활동 및 교류활동(정은미, 2011a)

-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지산지소 심포지움이나 소비자단체와의 의견교류회 개최, 홍보용 팜플렛 작성 및 배포, 표어 및 마스코트 캐릭터 제정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 교류활동 역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사례가 많다.
  - 행정기관이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정보교류회를 개최하거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교환 및 시식회, 전통 식재료 가공 및 조리강습회를 실시한다.

### [사례 1] 나가노현 지산지소 추진계획

1. 계획의 성격: 지산지소의 추진방안을 인식하고 관계자가 적절한 역할분담 하에 서로 연대 추진하기 위한 행동계획
2. 계획 기간: 2008년 ~ 2012년(5개년)
3. 기본적 시책
  - 1) 현민의 자발적 활동 지원
    - (1) 현민의식의 향상
      - 나가노(信州)의 맛을 보는 날 설정
      - 식료교육(식육)의 보급 계몽
      - 선전, 홍보
    - (2) 인재의 육성
      - 식육 불런티어 육성
      - 생산자 그룹 육성
    - (3) 시정촌 지산지소추진계획 수립
  - 2) 지역농산물의 적극적인 판매·이용 촉진
    - (1) 판매거점 만들기 촉진
      - 직판장 및 관련시설의 정비·확충, 경영 지원
      - 양판점(대형상점) 등에 지역농산물 판매코너 설치의 촉진
    - (2) 학교급식 및 공공·복지시설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공공·복지시설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3) 식당, 여관업, 식품산업 등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식당, 여관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외식산업, 식품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4)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판매의 촉진
      - 가공품 원료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판매 촉진
  - 3) needs에 대응한 지역농산물의 생산 촉진
    - 소비자 needs를 고려한 지역농산물의 생산, 판매
    - 수량, 품목의 안정적 공급
  - 4)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지원
    - 지역의 식문화 계승 및 농업체험을 통한 교류활동 지원
    - 직판장 및 이벤트 등에 의한 교류 지원
    - 직판장 정보의 충실화 및 홈페이지 활용



信州1147.com

トップページ | 信州いいしな.comとは | 企業申込 | 農家・産地申込 | マッチング情報

個人情報について

長野県産(農産物情報)の“企業と農家・産地”の橋渡し

制作 長野県園芸作物生産振興協議会事務局  
長野県庁内 農政部 園芸畜産課 野菜・特産係

お問い合わせ 東・北信担当 TEL:090-3213-1147 (いいしな)  
中・南信担当 TEL:090-3048-1147 (いいしな)  
e-mail: info@shinshu1147.com

[사례 2] 일본 나가노(長野)시의 지산지소추진계획 (윤병선, 2011)

1. 기본방침

나가노시의 풍요로운 자연과 기후풍토에서 생산된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및 사업자가 제휴하여 나가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내 유통을 촉진하여, 지역내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식문화의 계승과 건강한 식생활을 보급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1) 생산자, 소비자, 사업자가 연대를 강화하여 나가노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나가노에서 소비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꾀하여 지역내 자급률을 높인다.
- 2) 식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 생활, 식재료를 비우는 '식육'을 확대하고, 심신의 건강을 꾀함도 동시에 전통요리, 향토 요리 등의 지역의 식문화를 지킨다.
- 3)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 특산물을 만들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한다.

2. 시책의 내용

(1) 지역식재료의 이용 촉진

1) 학교급식, 보건복지시설에서의 지역식재료의 이용 촉진

- 학교급식에서 '지역식재료의 날'을 추진하여 지역식재료의 이용을 촉진한다.
- 학교급식센터 및 보육시설, 시민병원 등의 보건복지시설과 생산자, 농협, 유통사업자와의 조정을 통해서 지역식재료의 이용을 촉진한다.

2) 숙박시설, 음식점, 식품가공사업자 등의 지역식재료의 이용촉진

- 숙박시설, 음식점, 식품가공사업자 등 대량이용시설과 생산자, 농협, 유통사업자와의 조정을 통해서 지역식재료의 이용을 촉진한다.
- 식재료의 산지표시를 추진하고, 일정량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나가노푸드 협력점으로 인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PR한다.

3) 지역농산물 직매코너의 설치

- 소매점에 지역농산물직매코너의 개설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 일정 규모의 판매코너를 갖고 있는 소매점을 나가노푸드 협력점으로 인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PR한다.

(2) 지역장려작물지원사업의 추진, 특산품만들기, 지역산업의 진흥

1) 소맥, 대두, 메밀의 재배장려

- 지역장려작물의 출하량에 대하여 장려금을 교부하여 생산확대를 꾀하는 장려작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농업단체 등이 집단적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계 등의 설비의 구입경비에 대하여 보조하고, 안정공급을 꾀한다.

2) 특산품생산의 촉진

- 지역장려작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농산가공품의 특산품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 홈페이지, 관광 팸플릿 등을 통하여 시민, 관광객을 상대로 특산품을 PR한다.

(3) 농산물정보의 제공, 나가노푸드의 PR

1) 제철농산물, 농산물직판장 등의 정보제공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철농산물의 출하정보, 제철음식메뉴, 농산물직판장, 지역농산물 판매코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제철식재료를 사용한 요리강습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이해의 촉진

- 농업축제, 나가노 소비생활전, 나가노 환경장터 등의 각종 이벤트, 직판장, 아침시장 등에서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나 정보교환을 확대한다.
- 시민에 대하여 지산지소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의 지산지소에 대한 수요를 조사·연구하고 사업의 충실·강화를 꾀한다.
- 지산지소에 찬성하고 실천하는 시민이나 단체의 조직화를 꾀하고, 지산지소에 관한 정보교류나 교류에 의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과 시민의 협동에 의한 지산지소의 취급을 추진한다.
- 3)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
  - 전통행사나 소비축제 등의 이벤트의 개최, 관광과 제휴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을 통해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촉진한다.

#### (4) 농산물직판장·가공업소의 지원 및 생산조직의 육성

- 1) 농산물직판장의 지원: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하고, 산지나 중심자상가 등의 농산물직판장의 설치, 생산자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 2) 농산물 가공업소의 지원
  -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산물가공업소의 설치, 가공업소를 이용한 집단활동을 지원한다.
  - 농산물 가공품의 정보를 널리 PR하고, 판매촉진을 꾀한다.
- 3) 생산조직의 육성
  - 농기계계의 공동구입을 조성하고, 기계의 공동이용이나 농작업의 수·위탁 등을 촉진하고, 생산조직의 육성과 농축산물의 안정공급을 도모한다.
  - 고령자나 여성농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의 집출하체제의 정비를 지원한다.

#### (5) 식농교육의 추진·지역 식문화의 계승

- 1) 식농교육의 추진
  - 보육원, 소중학교의 급식에 지역식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농업생산이나 향토요리 등 지역의 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먹거리의 안전·안심, 바람직한 식습관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 학교텃밭, 시민텃밭, 개인텃밭 등에서 생산, 수확체험을 통하여 농업에 관한 이해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식생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먹거리의 안전·안심의 이해를 높인다.
- 2) 지역식문화의 계승
  - 시민그룹, 향토요리점, 슬로푸드운동 등과의 연대에 의해 지역의 향토요리·전통요리를 지키고 전한다.
  - 영양사회,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 등의 관계단체와 연대하고, [식생활지침]등에 따라 지역식재료를 사용한 요리강습회 등의 개최와 메뉴의 제공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일본형 식생활의 이해를 높인다.
  - 지역의 전통요리를 전승하기 위하여 귀중하고 특색있는 오래된 지역채소 등의 품종을 지킨다.

#### (6) 농산물 인증제도의 창설

- 농산물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안심 신선한 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소비확대를 추진한다.
-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농산물, 판매장소 등의 각종 정보를 널리 PR한다.
- 생산이력정보의 공개 등 농축산물이나 식품의 안전성의 정보가 확인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검토한다.

#### (7) 환경에 이로운 농업의 추진

- 1) 유기질에 의한 흙 만들기 연구
  - '환경에 이로운 농업연구회'를 설치하여 유기재배의 연구를 추진하고, 생산자단체, 그룹의 유기재배에 대한 활동을 지원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퇴비만들기를 통하여 순환형농업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인다.
  - 가정이나 사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고, 이를 농지에 환원하여 지역순환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
- 2)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확대
  - 저농약, 저화학비료, 유기재배에 의한 농산물의 재배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확대를 꾀한다.

## 2. 미국

- 민간 영역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소농들의 출현으로 인해 그 기반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로컬푸드 운동에서는 연방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 농민-소비자 직판과 관련해서는, 1976년 제정된 농민-소비자 직접 마케팅법 (“Farmer-to-Consumer Direct Marketing Law” 에 따라 USDA에 지원 프로그램이 창설되었고, 그에 따라 농민장터, CSA, 농가직판장, 도로변 직판장, PYO(수확체험: Pick-your-own) 등에 대한 지원책이 생겨났다.
- 최근 오바마 정부 들어 연방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 2008년 농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 2009년 농무부가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라는 로컬푸드 정책 포털을 개설하고,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부서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기존 정책들 중 로컬푸드 관련 정책을 열거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2010~2015년 농무부 전략계획 상에서도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 미국 농무부 2010~2015 전략계획

(<http://www.ocfo.usda.gov/usdasp/sp2010/sp2010.pdf>)

#### ▶전략목표 1: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 목적 1: 농촌 활성화 증진
  - 제1축: 인터넷 접근성 증진
  - 제2축: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촉진
  - **제3축: 로컬푸드시스템 발전 및 지원**
  - 제4축: 생태계서비스/기후변화 저감시장 기회이용
  - 제5축: 자연자원/휴양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 목적 2: 지역공동체 활력
- 목적 3: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시스템 지원

#### ▶전략목표 2: 숲, 토지, 물 보전

#### ▶전략목표 3: 농산물 및 생명공학기술 수출 증진

#### ▶전략목표 4: 아동 영양접근성 보장

- 그 결과 대표적 정책수단의 하나인 농민장터의 수가 해마다 1천개씩 증가하고 있다. 2011년말 현재 7천 개소 이상으로, 이는 3년 만에 50%가 증가한 수치이다.

### 2.1 연방정부 정책<sup>1)</sup>

- 미국방부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1994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국방부(DoD)와 USDA가 제휴하여 국방부가 대량으로 신선한 먹거리를 구매한 후 자신들의 유허 트럭 용량을 활용하여 학교까지 배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체로 주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구매하여

1) Martinez et al(2010), Raja et. al(2010)을 참조했다.

중소농에 대한 우대정책과 함께 농민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ommunity Food Project Program: 1996년 농업법의 일환으로 Community Food Security Act가 통과되자 설립된 프로그램. USDA의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과거 CSREES)를 통해 집행되는 지원금으로, 저소득 지역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먹거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먹거리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 Child Nutrition and WIC Reauthorization Act(2004):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군이 local wellness policy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해법으로 로컬푸드를 장려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farm to school 프로그램 등이 역할을 했다.

## 2.2 주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 1) 식품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

- 미 농무부는 취약계층이 농민장터 등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농민장터 영양프로그램(FMNP: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을 통해 복지혜택의 수혜자들이 주 정부에서 인가한 농민장터, CSA, 농가상점, 길거리 판매대에서 제공된 쿠폰을 이용해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먹거리를 사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 정부에서 연방정부에 신청해서 예산을 얻은 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연간 지원 금액이 크지 않기에 주 정부 차원에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도 한다.
  - WIC 농민장터 영양 프로그램: WIC(여성, 아동,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 노인 농민장터 영양 프로그램(Senior FMNP):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과거의 푸드 스탬프를 직불카드 비슷한 전자결제카드(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 이용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저소득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 2008년 농업법에 의해 2천억불이 투입되어, 건강한 먹거리 구입 금액의 30%를 수혜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시험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차원에서 농민장터에서 EBT를 이용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2) 농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 미 농무부의 농업 마케팅 지원 관련 프로그램에는 농민장터 등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몇 가지 있다.
  - 연방정부-주정부 마케팅 향상 프로그램(FSMNIP): 주정부에 매칭펀드를 제공하여 먹거리와 농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 기회 모색을 지원하고 식품 마케팅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 농민장터 진흥 프로그램(FMPP): 지방정부, 농민조합, 농민장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여 농민장터, CSA, 길거리 판매대 등 직접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려는 1년짜리 경쟁기반 지원금 프로그램이다.
- 특용작물 지원금 프로그램(SCBGP): 주정부를 지원하여 특용작물(과일, 야채, 화훼 등)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금이다. 주정부 기관들이 로컬푸드 소비 증진 캠페인이나 주 생산품의 마케팅 캠페인용으로 응모할 수 있다.

### 3) 농촌개발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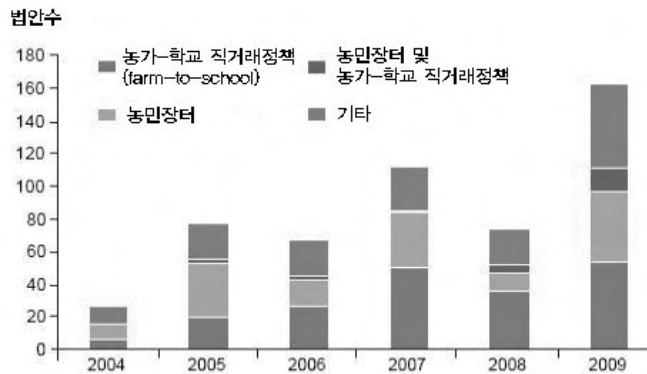
- 마을 시설 지원금 프로그램(CP): 농촌 마을 전체에 혜택을 주는 시설 건립 자금을 융자 혹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농민장터, 커뮤니티 키친(communit kitchen), 식가공시설 등도 지원대상이다.
- 기업·산업에 대한 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B&I 프로그램): 08년 농업법에서는 2012년까지 B&I 자금의 최소 5%를 주나 지역 차원의 농업 지원을 위해 할당토록 했다(이는 2010년 회계연도에만 1억불 이상의 자금이 지원됨을 의미한다).
  - 기업, 농산물 생산자, 비영리기관 등이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 커뮤니티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선권이 있으며, 지원받을 경우 제품 판매자는 그 제품이 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 부가가치 농업시장 개발 프로그램(VAAMD 프로그램, 예전의 VAPG(부가가치 생산자 지원금) 프로그램): 농업생산자들이 가공이나 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08년 농업법에서는 2012년까지 VAAMD 자금의 10%를 농민장터 등에만 의존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주류 채널에서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중규모 농가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생산품을 출하하는 지역공급체인(mid-tier value chain) 개발에, 또다른 10%를 신규 농민이나 소외계층 농민에게 할당하도록 했다(이는 각각 5년간 180만불에 해당)
- 지역사회 농식품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CFP): 08년 농업법에 따라, 건강한 도시 농식품사업 개발센터를 신설하고, 낙후된 지역사회에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체에 매년 100만불씩 3년간 지원키로 했다.
- 농촌 소기업가(microentrepreneur) 지원 프로그램: 08년 농업법에 의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09-12년까지 총 1,500만불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농업관련 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민장터에 판매하는 농촌지역 소기업가들이 이용할 수 있다.

### 4) 식품 위생 관련



일리노이주 Illinois Food, Farms, and Jobs Act (2009): 2020년까지 주정부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의 로컬푸드 목표치를 20%, 주정부 지원기관은 10%로 설정하였으며, 공공조달시 최저 입찰가 대비 로컬푸드의 가격 프리미엄을 10%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sup>

- 로컬푸드 관련 입법: 로컬푸드의 활성화와 함께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그림 3-5> 미국의 로컬푸드 관련 주 법률 제정 추이(2004-2009)

자료: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Healthy Community Design and Access to Healthy Food Database(2010)

- 로컬푸드 관련 캠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 구매, 건강한 식사 등 다양한 캠페인이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0%

BUILDING NORTH CAROLINA'S LOCAL FOOD ECONOMY

Farm To Fork

Join the 10% Campaign

a Center for Environmental Farming Systems initiative

Home

Our Partners

Learn More

Events

In Season

View Seasonality Chart

Here's How It Works

Join us in support of North Carolina's farmers, businesses and communities.

- ✓ Pledge to spend 10 percent of your existing food dollars locally
- ✓ We'll email you with a few simple questions each week
- ✓ We'll track your progress, and you'll see our progress statewide

Sign Up Now

Watch Us Grow

4616 people and 532 businesses spent \$13,390,358 locally

Since July 2010.

Help us build North Carolina's local food economy by joining the campaign and encouraging you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o do the same.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컬푸드 10% 구매 캠페인(NC10% 캠페인) <http://www.nc10percent.com>

- 지역 농식품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단체, 기관, 기업들에게 식료품 구매액 중 10% 추가 구매 서약을 받고 그

4) <http://www.ilga.gov/legislation/publicacts/fulltext.asp?Name=095-0145>

이행할 사후에 계속 확인해나가는 방식의 캠페인

- 이를 위해 로컬푸드 구매처, 구매방식, 관련단체 연결 정보를 제공하고, 매주 이메일 체크리스트 발송
- 주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환경농업센터(CEFS) (주정부의 지원)

#### [사례 1] 코네티컷 주의 로컬푸드 정책)

뉴욕과 보스턴 사이에 위치하여 로컬푸드 운동이 비교적 활발하며,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도 잘 확립되어 있다. 또한 주도인 하트포드시는 로컬푸드 운동 초기부터 모범사례로 널리 언급되던 지역.

##### ○ 농민장터 지원 정책

- WIC and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FMNP): 5,600명의 WIC와 32,000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혜택 제공. 구매액 기준으로 87년의 2만불에서 2010년에는 774,000불로 크게 증가
- 농무부는 DPH의 State WIC program 및 지역 WIC 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WIC Fruit and Vegetable Check Program 실시하여 WIC 수혜자들이 농민장터에서 WIC fruit and vegetable check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제공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Dept. of social Services (DSS)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SNAP 사용액이 75% 증가하였음
- 2010년, Public Act 10-103, An Act Concerning Farms, Food and Jobs: "면제 대상" 에 acidified foods(잼, 젤리, 산성을 띄는 보존식품)을 포함시켜, 농가내 직가공 장려(원료생산 농장에서 직접 제조해야 하고 인가된 농민장터에서만 판매 가능)
- 2011년 여름 현재, 인증된 농민장터가 120개에 달함(90개 시군)

##### ○ 농지보호 정책

- 뉴욕과 보스턴 사이에 위치하여 농지보호가 큰 과제: 130,000 에이커의 농지 중 85,000 에이커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목표
- 개발권 구매(pDR)를 통해 지금까지 283개 농장, 37,262 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했음
- 필요한 자금은 Community Investment Act (CIA)에 따른 채권판매 수익이 주를 이룸
- 주의 자금지원을 통해 연방정부의 농지보호 프로그램(Farm &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에 지렛대 효과 기대

##### ○ 지자체 재량에 의해 농장 및 농업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 Connecticut Grown Program: 86년 시작된 지역 농산물 인증 마크 프로그램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다.

- 지역 농산물 인증 마크 사용      - 구매 농산물 구매가능한 곳 자료 제공
- 제철 지역 농산물 달력      - 생산자 리스트 및 브로셔
- 자금 획득 기회 홍보      - 도로에 농장 알리는 표지판 설치
- 농민장터 / Farm-to-School / Farm-to-Chef
- Farm Link: 농장을 상속받게된 신세대 농민 지원 프로그램(세대간 원활한 이전 지원)
- 언론 홍보      - 마스코트 제작
- CT Apple 마케팅 보드: 86년 설립. 지역산 사과에 대한 수요처 개발, 마케팅 등
- CT Seafood Council: 지역 수산물 판촉 위한 조직      - CT Farm Wine Development Council(와인 판촉)
- CT Food Policy Council

##### ○ 주차원의 지원금과 대출금

(1) Agriculture Viability Grant Program

- Farm Transition Grant Program (FTG): 최대 49,999불, 농민 혹은 농업조합 대상, 50% cash match, 식물이나 가축 구매 제외한 모든 농장활동 지원.



- Farm Viability Grant for Municipalities & 501(c)(3) Agricultural Non Profits (FVG): 최대 49,999불, 지자체 공공 기관 및 농업 비영리기관. 지자체는 50% 매치(현금 혹은 서비스), 비영리기관은 40% 매치(현금 혹은 서비스), 지역 토지 사용 규정 및 농업 규정 실행, 농지보호 전략 실행, 지역 농업 홍보, 지역 시장 확립 등
- Farm Reinvestment Grant Program (FRG): 최대 4만불, 50% cash match. 농장 건물이나 온실 건축/보수에 대한 자금지원, 3년 이상된 농민
- (2) CT Grown Joint Venture Grant: CT grown 로고 통한 지역농수산물 판촉경쟁 기반 지원금으로 50%를 현금 매칭 해야 함. 최대 지원액은 협회의 경우 5천불, 생산자나 사업체는 2천불.
- (3) Good Ag Practices (GAP) & Good Handling Practices (GHP) 비용분담 지원금: Speciality Crop Block Grant 통해 인증비용의 50%(최대 500불) 지원
- (4) Environmental Assistance Program (EAP): USDA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UIP)에 따라 농장 폐기물 처리 개선에 드는 비용 지원: 시설 건축비는 75%까지 운영비는 100%까지
- (5) Organic Certification Cost Share Program: USDA 유기농 인증 비용의 75% 지원(최대 750불). USDA 리스트 보고 주정부에서 먼저 농가에 연락해서 의사 타진.
- (6) PA 09-229 Milk Producer (Dairy Sustainability) Grant: 우유생산자들의 최저 생산비와 출하가격 사이의 차이를 보상.
- (7) Speciality Crop Block Grant: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 지원. 최대 \$75,000.

#### [사례 2] 하트포드시 로컬푸드 정책<sup>6)</sup>

- 하트포드시 먹거리 위원회(City of Hartford Food Commission)
  - 97년부터 지역 먹거리보장상(Community Food Security Awards) 수여
  - 슈퍼마켓 조사: 슈퍼마켓들의 가격지수 조사 및 발표, 농민장터에 대한 정보도 제공
  - 시장과 시의회에 정책 권고
  - L-Tower Bus Route: 버스 환승 없이 North End 주민들이 먹거리 쇼핑 할 수 있게 함
  - Summer Food Service Program: USDA,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점심 제공
- 하트포드 푸드시스템(Hartford Food System)
  - 하트포드시 저소득층 먹거리 문제 개선 위한 시스템적 접근 모색을 위해 78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시 당국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활동함
  - Holcomb Farm CSA: 이 단체가 94년 시작한 비영리 CSA, 2006년 33,000 파운드의 과일과 야채를 저소득층에 제공했고, 나머지는 시장에 판매하여 프로젝트 비용 충당.
  - Grow Hartford & urban mini-farm: 버려진 땅 활용하여 유기농으로 지역민에게 먹거리 제공(2004년 시작). 교육장으로도 활용
  - Parent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ood: 학교 급식 개선
  - Hartford Advisory Commission on Food Policy: 시의회 소속 위원회에 15명 참가
  - Healthy Food Retailer Initiative: 시내 corner markets과 도심지 식료품점의 연대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이용 가능성 증진
  - 지금까지 65개 농민장터의 설립 혹은 설립 지원
  - CT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설립 지원
  - Grocery Delivery Services for Homebound Seniors 설립: 거동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먹거리 배달

5) <http://www.ct.gov/doag>

6) <http://www.hartford.gov>

### 3.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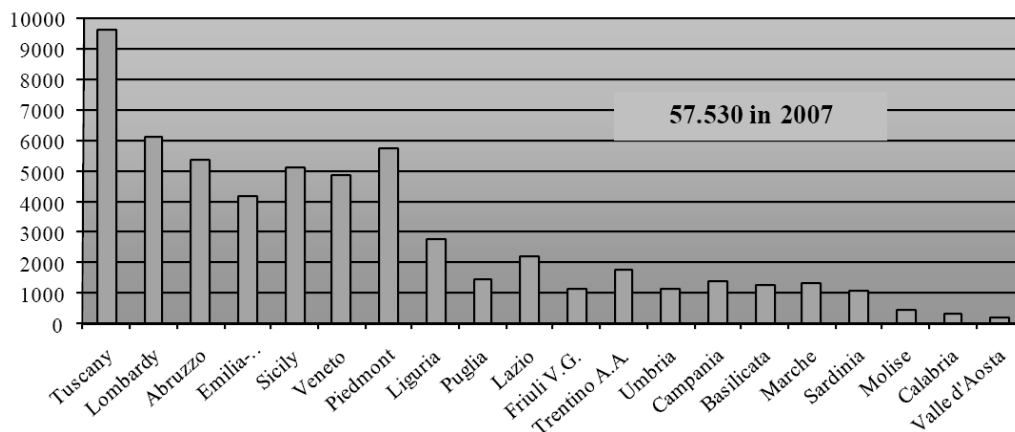
#### 3.1 주요 정책수단

- 이탈리아의 농식품 생산자-소비자 거리 “km 0 “(Chilometro Zero) 캠페인
  - 이탈리아의 주요 농민운동단체 중 하나인<콜디레티 Coldiretti> 주도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 농식품의 수송거리와 유통단계를 줄인(filiera corta: 이탈리아에서 로컬푸드 단어를 대체하는 자신들의 용어로 영어로는 short chain) 신선한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 베네토 주에서는 4개월 동안 시민 2만 5천명의 서명을 받아 2008년 7월 25일 이를 주 법률로 제정하였다.
  - 음식점, 슈퍼마켓 등에서 최소 30~50%의 지역산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인센티브(세금감면이나 자금지원)를 도입하였다.
  - 관공서, 학교, 병원, 탁아소,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들의 구내식당에서 최소한 50%의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 농민장터와 지역사회지원농업(CSA: 이탈리아에서는 GAS라고 부름 - 연대적 구매클럽) 등 지역농민들의 농식품 직판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 음식점이나 농가민박 등에서 지역산 식재료로 요리를 제공하는 “KM 0 메뉴”를 장려하고 있다.
  - 외식업체와 유통주체들의 지역산 농식품 취급을 장려하고 있다.
- 이제는 단순히 이탈리아 내 일개 주정부의 차원이 아니라, 이탈리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filiera corta)와 “km 0” 캠페인을 점차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01년 법률(Decree Law No.228/01)에 의해 농가등록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인은 자신의 농장에서 주로 나오는 산물을 팔 수 있고 가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 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 농림식품부의 “메이드 인 이탈리아” 캠페인과 “농촌 사랑” 프로그램 등은 고품질 농식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노력 및 농촌사랑 캠페인이다.
  - 농민장터를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국에 현재 150개 이상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와 제철 농식품 소비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다른 지역들에서도 “km 0” 캠페인을 열광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중에 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km 0” 관련 농식품 매출액이 27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km 0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100곳 이상, 생산 농가가 1천 곳에 달한다.
- 2009년 10월 27일 이탈리아 농림식품부 장관이 “KM 0” 슈퍼마켓(“KM 0” 농식품만 오로지 판매하는 슈퍼마켓) 개소식에 참석하여, “이는 우리 국토에 가치를 부여하고 진정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0km 라인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농식품 표시제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기 식탁에 올리는 농식품의 출처를 알 권리가 있고, 생산자는 자신의 노력과 생산력을 가치화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림 3-7〉 이탈리아 지역별 직거래 농가 수(2007)

자료 : Aguglia and Salvioni(2010: 1705)

- 주1 : 전체 등록농가의 6.1%인 57,530호이며, 이는 2005년 대비 18% 증가, 2001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임
- 주2 : 직거래 농가의 판로 비중: 현장판매 63.4%, 농민장터/지역축제 24%, 농가직판장 14%
- 주3 : 토스카나주가 월등하게 많은 까닭은 주정부에 의해 농민장터가 활성화된 결과

#### ○ 이탈리아 정부의 <이동거리가 짧은 고품질 농식품 증진법> 제정 (미확정) (2010.3)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shorter food chain: 유통단계 및 이동거리의 단축),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고품질의 0km 농식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 소비자들의 생산-가공단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개발 증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농민장터' 등의 직거래를 위한 단일 규범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1조 (목적)

- 농민들의 직판을 위한 농업시장 설치의 단일규범 확립(가격 투명성, 식품안전, 추적가능성 등)
- 환경친화적, 전통/농촌문화 보전적 농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의 증진
- 소비자를 위한 농업시장 확산과 성공의 장려

##### 제2조 (정의)

##### 제3조 (이동거리가 짧은 고품질 농식품의 판매공간)

##### 제4조 (설치 보조)

##### 제5조 (농업시장, 직판의 조건)

##### 제6조 (농업시장, 직판장의 설치)

- 제7조 (농식품의 판매와 품질 조건)
- 제8조 (농업시장, 직판장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9조 (정보활동)
- 제10조 (모니터링)
- 제11조 (특별 지역)

### 3.2. 로컬푸드 수단별 현황

#### ○ 농민장터 (Mercati del Contadino)

- 1984년 시작됨: 중세시대 활성화 되었다가 19세기에 사라진 농민장터를 복원(Fierucola: 매월 첫째 일요일 개장)하여,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대안문화의 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 토스카나 주에 현재 50개 이상이 있다(2007년 12개로 시작).
- 이탈리아 중앙정부의 “농민들의 시장 직판” 관련 규정(2007년 11월)과 광역 주정부의 “Filiera Corta” 프로그램, 그리고 <토스카나 농촌개발 프로그램(RDP)>(2007~2013)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다(321b: 농촌 경제/주민을 위한 기초 서비스(상업서비스) 항목).
- 현재 <이탈리아 농민장터협회>가 활동하고 있다(<http://www.farmersmarket.it>).



#### ○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

- 1994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CSA(이탈리아에서는 GAS: 연대적 구매그룹)는 지난 14년동안 꾸준히 늘어서, 현재 약 500개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http://www.retegas.org>).
- 토스카나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10개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08년 재정법에서 CSA를 비영리 결사체로 규정함으로써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농가 직판장/농민 직판장

<그림 3-8> 토스카나주 CSA(GAS)의 분포도

- 위치, 소비자 유형, 농가구성 등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다: 노천 판매, 실내 판매, 주문 판매(택배, 농가 수확체험), 개인 또는 공동 등
- 최근의 다각화 인센티브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자신의 직판장을 갖거나 공동운영 직판장을 조직 중에 있다.
- 직판장들이 CSA의 모임장소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활성화 효과를 누리고 있다.
- 농촌개발정책(RDP)의 제1축(121: 농업 자산의 현대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유형자산 투자 및 무형서비스 투자가 가능하다.

○ 소비자 우유 직판

-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가공하지 않은 생유(필터링하고 냉장만 한)를 자동판매기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다(자판기 분포지도 <http://www.milkmaps.com>)
- 2007년 법으로 인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소비자들이 자신의 용기를 가져와서 우유를 채워가는 형태로 판매된다.
- 대개 한 농가가 한 곳 이상의 자판기에 매일 새로운 우유를 공급한다.

3.3. 토스카나 광역 주정부의 로컬푸드 정책 프로젝트 <Filiera Corta> 사례

“지난 수십년간 농식품체계의 특징은 “긴 유통단계”였다. 그 결과 생산자-소비자 간 거리의 확대와 중간상인의 증대, 소농들의 시장퇴출, 소비자들의 먹거리 출처 확인 불가능, 지역자원(생물다양성, 농촌의 쇠퇴, 식문화)의 쇠퇴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강력한 지역적 근원의 재발견을 통해 농식품 생산과 소비·유통구조를 다시금 지역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농식품 유통단계 축소(filiera corta: short chain)”가 바로 이러한 접근인데, 농민장터, 농가매장 직판, CSA 등이 그 수단이다” - 토스카나주 홈페이지 중에서<sup>7)</sup>

- 2003년 광역정부는 세계화에 직면한 먹거리라는 주제를 심화시키고자, <농업과 식량의 미래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에서는 “선언문”과 “지역농업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 여기서 생산과 소비의 지역순환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명시하고, 토스카나 지역의 실상에 대한 조사 진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 2007년 5월 토스카나 주정부 규정(no.335)으로 “Filiera Corta 프로그램(토스카나 농식품 증진을 위한 광역 네트워크)을 승인하였다.
  - ARSIA(토스카나 농림식품혁신청)에서 주관하며,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정부 차원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농촌개발정책으로서 Filiera Corta가 갖는 역할을 인정하면서, 농민들의 생산물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고품질의 지역산 농식품 공급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을 인증받은 토스카나 농식품과 그 특징에 친숙하게 하며, 운송에 따른 환경영향과 제철 농식품 소비 증진을 위해 지역 생산물의 지역 소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생존을 증진하고, 음식관광객의 농촌시장·판매처로의 유입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식품 생산-소비 간의 전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주체들(특히 음식점, 관광업계, 급식업계 포함) 간의 소비촉진 협약을 증진(PATTI 체인)하고자 한다.

7) [http://fileracorta.arsia.toscana.it/?lingua=\\_J2](http://fileracorta.arsia.toscana.it/?lingua=_J2)

○ 주 정부와 ARSIA의 정책

- 주 정부는 지역 기관이 보증하는 사업들에 대해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1) 지역매장, 농민장터
- 2) 학교 및 공공급식 공급(2002년 토스카나 주 규정 “토스카나 지역에서 유기농 및 전통 식재료의 공공 및 학교급식 및 교육프로그램 사용“에 의해)
- 3) 예술과 음식(미술관과 박물관에 로컬푸드 전시판매) 등의 정책수단을 집행

총예산 2,285,000 유로

- |  |                       |
|--|-----------------------|
| 1) 농민장터 832,344유로                            | 2) 지역 직판장 1,118,656유로 |
| 3) PATTI 체인 (농민과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와의 협약) 138,000유로 |                       |
| 4) 예술과 음식 196,000유로                          |                       |

○ 토스카나 주정부는 2009년 법령 3348을 통해 제2단계 Filiera Corta 프로젝트에 돌입하였다.

- 70만 유로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기존 4가지 수단 이외에 1) 물류 2) 특별 프로젝트를 추가하였다.
- 총 16개 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1) 농민장터 4개, 2) 지역 직판장 2개, 3) 예술과 음식 2개, 4) Patti 체인 2개, 5) 물류 2개소, 6) 특별 프로젝트 2개